

제 출 문

(사)강릉단오제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2018 강릉단오제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8월

책임연구원 정 석 중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연구원 임 관 혁 (강릉영동대학교 교수)

연구원 구 완 회 (관광학 박사)

연구보조원 황 지 윤 (가톨릭관동대학교 관광학 석사)



제 목 목 차

I. 시작하기

-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 1) 과업의 배경 1
 - 2) 과업의 목적 1
- 2. 과업의 범위 1
 - 1) 공간적 범위 1
 - 2) 시간적 범위 1
 - 3) 내용적 범위 2
- 3. 과업의 수행방법 2
 - 1) 문헌조사 2
 - 2) 현장조사 2
 - 3) 전문가 의견조사 2
 - 4) 자료의 분석 정리 2
 - 5) 연구체계 3

II. 2018 강릉단오제 현황

- 1. 2018 강릉단오제 행사 개요 7
 - 1) 행사 개요 7
 - 2) 행사 운영 체계 7
- 2. 2018 강릉단오제 주요 프로그램 10
 - 1) 주요 행사 10
 - 2) 행사 일정표 17
- 3. 2018 강릉단오제 공간 및 시설배치 18
 - 1) 행사장 공간 현황 18
- 4. 2018 강릉단오제 공간 및 시설배치 23
 - 1) 홍보 기본방향 23
 - 2) 홍보 전략 23



Ⅲ. 2018 강릉단오제 평가 분석

1. 2018 강릉단오제 방문객 조사 분석	31
1) 조사 개요	31
2) 2018 강릉단오제 방문객 설문조사 분석 결과	33
2. 2018 강릉단오제 방문객 추정 및 영향분석	54
1) 방문객 추정	54
2) 영향(파급효과) 분석	55

Ⅳ. 2018 강릉단오제 현장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개요	67
1) 모니터링 목적	67
2) 모니터링 목적	67
3) 모니터링 조사 기간 및 장소	68
4) 모니터링 분석 내용 전개 및 구성	69
2. 2018 강릉단오제 주요 프로그램	70
1) 신주빚기	70
2) 산신제·성황제·봉안제	74
3) 2018 단오제 본 행사	78
4) 2018 강릉단오제 상시 프로그램	152

Ⅴ. 국내외 사례분석

1. 국내사례	163
1) 진주강남유등축제	163
2. 국외사례	170
1) 마슬레니차	170

Ⅵ. 2018 강릉단오제 발전방안

1. 2018 강릉단오제 발전 자문회의	181
1) 개요	181
2) 주요내용	182



2. 강릉단오제 발전기본방향 및 SWOT 분석	191
1) 기본방향	191
2) SWOT 분석	191
3. 2018 강릉단오제 공간 구성 및 시설 배치 개선방안	192
4. 2018 강릉단오제 운영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	197
5. 기타 제안	199

VII. 부록

1. 인터넷 모니터링 사례	203
1) 강릉단오제 2018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 단오장으로 놀러가자!	203
2) 강릉 가볼만한곳 강릉단오제	212
3) 축제여행_2018 강릉단오제(180616)	217
2. 방문객 설문지	224



표 목 차

<표 2-1> 담당업무 및 분야별 업무	8
<표 2-2> 2018 강릉단오제 주요 프로그램	10
<표 2-3> 2018 강릉단오제 지정문화행사	11
<표 2-4> 2018 강릉단오제 기획공연	11
<표 2-5> 2018 강릉단오제 인류무형문화유산 창작공연	12
<표 2-6> 2018 강릉단오제 공연행사	12
<표 2-7> 2018 강릉단오제 단오체험촌 프로그램	13
<표 2-8> 2018 강릉단오제 시민참여행사	14
<표 2-9> 2018 강릉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	15
<표 2-10> 2018 강릉단오제 민속놀이 프로그램	15
<표 2-11> 2018 강릉단오제 경축 행사	16
<표 2-12> 2018 강릉단오제 부대행사	16
<표 2-13> 2018 강릉단오제 구역별 행사내용	18
<표 2-14> 2018 강릉단오제 공연 설치물 내역	19
<표 2-15> 2018 강릉단오제 난장 설치물 내역	19

<표 2-16> 2018 강릉단오제 남산교 설치물 내역	19
<표 2-17> 2018 강릉단오제 씨름장, 그네터 설치물 내역	20
<표 2-18> 2018 강릉단오제 기타시설물 내역	21
<표 2-19> 연령별 홍보 전략	23
<표 2-20> 지역별 홍보 전략	24
<표 2-21> 단계별 홍보전략	24
<표 2-22> 방송매체 활용 홍보내역	25
<표 2-23> 인쇄물 제작 내역	26
<표 3-1> 2018 강릉단오제 설문지 구성	32
<표 3-2> 2018 강릉단오제 선호 프로그램	47
<표 3-3> 2018 강릉단오제 부분별 만족도	49
<표 3-4> 교통수단과 접근성 만족도의 영향관계	51
<표 3-5> 2018 강릉단오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52
<표 3-6> 2018 강릉단오제 방문객 추정결과	54
<표 3-7> 2018 강릉단오제 수입 및 지출 내역	56
<표 3-8> 축제 운영관리 지출에 의한 파급효과 분석결과	57
<표 3-9> 2018 강릉단오제 부분별 소비금액	58
<표 3-10> 제1모형(방문자 전체 소비지출) 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	60
<표 3-11> 제2모형(관광객 소비지출) 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	61
<표 3-12> 제3모형(관광객 실질적 소비지출) 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	62
<표 3-13> 2018 강릉단오제 개최에 따른 경제적인 총 파급효과	63
<표 4-1> 2018 강릉단오제 모니터링 조사항목	68
<표 4-2> 2018 강릉단오제 모니터링 장소	69
<표 4-3> 2018 강릉단오제 모니터링 장소	69
<표 6-1> 2018 강릉단오제 발전 자문회의 참석자	181
<표 6-2> 2018 강릉단오제 SWOT 분석	191



그림 목 차

<그림 2-1> 행사장 운영 조직도	8
<그림 2-2> 2018 강릉단오제 행사일정표	17
<그림 2-3> 2018 강릉단오제 행사장 조성도	18
<그림 3-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결과- 성별	33
<그림 3-2>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결과- 결혼여부	33

<그림 3-3>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결과 - 연령	34
<그림 3-4>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결과 - 거주지	34
<그림 3-5>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결과 - 가구 월 평균 소득	35
<그림 3-6>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결과 - 최종학력	35
<그림 3-7>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결과 - 직업	36
<그림 3-8> 2018 강릉단오제 방문횟수	37
<그림 3-9> 2018 강릉단오제 동행인 유형	37
<그림 3-10> 2018 강릉단오제 정보습득 경로	38
<그림 3-11> 2018 강릉단오제 축제기간 동안 재방문 의사	38
<그림 3-12> 관광객 일반특성 - 구입용품	39
<그림 3-13> 관광객 일반특성 - 셔틀버스 이용여부	39
<그림 3-14> 관광객 일반특성 - 셔틀버스 유료화 찬반여부	40
<그림 3-15> 관광객 일반특성 - 이용 숙박시설	41
<그림 3-16> 관광객 일반특성 - 이용 교통수단	41
<그림 3-17> 관광객 일반특성 - 방문객 지출 비용	42
<그림 3-18> 2018 강릉단오제 방문 동기	43
<그림 3-19> 2018 강릉단오제 지정문화재 참여도	44
<그림 3-20> 2018 강릉단오제 인지도	45
<그림 3-21> 2018 강릉단오제 참여 권유 여부	46
<그림 3-22> 주변 관광지 방문 의사	46
<그림 3-23> 주요 공연 및 프로그램 유료화 찬반 여부	47
<그림 3-24> 2018 강릉단오제 선호프로그램 1순위	48
<그림 3-25> 2018 강릉단오제 선호프로그램 2순위	48
<그림 3-26> 2018 강릉단오제 선호프로그램 3순위	49
<그림 3-27> 2018 강릉단오제 부분별 만족도	50
<그림 3-28> 2018 강릉단오제 지역에 미치는 영향	53
<그림 5-1>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 사진	166
<그림 5-2> 2017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 배치도	167
<그림 6-1> 회의 사진	181
<그림 6-7> 공연 관람석 현장사진	194
<그림 6-10> 타 시군의 번지점프 인증서	197





I. 시작하기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
3. 과업의 수행방법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강릉단오제”의 행사 운영 관리 및 방문객의 행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축제 기반 마련
- 세계의 “강릉단오제”, 세계 전통 축제로의 발전 기대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2018년 강릉단오제 행사장 일원에서 행해진 강릉단오제(축제)에 대한 행사의 진행 상황, 프로그램의 운영,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상황을 모니터링 함
- 방문자(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단오제 참여 형태, 인지도와 만족도, 영향 등을 조사, 분석, 평가함
- 상기의 조사, 분석, 평가를 통하여 강릉단오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강원도 강릉시 강릉 대도호부 일원(신주빚기 행사)
- 강원도 강릉시 대관령 일원(산신제)
- 강원도 강릉시 강릉단오제 행사장 일원(본 행사)

2) 시간적 범위

- 2018년 강릉 단오제 행사 기간 전후
- 2018. 05. 19.~ 06. 21. (34일간)

3) 내용적 범위

- 현황 조사
- 2018 강릉단오제 방문객 평가 분석
- 2018 강릉단오제 현장 모니터링 결과 분석
- 2018 강릉단오제 방문객 추정 및 파급효과 분석
- 국내외 사례분석
- 강릉단오제 발전 방안 제시

3 과업의 수행방법

1) 문헌조사

- 축제 프로그램 선행 연구 조사 및 분석
- 각종 관련 자료 수집 분석

2) 현장조사

- 관찰 및 모니터링
- 인터뷰
- 설문조사

3) 전문가 의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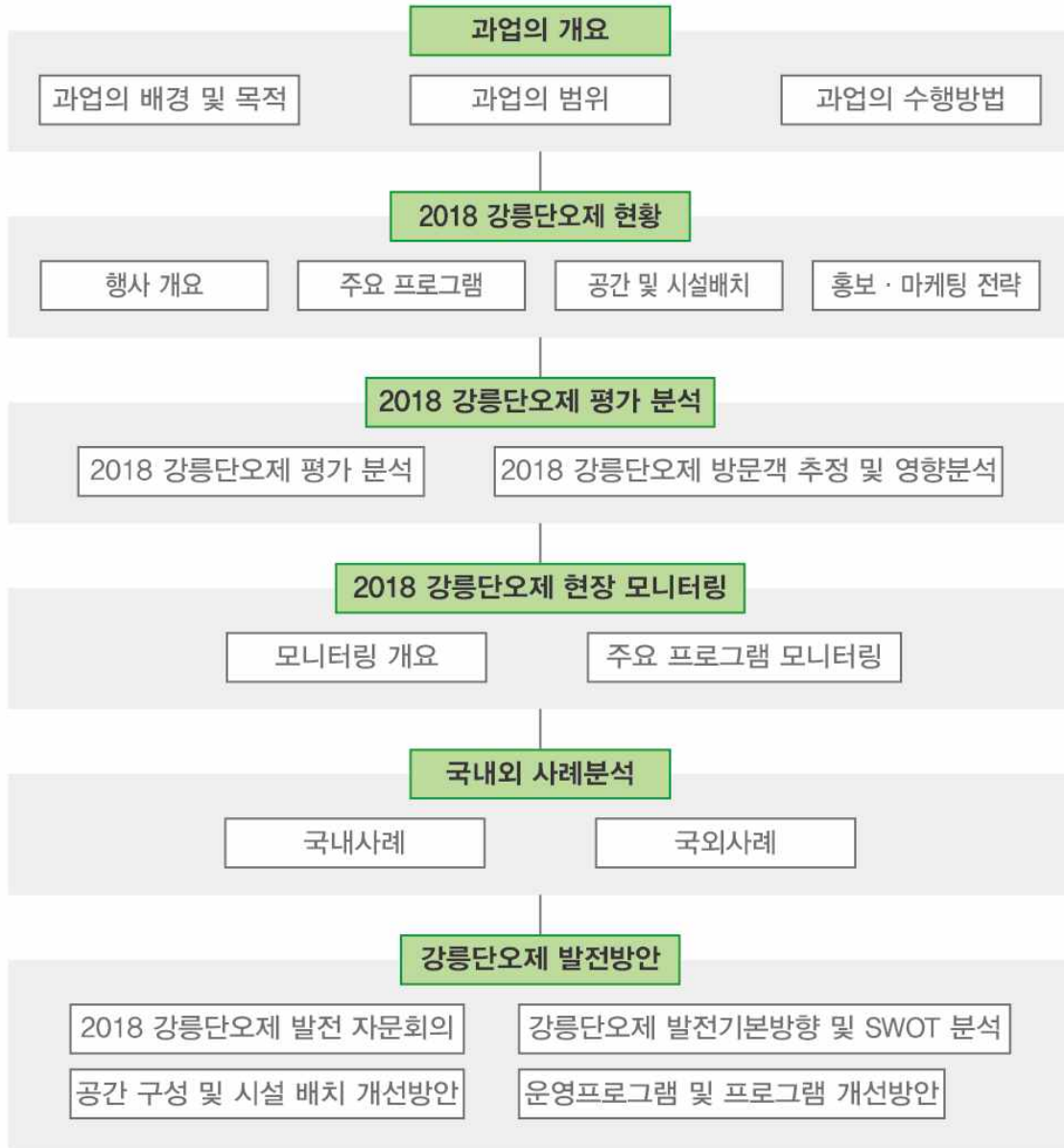
- 전문가 의견조사는 분야별 전문가 10인을 강릉단오제 팸투어 (Familiarization Tour)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평가 워크숍(FGI)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요약정리함

4) 자료의 분석 정리

- 기술적 방법으로 수집된 사실을 정리하였으며, 설문조사의 결과를 빈도 분석, 교차 분석 등의 기술 통계분석으로만 이용하였음

5) 연구체계

- 2018 축제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체계를 진행하였음





Ⅱ. 2018 강릉단오제 현황

1. 2018 강릉단오제 행사 개요
2. 2018 강릉단오제 주요 프로그램
3. 2018 강릉단오제 공간 및 시설배치
4. 2018 강릉단오제 홍보·마케팅 전략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

1 2018 강릉단오제 행사 개요

1) 행사 개요

- : 2018 강릉단오제 - 2018 Gangneung Danoje Festival
- 슬로건 :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
- 기 간 : 2018.06.14.(목) ~ 06.21(목)
- 장 소 : 강릉 남대천 및 지정 행사장
- 주 최 : 사단법인 강릉단오제위원회, 사단법인 강릉단오제보존회
- 주 관 : 강릉청소년회의소 외
- 주요 행사 : 지정문화 행사 등 14개 분야 76개 프로그램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강원도, 강릉시
- 예산 현황 : 총 1,194,000백만원
 - 시·도보조금 : 1,034,000백만원
 - 자부담 및 기타지원금 : 160,000백만원

2) 행사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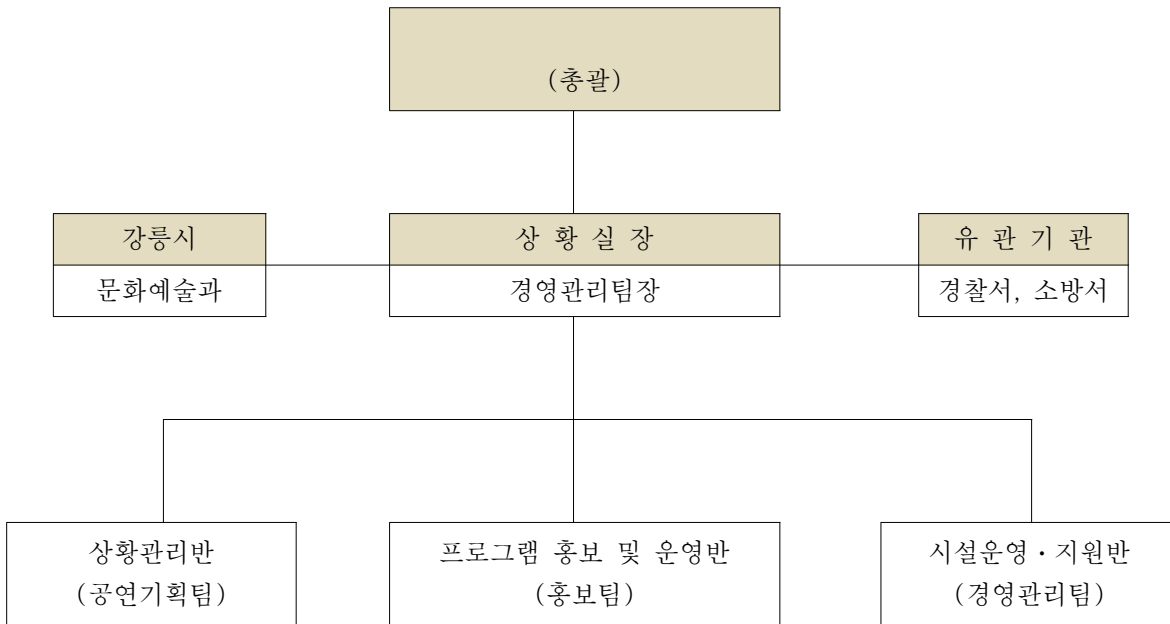
(1) 공연 운영 체계

- 행사장운영 : 자원봉사자 250명 / 해설사 및 통역봉사자 60명
- 진행 스텝 : 14명
- 무대사회자 : 3명(수리, 아리마당, 단오문화관 각 1명)
 - 각 공연장별 공연 안내 및 진행
 - 공연단과 스텝 연결 (리허설 및 공연 시)
 - 공연 안내 현수막 확인
- 공연 감독 : 1명
 - 공연스텝(음향, 조명, 무대, 사회자, 도우미) 관리
 - 방송사 특집 프로그램 관리
 - 행사장(공연장, 제단 등) 관리
 -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 TF : 2명(공연기획, 행사운영)
 - 공연관리 및 운영
 - 주요 프로그램 행사운영

(2) 행사장 운영

- 행사장 운영 참가 기관 : 강릉단오제 위원회, 강릉시, 경찰서, 소방서
- 행사장 운영 조직도



<그림 2-1> 행사장 운영 조직도

- 담당업무 및 분야별 업무분장

<표 2-1> 담당업무 및 분야별 업무

	담당업무	비고
상임이사	○ 행사장 운영 총괄	
상황실장	○ 행사장 종합 상황관리 ○ 주요 VIP 동향 관리 ○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유지 관리 ○ 비상상황 발생 시 재난종합 대책 관리	경영관리팀장
상황반장 및 상황 관리요원	○ 각종 회의 및 일일상황 보고자료 작성 ○ 팀별 협조 및 조정, 주요사항 파악 보고 ○ 행사장 연락체계 유지 및 각종 자료 집계 ○ 상황실, 접견실 상황판 작성 관리 ○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팀장 및 담당자

	업무분장주요내용
관리반(공연 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 상황 보고 및 회의 운영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및 전파 ○ 주요 상황 취합 처리 및 총괄 관리 ○ 각종 지시사항, 공지사항 전달 ○ 공연 무대, 전시·체험, 포럼 프로그램 운영·관리 ○ 공연단 및 진행요원 운영·관리 ○ 비상상황 관리 및 전파, 비상연락 체계 구축, 비상 대책 회의 운영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반 (홍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프레스룸 관리 및 운영 ○ 기자단 응대 및 기사 송고 지원 ○ 관람객 현황 관리 ○ 비상상황 시 홍보
시설운영·지원반(경영 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장 및 폐장 점검 및 관리 ○ 회장 운영인력 근태관리 ○ 물자 관리에 따른 현황 파악 관리 ○ 회장 방송, 청소, 경비, 보건, 위생안전 분야 주요 상황 접수, 보고, 전파 및 처리 ○ 차량 통제, 주차장 관리 등 교통관련 주요 사항 접수, 보고, 전파 및 처리 ○ 각종 영업 임대 사업 시설 운영상황 관리 ○ VIP 의전 관리 ○ 각종 편의시설 운영상황 파악 및 관리 ○ 비상상황 시 대피유도, 응급복구 처리 및 행정지원

2 2018 강릉단오제 주요 프로그램

1) 주요 행사

(1) 주요 행사 내용 : 14분야 76개 프로그램

<표 2-2> 2018 강릉단오제 주요 프로그램

목	분야	수	상세프로그램
1		12	①신주빚기, ②대관령산신제, ③국사성황제, ④구산서낭제, ⑤학산서낭제, ⑥봉안제, ⑦영신제, ⑧영신행차, ⑨조전제, ⑩단오굿, ⑪관노가면극, ⑫송신제·소제
2	기획공연	2	①가족뮤지컬 다노다노 ②년버벌 발레, 춤추는 호랑이
3	인류무형문화유산 창작공연	3	①춤, 단오 그리고 신명 -“굿 위드 어스” ②강릉아리랑 소리극 - 울어머이 왕산택 ③아리랑, 대중민요에서 대중가요로 이어지다
4	전통연회 한마당	4	①인류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② 무형문화재 초청공연 ③지역무형문화재 공연 ④전통혼례
5	무대공연 예술제	3	①무대공연예술작품 선정작 ②국내예술단 초청공연 ③골드페스티벌
6	경연대회 페스티벌	6	①제37회 KBS농악경연대회 ②제24회 전국사물놀이(무속악)경연대회 ③제25회 강릉사투리경연대회 ④제51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⑤제6회 전국민요경창대회 <솔향아리랑제> ⑥제2회 전국한국무용대회
7	청소년어울림 한마당	4	①제22회 청소년가요제 ②2018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③ 청소년 단오마당 D.Y.F ④블링블링 강릉단오
8	국외초청공연	1	①국외초청공연
9	단오체험촌	15	①수리취떡 맛보기 ②단오신주 맛보기 ③창포머리감기 ④단오부채 그리기 ⑤단오빔 체험 ⑥관노탈 그리기, 관노탈목걸이 만들기 ⑦단오캐릭터 탁본하기 ⑧단오차(端午茶) 체험 ⑨단오등 만들기 ⑩단오컬러링 체험 ⑪신주교환 ⑫강릉단오제 ⑬패션타투 ⑭단오캐릭터 ⑮나무소품컬러링
10	시민참여행사	5	①신주미봉정행사 ②신주빚기 체험행사 ③단오소원등 행사 ④주민자치센터 ⑤스마일한마당
11	신통대길 길놀이	1	①신통대길 길놀이
12	민속놀이	5	①씨름대회 ②그네대회 ③투호대회 ④줄다리기대회 ⑤옷놀이대회
13	경축행사	7	①대한민국 전통주 ②선발대회 ③단오깃발사진전 ④학생미술실기대회 ⑤제일고·중앙고 축구경기전 ⑥강릉단오제 체험기·독후감 대회 ⑦단오사진촬영회
14	부대행사	8	①다문화체험촌 ②한정실버가요제 ③팸투어 ④불꽃놀이 ⑤경품추첨행사 ⑥오륜주머니던지기 ⑦외국인단오체험 ⑧강릉단오제캐릭터체험관

(2) 세부 행사 구성



<표 2-3> 2018 강릉단오제 지정문화행사

	행사명	행사 개요
행사	신주빚기	• 2018. 5. 19 칠사당
	대관령산신제	• 2018. 5. 29 대관령산신당
	국사성황제	• 2018. 5. 29 대관령국사성황사
	구산서낭제	• 2018. 5. 29 구산서낭당
	학산서낭제	• 2018. 5. 29 학산서낭당
	봉안제	• 2018. 5. 29 홍제동 여성황사
	영신제	• 2018. 6. 16 홍제동 여성황사
	영신행차	• 2018. 6. 16 홍제동 여성황사 ~ 단오제단
	조진제	• 2018. 6. 17 ~ 6. 21 단오제단
	단오굿	• 2018. 6. 17 ~ 6. 21 단오제단
	관노가면극	• 2018. 6. 14 ~ 6. 21 아리마당
	송신제	• 2018. 6. 21 단오제단
	소제	• 2018. 6. 21 단오섬

■ 기획공연

<표 2-4> 2018 강릉단오제 기획공연

사업명	행사 개요
기획공연	<p>① 가족뮤지컬 다노다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6. 18 <11:00> / 6. 19 <11:00> • 공연횟수 : 총2회 • 장소 :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공연동> • 주요내용 : 천년의 단오가 아이들의 희망으로 태어나, 강릉단오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의 관노가면극에 현대적 재미 요소를 가미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중적인 문화 콘텐츠로 재탄생시킨 가족 뮤지컬
	<p>② 년버벌 발레, 춤추는 호랑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6. 20 <19:00> • 장소 : 수리마당 • 주요내용 : 발레기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용 장르에 연극, 음악,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년버벌 발레 춤추는 호랑이. 2018 강릉문화올림픽 기간중에 첫선을 보인 작품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리마인드 하는 기획공연 • 줄거리 : 춤대회 연습을 하던 백호는 우연히 만난 소녀와 사랑에 빠지게된다. 인간과 호랑이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기를 표현한 작품

■ 창작공연

<표 2-5> 2018 강릉단오제 인류무형문화유산 창작공연

구분	행사 개요
창작공연	① 춤, 단오 그리고 신명 -“굿 워드 어스” • 연출 : 황루시 • 일시 : 6. 14 <19:00> • 장소 :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공연동> • 공연소개 : 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몸짓 언어이다. 무당춤은 우리 문화의 원형을 그대로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오랜 세월 민중들과 신명을 함께 해온 가장 대중적인 예술이기도 하다. “춤, 단오 그리고 신명 - 굿 워드 어스”는 춤으로 풀어내는 강릉단오굿의 무대화 공연으로 2018 강릉단오제를 축하하면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이 만나는 축제 마당을 열고자 함
	② 강릉아리랑 소리극 - 울어머이 왕산택 • 연출 : 강동학 • 일시 : 6. 19 <19:00> • 장소 : 수리마당 • 공연소개 : 강릉아리랑은 강릉에서 세상을 살아낸 사람들이 불러 온 소리로 세상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는 아리랑으로 마음을 달래고,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때도 아리랑으로 기분을 드러냈다. 가장 지역적이며, 대중적인 친화력을 지니고 있는 강릉아리랑을 통해 지역 대중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함.
	③ 아리랑, 대중민요에서 대중가요로 이어지다 • 일시 : 6. 16 <14:00> • 장소 : 단오제전수교육관 <공연동> • 공연소개 : 아리랑은 오래된 노래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되고 전이 되었다 그 문화적인 힘의 원천이 된 아리랑을 문화길잡이의 설명을 통해 문화적 힘을 지속시키며 성장해 온 아리랑의 행로를 쫓아 노래를 향수하고 나아가 지금 이시대의 아리랑을 객석과 함께 나누고자 함

■ 공연행사

<표 2-6> 2018 강릉단오제 공연행사

	구성내용
한마당	① 인류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4팀 4회) • 줄타기 • 처용무 • 강강술래 • 판소리
	② 무형문화재 초청공연(2팀 2회) • 안동저전동농요 • 평창황병산사냥민속
	③ 지역무형문화재 공연 (26팀 37회) • 관노가면극 보존회 공연 (1팀 5회) • 관노가면극 전수단체 공연 (11팀 1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형극 공연 (1팀 3회) 무격부 공연<에시자, 오시자> 공연 (1팀 2회) 강릉농악 공연 (8팀 8회) 강릉학산오독떼기 공연 (1팀 4회) 구정초 학산오독떼기 공연 (1팀 1회) 사천하평답교놀이 공연 (1팀 2회) 금산용물달기 공연 (1팀 1회)
	④ 전통혼례
무대공연 예술제	① 무대공연예술작품 선정작(17개팀)
	② 국내예술단 초청공연 (4팀 각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탐라문화제 정선아리랑제 전주세계소리축제 부평풍물대축제
	③ 골드페스티벌
경연대회 페스티벌	① 제37회 KBS농악경연대회
	② 제24회 전국사물놀이(무속악)경연대회
	③ 제25회 강릉사투리경연대회
	④ 제51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⑤ 제6회 전국민요경창대회 <술향아리랑제>
	⑥ 제2회 전국한국무용대회
청소년어울림 한마당	① 제22회 청소년가요제
	② 2018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③ 청소년 단오마당 D.Y.F
	④ 블링블링 강릉단오
국외초청공연	① 국외초청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나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몽골 튜브도 중국 사천성



<표 2-7> 2018 강릉단오제 단오체험촌 프로그램

	구성내용
수리취떡 맛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단체 : 배다리회 주요내용 : 강릉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헌미로 만든 수리취떡을 무료로 맛보는 체험
단오신주 맛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단체 : 오죽헌 시립 박물관 주요내용 : 강릉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헌미로 만든 신주를 무료로 맛보는 체험
창포머리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단체 : 강릉적십자 오죽봉사회 주요내용 : 머리에 윤기를 주고, 액을 막아주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체험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단체 : 단오부채연구회 • 주요내용 : 한여름 무더위와 액을 막아주는 나만의 부채를 만들어보는 체험
단오빔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단체 : 햇살봉사회 • 주요내용 : 다양한 한복을 입고 단오장 구경하기
관노탈 그리기, 관노탈목걸이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단체 : 적십자 강릉지구협의회 • 주요내용 : 관노가면극 탈을 활용한 탈그리기, 탈목걸이 만들기 체험
단오캐릭터 탁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단체 : 관동대학교 금석문연구회 • 주요내용 : 강릉단오제 캐릭터를 활용한 탁본체험
단오차()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단체 : 한송정다도회 • 주요내용 : 단오차를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다도를 배워보는 체험
단오등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단체 : 강릉문화의 집 • 주요내용 :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한 단오등 만들기 체험
단오컬러링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단체 : 고임돌 봉사회 • 주요내용 : 강릉단오제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컬러링 체험
신주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단체 : 경포회 • 주요내용 : 신주미를 봉정해 주신 분들께 신주를 1병씩 교환
강릉단오제 패션타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단체 : 월드아트 • 주요내용 : 단오캐릭터를 활용한 타투체험
단오캐릭터 나무소품컬러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단체 : 자작나무 • 주요내용 : 단오캐릭터를 활용한 목공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



<표 2-8> 2018 강릉단오제 시민참여행사

	구성내용
신주미봉정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 2018. 4. 23 ~ 5. 21 - 칠사당 : 2018. 5. 17 ~ 5. 19 • 장 소 : 21개 읍면동 사무소 및 칠사당 • 대 상 : 강릉시민 • 주요내용 : 시민들이 십시일반 헌미를 건음.
신주빚기 체험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18. 5. 19 <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 강릉대도호부 관아 • 대 상 : 체험을 희망하는 시민 • 모집인원 : 50명 • 주요내용 : 시민들이 직접 신주빚기 행사를 재현하는 체험
단오소원등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18. 6. 16 <20:00> • 주요내용 : 신목을 따라 약 2.2km의 거리를 단오등을 들고 거리 퍼레이드를 펼치고, 단오등과 교환한 경품권을 6. 21일 저녁 7시부터 경품추첨행사에 참여
주민자치센터 스마일한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18. 6. 14 <18:00 ~ 22:00> • 장 소 : 수리마당 • 주요내용 : 강릉시 19개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수강생들의 솜씨 겨루기

■ 길놀이

<표 2-9> 2018 강릉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

	구성내용
신통대길 길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2018. 6. 16 <20:00> • 참가팀 : 21개 읍면동 • 장 소 : 강릉의료원 - 옥천오거리 - 성내동 광장 • 주 제 :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

■ 민속놀이

<표 2-10> 2018 강릉단오제 민속놀이 프로그램

사업명	구성내용
씨름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강릉청년회의소 • 기 간 : 2018. 6. 14 ~ 6. 21 • 주요내용 : 단오의 대표적 민속놀이인 씨름. 마을대항 단체전, 개인전, 씨름 체험등을 진행
그네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재강로타리클럽 그네대회 상설 위원회 • 기 간 : 2018. 6. 14 ~ 6. 21 • 주요내용 : 단오의 대표적 민속놀이인 그네. 마을대항전, 도대항전, 개인전, 그네 체험등을 진행.
투호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강릉문화원 임영문화재보호회 • 기 간 : 2018. 6. 17 ~ 6. 21 • 주요내용 : 마을대항전 및 체험으로 구성. 참가자는 모두 한복을 입어야 하나 체험자는 예외.
줄다리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라이온스클럽 • 기 간 : 2018. 6. 18 • 주요내용 : 21개 읍면동 마을대항 단체전
웃놀이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 • 기 간 : 2018. 6. 19 • 주요내용 : 21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총 26개팀의 웃놀이 대회

■ 행사

<표 2-11> 2018 강릉단오제 경축 행사

사업명	구성내용
대한민국 전통주 선발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강원도민일보사 • 기 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접수 : 2018. 3. 5 ~ 3. 20 - 출품 : 2018. 5. 17 ~ 5. 18 • 시상장소 : 2018. 6. 18 14시 <단오제전수교육관> • 주요내용 : 전통 가양주 선발 대회 및 시상
단오깃발사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임영민속연구회 • 기 간 : 2018. 6. 14 ~ 6. 21 • 장 소 : 남대천 창포교 • 주요내용 : 강릉단오제의 신주빚기부터 송신제까지의 모든 과정을 깃발로 표현하는 사진전
학생 미술실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한국미술협회 강릉지부 • 일 시 : 2018. 6. 16 <10:00> • 장 소 : 단오공원 • 주요내용 : 강릉단오제의 다양한 문화를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미술로 표현.
제일고·중앙고 축구정기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강릉제일고등학교총동창회 • 기 간 : 2018. 6. 17 <12:00 ~ 20:00> • 장 소 : 종합운동장
강릉단오제 체험기·독후감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강릉문인협회 • 기 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기간 : 2018. 6. 1 ~ 6. 21 - 시상식 : 2018. 7. 4 • 주요내용 : 강릉단오제 관련 서적 독후감 쓰기 및 단오제 체험 후기 공모
단오사진촬영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사진작가협회 • 기 간 : 2018. 6. 16 <13:00 ~ 15:00> • 장 소 : 단오섬

■ 부대행사

<표 2-12> 2018 강릉단오제 부대행사

	구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기 간 : 2018. 6. 14 ~ 6. 21 • 장 소 : 남대천 단오장
한청실버가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사)한국청년지도자연협회 강릉시지회 • 기 간 : 2018. 6. 15 <15:00> • 장 소 : 수리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사)강릉단오제위원회 • 기 간 : 2018. 6. 16 ~ 21 • 장 소 : 남대천 단오장
불꽃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 2018. 6. 14 <22:00> 단오섬 • 2회 : 2018. 6. 16 <22:30> 월화교 • 3회 : 2018. 6. 21 <21:00> 단오섬
경품추첨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사)강릉단오제위원회 • 기 간 : 2018. 6. 21 <19:00> • 장 소 : 수리마당
오류주머니 던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강릉여성포럼 • 기 간 : 2018. 6. 14 ~ 6. 16 • 장 소 : 남대천 단오장(투호장)
외국인단오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사)강릉단오제위원회 • 기 간 : 2018. 6. 14 ~ 6. 21 • 장 소 : 남대천 단오장 및 강릉시 일원
강릉단오제 캐릭터체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단체 : 사)강릉단오제위원회 • 기 간 : 2018. 6. 14 ~ 6. 21 • 장 소 : 남대천 단오장 캐릭터 체험관

2) 행사 일정표

2018 강릉단오제

6.14부터 6.21

일정	단오제단	수리마당	아리마당	강릉단오제 전승교육관	기타	
행사일정	14일(목)	11:00 강릉브라더스 윈드오케스트라 13:00 우리가래예술원-새상을 여는 국악하모니 15:00 한국발무극연구소 음악극춤-흥겨운 오돌출의 향연 18:00 2018 강릉시주민자치 소마일만마당	12:00 영동초등학교 관노가면극 14:00 흥채동농악대 15:30 학산오독패기 17:00 옥창 관노가면극 18:30 교동농악대 20:00 강릉문화센터 관노가면극	19:00 굿외드이스	22:00 불꽃놀이 (단오섬)	
	15일(금)	13:00 World Passion Gala Show-게나다, 몽골, 인도네시아 단오맞이 제1회 한창실버가요제 동해국악합주-연희아가씨들의 사랑 21:00 SB블러드스-단오를 흔들다	12:00 달맞이농악대 14:00 황명산사상인숙 16:00 전주제해소리춤제-전주기립놀이 18:00 탈라민화제-외도동민속보존회 19:30 가톨릭관동대학교 관노가면극	10:00 관노가면 인형극 11:30 관노가면 인형극 14:00 2018 강릉단오제 어르신 한마당 Gold Festival 18:00 플러툼모브-단오에 불꽃다		
	16일(토)	21:00 문고-청취고 축원고 11:00 강릉문화원 관의 오케스트라 13:00 한소리 청소년 국악봉사단 단오 15:00 World Passion Gala Show-게나다, 몽골, 인도네시아 18:00 강릉시합체술단	10:30 노원초등학교 관노가면극 14:00 강릉농악보존회 16:00 유수영 강강술래단 17:30 해솔 관노가면극	10:00 관노가면 인형극 14:00 아리랑, 대중민요에서 대중가요로 이어지다 17:00 송향두동실예술포럼-가야금명창, 민요명창, 한국무용	22:30 불꽃놀이 (월화교)	
	17일(일)	10:00 조전제 11:00 부정고 11:30 휘파람춤 12:30 오상고 13:30 새춘고 16:00 중잡미고 18:30 축원고	11:30 강릉예총 청소년 예술단 14:00 DMZ 봉사단 전통공연 16:00 단오맞이 제2회 청소년가요제 20:00 단오맞이 2018 청소년댄스페스티벌	11:00 학산오독패기 13:00 상계사 관노가면극 15:00 강릉동농악대 17:00 종달기 19:30 보존회 관노가면극	10:00 제24회 강릉단오제 사물놀이 강연대회	18:00 재일고-중앙고 축구 경기전 (강릉종합운동장)
	18일(월) 단오날	10:00 조전제 11:00 군중참수고 12:00 선주고 14:00 축원고 15:00 새춘고 18:00 중잡미고 19:00 지판고 19:30 축원고	11:00 강릉바인유용단-수랏님, 우리춤 우리가래 13:00 World Passion Gala Show-게나다, 몽골, 인도네시아 제이머커사이트-월드악악인성품 16:00 단오맞이 제2회 청소년댄스페스티벌 21:00 2018라시아월드컵: 대한민국 VS 스웨덴	10:00 제37회 KBS사장기 농악경연대회 17:30 보존회 관노가면극 20:00 간금마을물놀이	11:00 다노다노 뮤지컬 13:00 드림메트로-3인 3색 마술이마기 15:00 차돌무브초화-오방차돌무 17:00 방수이 판소리-판소리 독창 18:00 노가니강로당-타림민요 의재판 (아루다림)	
	19일(화)	10:00 조전제 11:00 지신고 12:00 손바고 14:00 선산고 15:00 친왕고 18:00 축원고	11:00 아트필 윈드오케스트라 13:00 거꾸로프로젝트-단오맞이 국악콘서트 16:00 정선아리랑제 정선고(예)아리랑예술단 18:00 강릉아리랑 소리극-울어라미 할산대 21:00 강릉단오제보존회-예사지 오사지	10:00 구점초등학교 오독패기 11:30 동송초등학교 관노가면극 13:30 안동전통놀이 15:00 경포동농악대 17:00 부평문화대축제-민족농악 20:00 보존회 관노가면극	11:00 다노다노 뮤지컬 14:00 중국 사천성 16:30 전통문화실예술포럼 19:30 World Passion Gala Show-게나다, 몽골, 인도네시아	
	20일(수)	10:00 조전제 11:00 재민고 12:00 칠성고 13:00 손산고 14:00 새춘고 16:30 축원고	11:00 올림피아-7080통기타 13:00 전통예민단 관-단오의 뿔, 마음은 울리다 15:00 사물놀이 느닷-사물놀이 오리진 17:00 강릉예총-한소리연희예술단, 우동협회 plus 그리고... 19:00 댄스아리랑 소리극-(단)비밀 발레를 추는 호랑이 21:00 강릉단오제보존회-예사지 오사지	10:00 단오전통혼인에서 12:30 하술과 관노가면극 14:30 사천성발레 16:30 보존회 관노가면극 20:00 학산오독패기	10:00 제5회 전국민요대중경연대회	
	21일(목)	10:00 조전제 11:00 공양고 12:30 축원고 16:30 관노-옛노래-동노래고 18:00 환우고	10:30 당기영 사랑방-우리가래 춤출시구 13:00 평양민속예술단 16:00 World Passion Gala Show-게나다, 몽골, 인도네시아 18:00 강릉그리노아리랑 19:00 강릉추정행사(사전공연-무너리)	11:00 주문전문교육센터 관노가면극 12:30 상원동농악대 14:00 강릉문화재단 관노가면극 15:30 학산오독패기 17:30 보존회 관노가면극	10:00 단오맞이 제6회 전국민요대중경연대회 (송향아리랑제)	21:00 불꽃놀이 (단오섬)

<그림 2-2> 2018 강릉단오제 행사일정표

3 2018 강릉단오제 공간 및 시설배치

1) 행사장 공간 현황

- 2018 본 행사장은 단오문화관을 중심으로 남대천 주변 지역
- 행사장 현황 : 남대천 단오장 46,615m²
- 주 요 시 설 : 단오제단(굿당), 수리마당(무대), 아리마당(마당놀이), 단오문화관(실내), 난장, 씨름장, 그네 터, 단오(창포)섬, 단오공원



<그림 2-3> 2018 강릉단오제 행사장 조성도

■ 구역별 행사 내용

<표 2-13> 2018 강릉단오제 구역별 행사내용

행사장 내용	
A : 메인 행사장	•제단, 공연장, 단오체험촌, 씨름장, 그네 터, 종합안내소, •향토먹거리 촌, 창포 섬터등, 메인 시설물 설치
B구역 : 단오문화관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신주교환소 등 •단오공원을 활용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C구역	•서커스 및 첨단과학체험관, 먹거리 촌 등
D구역	•풍물시장, 난장
E구역	•홍보부스 및 이불전
F구역	•줄다리기, 윷놀이, 불꽃놀이 행사 등

■ 시설별 설치물 상세내역

• 공연 시설

<표 2-14> 2018 강릉단오제 공연 설치물 내역

	시설 구조 및 규모	관람석 규모	비 고
	TFS 타입텐트 (폭 20m X 길이25m)	조립식 관람석 63석	기존 평상
수리마당	TFS 타입텐트 (폭 20m X 길이40m)	1,000석	메인무대
아리마당	TFS 타입텐트 (폭 25m X 길이30m)	계단식관람석 450석	본부석용 간이무대
단오문화관 공연동	실내공연장	453석	기존 무대 사용

• 난장

<표 2-15> 2018 강릉단오제 난장 설치물 내역

노점	○ 300동
식당	○ 난장 식당 : 19동 ○ 행사장 내 향토음식점 : 4동
서커스	○ 서커스 전용텐트 35m×25m :1개소
놀이기구	○ 2개소
품바	○ 2개소
과학산업진흥관	○ ALU-HALL 텐트 20m×20m : 1동
이불전	○ 10점
편의시설	○ 화장실(6300×2500×3100) : 13동
키즈존	○ 키자니아(어린이 직업체험)

• 남산교(신통대길 길놀이)

<표 2-16> 2018 강릉단오제 남산교 설치물 내역

음향	○ 스택형 10kw ○ 기타 주변기기 일체
조명	○ 조명스탠드 14개 (악세사리 트러스 포함) ○ 포인트별 무빙위시 2대 ○ 대과 6대
무대	○ 레트카펫 설치(70m × 6m) ○ 간이무대(사회자용) 설치
편의시설	○ 관람석 1,000석

- , 그네터

<표 2-17> 2018 강릉단오제 씨름장, 그네터 설치물 내역

		시설 내용	비고
	텐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텐트 - 운영본부 : 5m×5m -3동 - 관 램 석 : 5m×5m -3동 	
	음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방송용 음향시스템 1식 	
	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늘막 - 트러스 구조물(15m×15m) - 4각 6베이스 - 천장 3각 루프 설치 	
그네터	텐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텐트 - 운영본부 : 5m×5m -3동 - 음향조정실 : 3m×3m -1동 	
	음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방송용 음향시스템 1식 	
	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늘막 - 외줄 트러스 구조물(20m) - 차광막(20m×5m) 	

<표 2-18> 2018 강릉단오제 기타시설물 내역

분	위 치	시설 내용	설치 계획
및 주차관리 시설	성내동 광장 (진평양행 앞)	• 교통안내소	- 몽골텐트 1동 (3×3m) - 바리케이트 5개, 입간판 1 - 의자 4
	남산교 남단	• 교통안내소	- 파라솔 2세트 - 의자 4, - 바리케이트 5개
	단오문 앞	• 교통안내소	- 파라솔세트 1 - 바리케이트 5개 입간판 2, 의자 4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주차장	• 교통안내소 및 주차안내	- 몽골텐트 1동 (3×3m) - 의자 2
	강릉의료원 앞 (삼거리 식당)	• 교통안내소 및 주차안내	- 몽골텐트 1동 (5×5m) - 입간판 2, 의자 4
	월화교 밑	• 교통안내소	- 몽골텐트 1동 (3×3m) - 입간판 1, 의자 2
	홍제동 둔치	• 주차관리	- 몽골텐트 1동 (5×5m) - 입간판 1, 의자 2
경비 상황실	남산교 북단	• 교통안내소	- 몽골텐트 1동 (5×5m) - 입간판 1, 바리케이트 5개 - 테이블 1개, 의자 4
편의시설	만남의 광장	• 화장실 • 컴퓨터 • 매점 • 유아휴게소 • 물품보관함	- 이동식화장실 2동(장애인용 포함) (6.3m×2.5m×3.1m) - 유아침대, 의자 2개, 에어컨 1대 - 강화플라스틱 보관함 120칸
	아동봉사센터	• 유모차대여소	- 유모차 20대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자관리	- 휠체어 5대
	장애인봉사센터	• 휠체어대여소	- 휠체어 10대
	제단 옆	• 화장실	- 이동식화장실 2동 (6.3m×2.5m×3.1m)
	수리마당 (남산교 밑)	• 화장실	- 이동식화장실 2동 (6.3m×2.5m×3.1m)

분	위 치	시설 내용	설치 계획
	잠수교 진입로	• 화장실	- 이동식화장실 1동 (6.3m×2.5m×3.1m)
	창포교 북단 (대형버스 주차장)	• 화장실	- 이동식화장실 1동 (6.3m×2.5m×3.1m)
	강남동 상가 진입로	• 화장실	- 이동식화장실 2동 (6.3m×2.5m×3.1m)
	강남동 잠수교 옆	• 화장실	- 이동식화장실 2동 (6.3m×2.5m×3.1m)
	중앙동 상가 진입로	• 화장실	- 이동식화장실 1동 (6.3m×2.5m×3.1m)
	중앙동 수문 옆	• 화장실	- 이동식화장실 1동 (6.3m×2.5m×3.1m)
	씨름장 / 그네터	• 차양막	- 그늘막 시설 1식
	수리마당 앞	• 유아휴게실	- 이동식 컨테이너 1동
	굿당 뒤	• 유아휴게실	- 이동식 컨테이너 1동
환경 연출시설	내곡교 남단 ~ 남산교 남단	• 가로 화분	- 1식
	강릉의료원 앞 ~ 남산교	• 가로 화분	- 1식
	시내 일원	• 단오등	- 단오등 게시(1,000개)
	단오 공원	• 단오등	- 영신행차 단오등 행렬 (단오등 게시 : 2,500개)
	굿당	• 대형화분	- 10개
	단오터널	• 대형화분	- 13개

4 2018 강릉단오제 공간 및 시설배치

1) 홍보 기본방향

- 마케팅
 - 강릉단오제에서만 느끼고, 공유하는 단오감성 마케팅 활용
- 연중, 상시 홍보 도입
 - 강릉단오제 보도 50주년, 강릉단오제 홍보 협력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찾아가는 홍보 등〇르 통해 연중, 상시 홍보를 통해 홍보효과를 지속
- 홍보수단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홍보수단을 확대하고 홍보 타겟 및 목적에 맞게 각 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
-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홍보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효과를 창출하고 소통하는 축제로 도약하고자 함

2) 홍보 전략

(1) 타겟별 홍보 전략

■ 연령별

<표 2-19> 연령별 홍보 전략

분	홍보전략
10	- 교육청 협조, 학교 협조(교육적 가치 전달) - 참여 형 콘텐츠 소개 및 홍보(오락적 가치 전달)
20~30대	- 바이럴마케팅 집중 피력 - 문화 관광 상품으로서의 강릉단오제 홍보
40~50대	- 추억이 있는 강릉단오제 인지 -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임을 어필
60대	- 추억이 있는 강릉단오제 인지 -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

<표 2-20> 지역별 홍보 전략

분	홍보전략
	- 애향심 호소, 강원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인지 - 거리적, 심리적 가까움 홍보
전국권	- 강릉단오제 고유의 브랜드 구축을 통한 차별화 어필 - 접근성 및 시설 부분이 개선되었음을 홍보
국외	- 한국의 전통 축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가치 있는 축제임을 홍보

(2) 단계별 홍보전략

<표 2-21> 단계별 홍보전략

구분	기간	홍보 목적	중점 목표
기초 홍보	연중	강릉단오제 브랜드이미지 구축 국내외 유관기관 및 협력조직과의 협조 체계 구축	- 홍보 Focus 설정 - 홍보계획 정비 및 협력시스템 구축
기반 홍보	3월	강릉단오제 인지 및 단오 감성 전달 축제에 대한 관심 유도	- 홍보 채널 활용 극대화 -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국내·외 여행사)
집중 홍보	4월~5월	강릉단오제 브랜드 구축 및 홍보 축제에 대한 직접 참여 동기 유발	- 언론사 연계 및 활용 - 바이럴 마케팅 극대화
사후 홍보	6월~7월	대국민 감사와 행사 성과평가	- 행사 평가 및 영상제작 등

(3) TOOL별 홍보전략

■ 온라인 홍보

- 강릉단오제 홈페이지 수시 업데이트 (자료 추가 및 정보 수정 보완)
-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 활용
- 단오서포터즈, 1인미디어, 시정 홍보 기자단, 협력온라인카페 등을 홍보 풀로 활용
-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카드뉴스 제작으로 가독성이 높고 배포가 쉬운 정보 제공
- 협력, 관련 기관 웹사이트의 배너광고 또는 링크 구성으로 홍보 점점 확대

■ 오프라인 홍보, 찾아가는 홍보

- 강릉단오제 홍보 시설물의 디자인 통일성 확보 및 관리
- 홍보협력사를 활용하여 지속적, 단계적 오프라인 홍보 진행
- 찾아가는 홍보 (박람회, 축제, 휴게소홍보, 시외버스광고)를 통해 강릉단오제를 적극적 홍보

■ 매체 홍보

가. 신문매체 활용 홍보

- 강릉단오제의 다양한 이슈 발굴 및 상시 보도를 통해 강릉단오제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 유지
- 신문광고 : 중앙지, 지방신문(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등), 인터넷신문
- 보도자료 제공 : 기사 및 문화면 기획특집

나. 방송매체 활용 홍보

- 대 상 : KBS, MBC, G1, YBS, CBS, YTN, 아리랑TV 등
- 시청각매체
 - TV SPOT 및 라디오 광고 등 시청각을 통한 반복적 홍보
 - 보도자료 제공 : 출연 및 인터뷰, 특집방송 진행

<표 2-22> 방송매체 활용 홍보내역

분	내 용
TV	- CF , 인터뷰, 특집방송 및 생방송 등
라디오	- 인터뷰, 특집방송 및 생방송 등
신문	- 보도자료 : 기본보도자료, 테마별 보도자료, 일정보도자료 - 신문광고 게재
인터넷	- 카드뉴스
잡지	- 인터뷰, 특집기사 등 - 포스터 광고 게재
사보	- 특집기사, 소개기사 - 포스터 광고 게재

■ 기관 단체 간행물 홍보

- 시정 및 도정소식지 특집 및 광고
- 관내협력사 및 대기업 사보 및 회보 게재
- 각종 교육 교재 발간 및 각종 회의서류 활용 홍보

■ 광고물 제작 및 홍보시설물 설치

- 강릉단오제 분위기 조성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옥외 홍보시설물 설치

- , 고속도로 육교현판, 이용 광고
- 정부청사 무료 전광판 광고
- 행사장내 에드벌룬 설치, 배너설치 등

■ 인쇄물·영상홍보물 제작

가. 인쇄물제작 : 10개 16종

<표 2-23> 인쇄물 제작 내역

목	발행종류	수 량	비 고
	1종	500부	
사전 리플렛	2종	8,000부	한, 영
행사일정 리플렛	4종	50,000부	한,영,중,일
1일 일정 리플렛	1종	50,000부	
팸플렛	4종	10,000부	한,영,중,일
화보집	2종	8,000부	한, 영
대관령산신제 리플렛	1종	1,000부	
신주미 봉정 안내문	1종	10,000부	
영신행차 안내문	1종	5,000부	
신통대길 길놀이	1종	20,000부	
자원봉사자 매뉴얼	1종	400부	

나. 홍보영상물 제작

- CF : 30초 국문, 20초 국문, 20초 영문 3종으로 제작
- 2018 강릉단오제 기록영상 제작 (10분 내외)
- 강릉단오제 UCC 제작 (홍보팀 및 공모전을 통해 제작)

(4) 외국인 대상 홍보

■ 전략

- 홍보 타겟팅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과 현지 거주 외국인을 나누어 맞춤 홍보 진행
- 자사 뿐 아니라 외부 기관 및 단체를 통해 홍보 진행

■ 해외현지 홍보

- 해외자매도시 홍보물 발송
- 도 및 도내 각시군 해외자매도시 홍보물 발송
- ICCN회원국 자국(도시)내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공
- 재외공관, 관광공사 해외지사 홍보협조 문서 발송

■ 국내 외국인 홍보

- 외국인 국내 여행객 대상 홍보
- 국내 다문화가정 중심 집중홍보
- 외국인근로자센터, 원어민 강사 대상 집중홍보(DM발송 등)

■ 외국인 단오체험 진행

- 개인 및 단체 신청 가능한 외국인 단오체험 운영

■ 기타 홍보

-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 외국어 홍보물 발행(영,중,일)
- 유튜브를 통한 영상 홍보
- 외국어 해설사 배치
- 여행사 상품개발 등 연계 마케팅



Ⅲ. 2018 강릉단오제 평가 분석

1. 2018 강릉단오제 방문객 조사 분석
2. 2018 강릉단오제 방문객 추정 및 영향분석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

- 대상
 - 강릉단오제 방문객 : 지역 주민 및 내·외국인 관광객

- 조사 방법
 - 설문조사 : 비확률 표본추출법의 임의 표집방법과 확률 추출법 중 등·간격 표본추출법을 동시에 적용함
 -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기준이 되는 설문 대상자를 비확률 표본추출법을 동시에 적용함
 - 선정된 설문 대상자를 중심으로 등·간격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관람석 5번째 대상자, 5번째 마주치는 대상자로 다음 설문 대상자를 선정함
 - 모든 설문조사는 강릉단오제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요원들에 의해 실시됨

- 분석 방법
 - 빈도분석
 - 기술 통계분석
 - 다중응답분석
 - 다중회귀분석

(3) 조사 항목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관광 축제 평가항목을 기초로 강릉단오제 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 항목을 구성함
- 설문지 구성

<표 3-1> 2018 강릉단오제 설문지 구성

성	항 목
특성	방문횟수, 동반자 유형, 정보 습득 경로, 선호 프로그램, 구입물품, 이동수단, 참가 동기, 인지도, 지정문화재 관람 및 참여 유무 등
관광객 특성	숙박 장소, 교통수단, 소비지출(교통, 숙박, 식음료, 유흥, 쇼핑, 기타) 등
만족도	접근성, 홍보 및 안내, 행사 내용, 프로그램 내용, 먹거리, 편의시설, 재방문 의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결혼유무, 연령, 거주지, 월 평균 소득, 최종학력, 직업

2) 2018 강릉단오제 방문객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 총 방문 응답자 500명 중 여성 방문객 비율이 28.8% 높음
- 전체 방문객 중 남성이 35.6%, 여성이 64.4%로 여성 방문객 비중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



■ 응답자 결혼유무

- 총 방문 응답자 500명 중 기혼 응답자가 77.0%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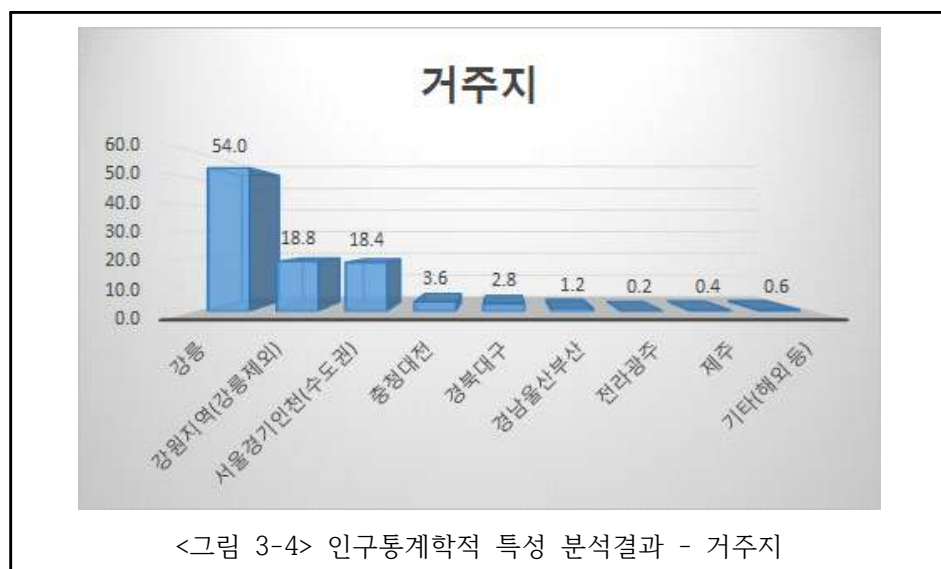
■ 연령

- 총 방문 응답자 500명 중 60-69세 응답자가 2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2018 강릉단오제에는 고른 연령대가 방문한 것으로 조사됨



■ 응답자 거주지

- 총 방문 응답자 500명 중 강릉지역 거주자가 5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강릉지역을 제외한 강원지역 거주자가 18.8%,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거주자가 18.4%의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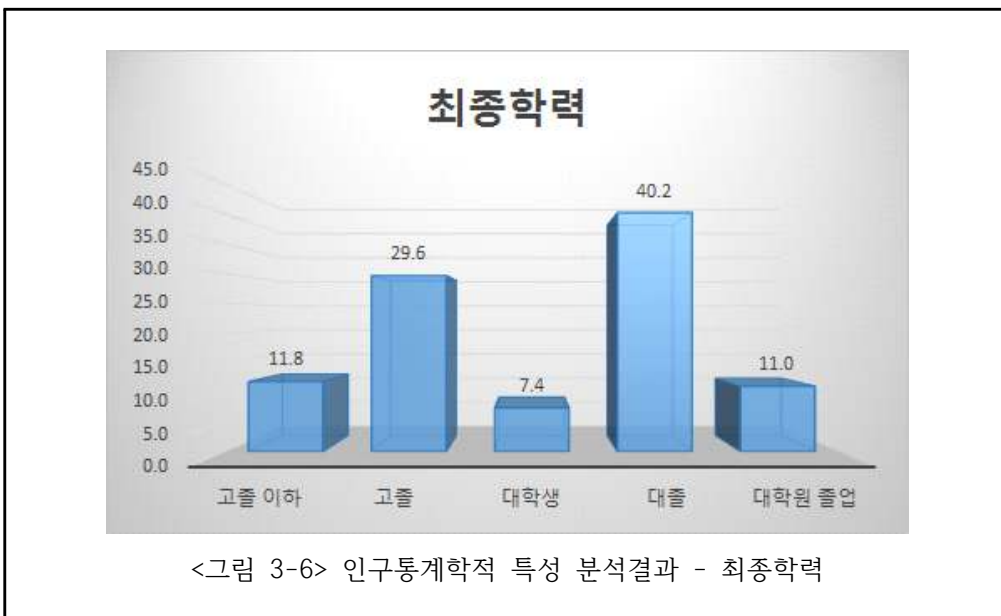
■ 월 소득

- 총 방문 응답자 500명 중 301-400만원 구간이 2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그 외 201-300만원 구간이 21.6%, 501만원 이상 구간이 17.6%의 순으로 조사됨



■ 응답자 최종학력

- 총 방문 응답자 500명 중 대졸자가 4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그 외 고졸 응답자가 29.6%, 고졸 이하 응답자가 11.8%의 순으로 조사됨



■ 직업

- 총 방문 응답자 500명 중 주부가 2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그 외 전문직 18.0%, 기타 15.2%, 회사원 15.0% 등 다양한 직업군이 2018 강릉단오제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됨



(2) 방문객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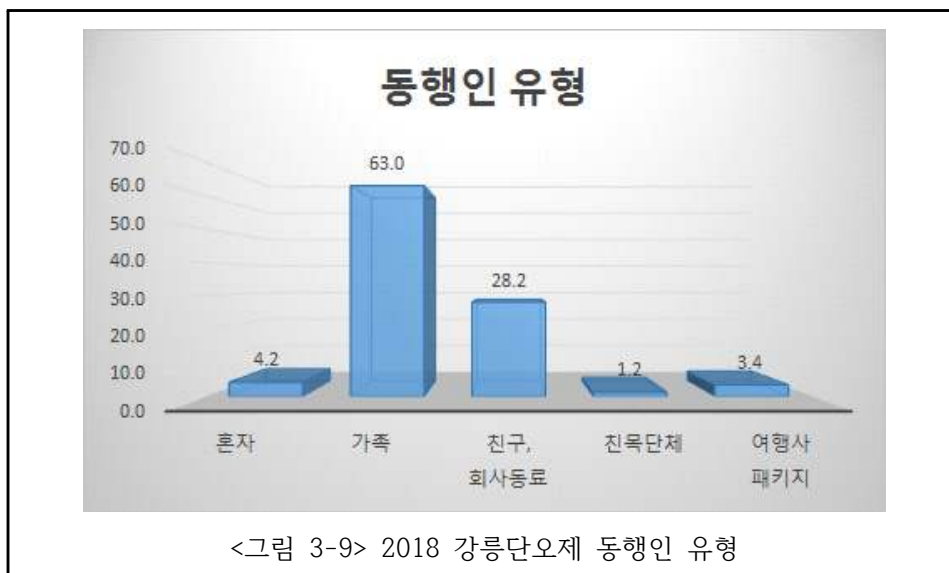
■ 횡수

- 2018 강릉단오제를 포함한 방문 횡수 조사 항목임
- 5회 이상 방문 응답이 59.0%로 가장 높음



■ 동행인

- 2018 강릉단오제 방문객 동반자 유형 조사 항목임
- 가족과 함께 방문한 응답자 비율이 63.0%로 가장 높음
- 2순위로는 친구나 회사동료와 함께 방문한 비율로서 28.2%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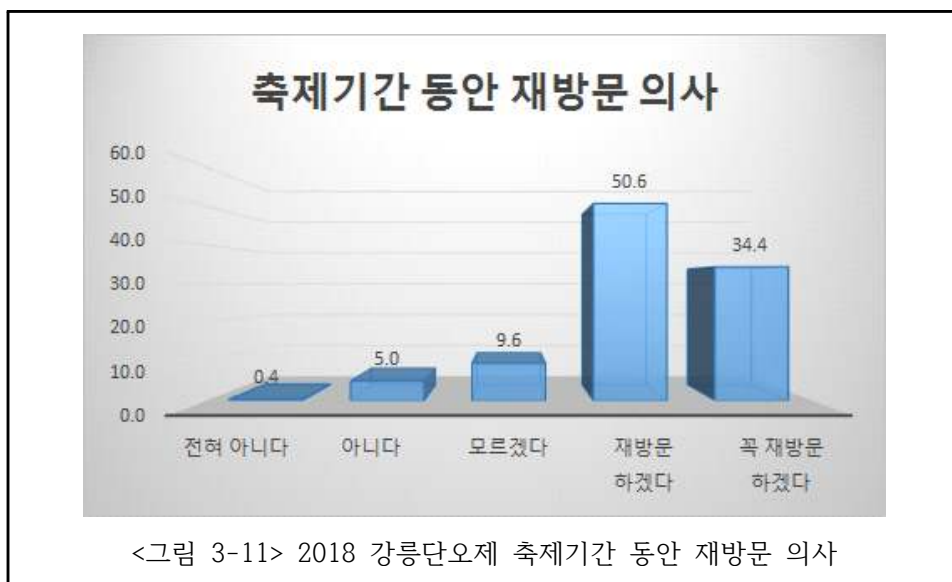
■ 경로

- 2018 강릉단오제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에 대한 조사 항목임
- 1순위 : 응답자 24.8%가 주위 사람에게 의해 정보를 습득했다고 조사됨
- 2순위 : 응답자 22.4%가 TV, 라디오에 의해 정보를 습득했다고 조사됨



■ 축제기간 동안 재방문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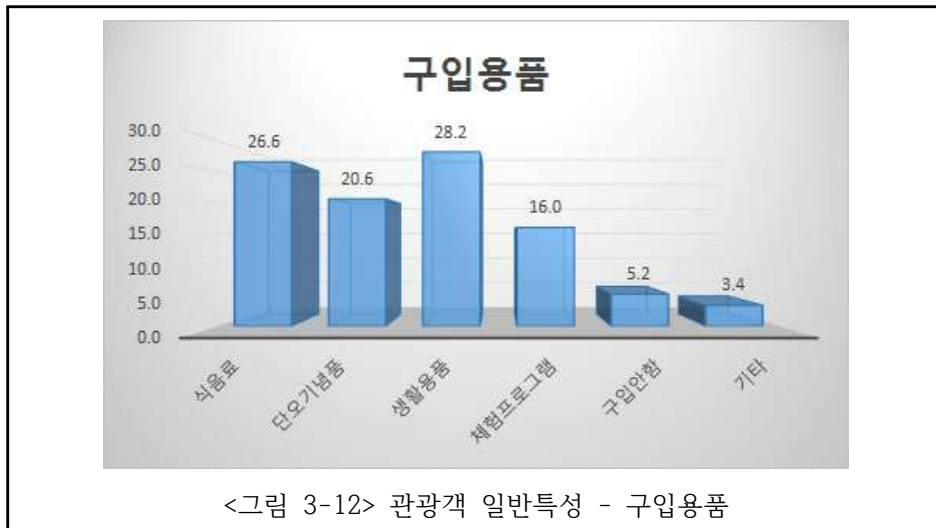
- 2018 강릉단오제 방문객 응답자 중 축제기간 동안 재방문 의사를 묻는 조사 항목임
- 설문 응답자 중 89.0%가 재방문 의사를 보임
- 재방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사를 반영한 응답자는 5.4%로 조사됨



(3) 관광객 일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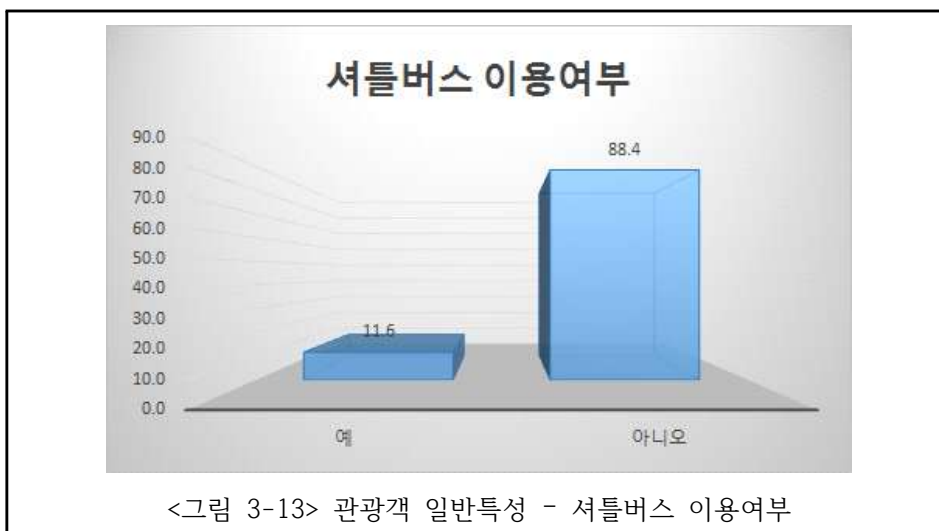
■

- 구입 품목들을 보면 생활용품이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식음료 (26.6%), 단오기념품(20.6%) 등의 순으로 조사됨
- 1순위 : 응답자 28.2%가 생활용품 구입
- 2순위 : 응답자 26.6%가 식음료 구입



■ 셔틀버스 이용여부

- 2018 강릉단오제 셔틀버스 이용 빈도는 11.6%이고, 이용하지 않는 빈도는 88.4%
- 셔틀버스 이용 빈도는 작년(6.4%)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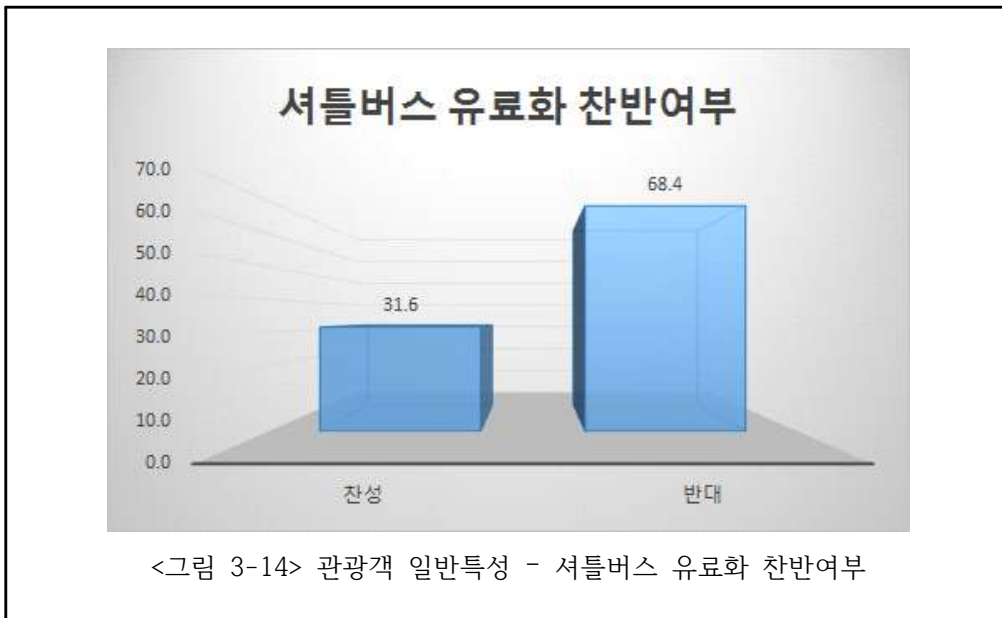


■ 개선사항

- 셔틀버스 이용 시 불편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음
 - 2018 강릉단오제 셔틀버스 노선 홍보 부족
 - 2018 강릉단오제 셔틀버스 차량운행 횟수 부족
- 셔틀버스 개선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음
 - 셔틀버스 운행 시간의 확대
 - 노선 내 터미널과 기차역 탑승구간 확대
 - 2018 강릉단오제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홍보 확대

■ 셔틀버스 유료화 찬반여부

- 2018 강릉단오제 셔틀버스 이용요금에 대한 유료화 찬반여부는 찬성이 31.6%, 반대가 68.4%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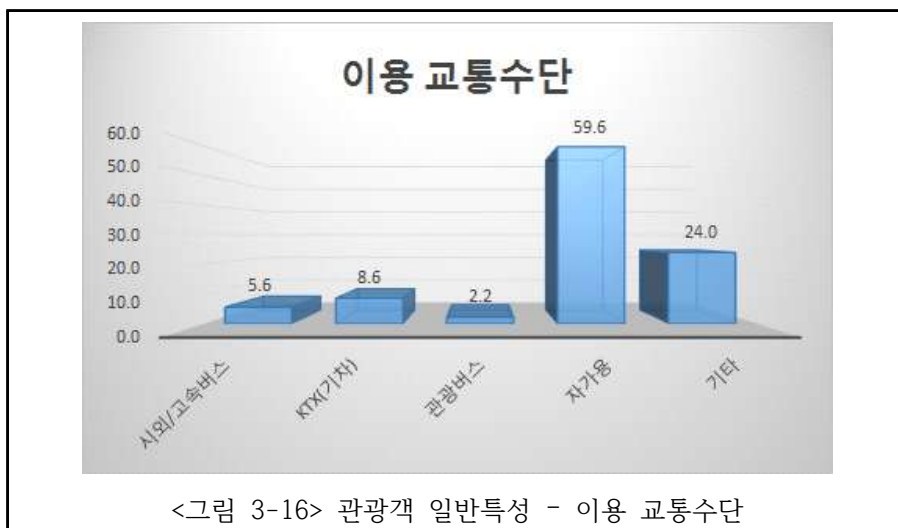
■ 숙박시설

- 2018 강릉단오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숙박 형태에 대한 조사 항목임
- 1순위 : 자택/귀가(51.6%)
- 2순위 : 친척집(11.4%)
- 3순위 : 숙박안함(8.0%)



■ 이용 교통수단

- 2018 강릉단오제를 방문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교통수단에 대한 조사 항목임
- 1순위 : 자가용(59.6%)
- 2순위 : 기타(24.0%) - 도보, 자전거, 시내버스, 택시 등
- 3순위 : KTX(8.6%)



■ 방문객 지출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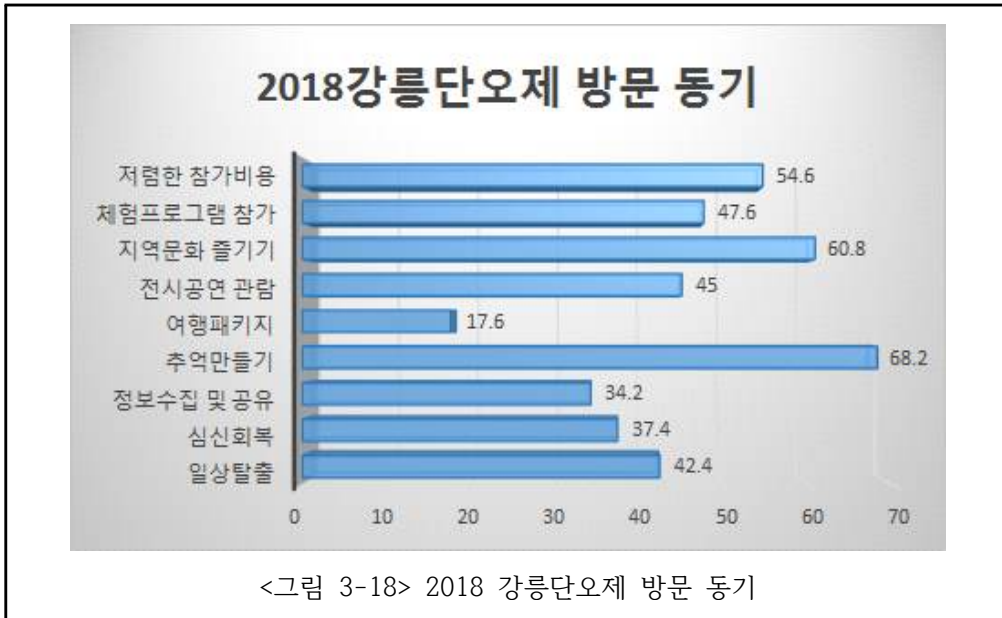
- 강릉단오제 방문객 예상 지출 총액 금액에 대한 조사 항목임
- 지출 비용은 내국인 방문객이 지출한 총 비용을 내국인 방문객 응답자 수로 나눈 비용임을 밝힘



<그림 3-17> 관광객 일반특성 - 방문객 지출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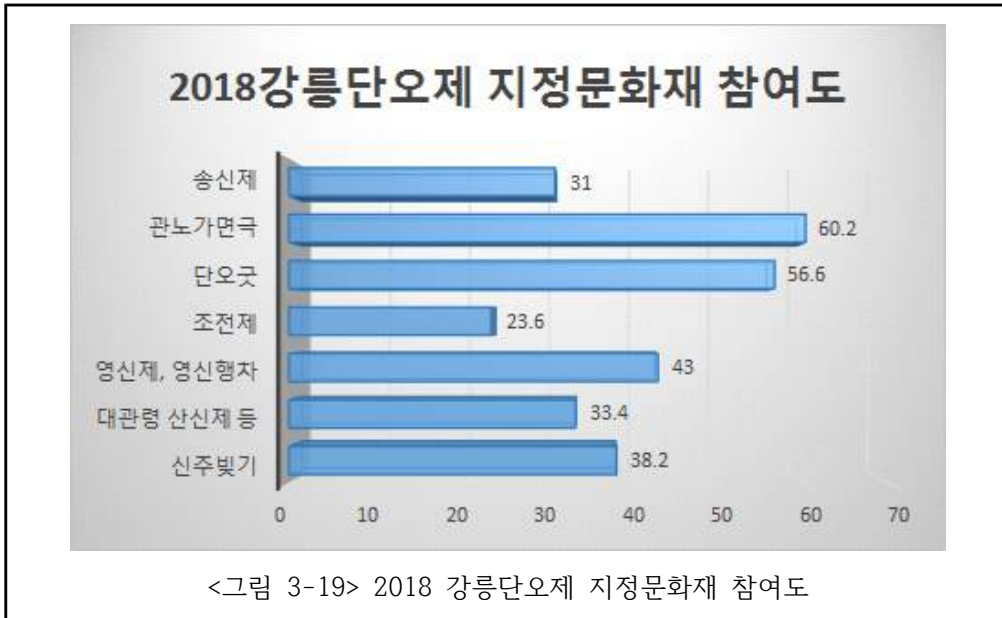
- 5장에서 내국인 방문객을 지역주민과 타 지역 방문객으로 분류하여 경제적 효과 승수를 상세히 밝히도록 할 것임
 - 1순위 지출 항목 : 숙박비 / 107,831원
 - 2순위 지출 항목 : 기타비 / 83,817원
 - 3순위 지출 항목 : 쇼핑비 / 67,492원
- 강릉단오제 축제 기간 동안 숙박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강릉단오제 기간 동안 단오제를 포함한 다양한 관광지를 숙박을 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이에 숙박과 관련된 인프라 확대와 단오제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이 필요함
- 지출비용을 살펴보면 숙박비(25.6%), 기타비(20.0%), 쇼핑비(16.0%), 식음료비(14.5%), 유흥비(12.1%), 교통비(11.8%)의 순으로 나타남

(4) 2018강릉단오제 방문 동기



- 2018 방문 동기를 조사하기 위한 항목
 - 1순위 항목 : 추억만들기 / 68.2%
 - 2순위 항목 : 지역문화 즐기기 / 60.8%
 - 3순위 항목 : 저렴한 참가비용 / 54.6%
- 강릉단오제 방문 동기 1순위와 2순위를 통해 강릉단오제가 추억을 만들고 지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관광문화 상품으로 방문객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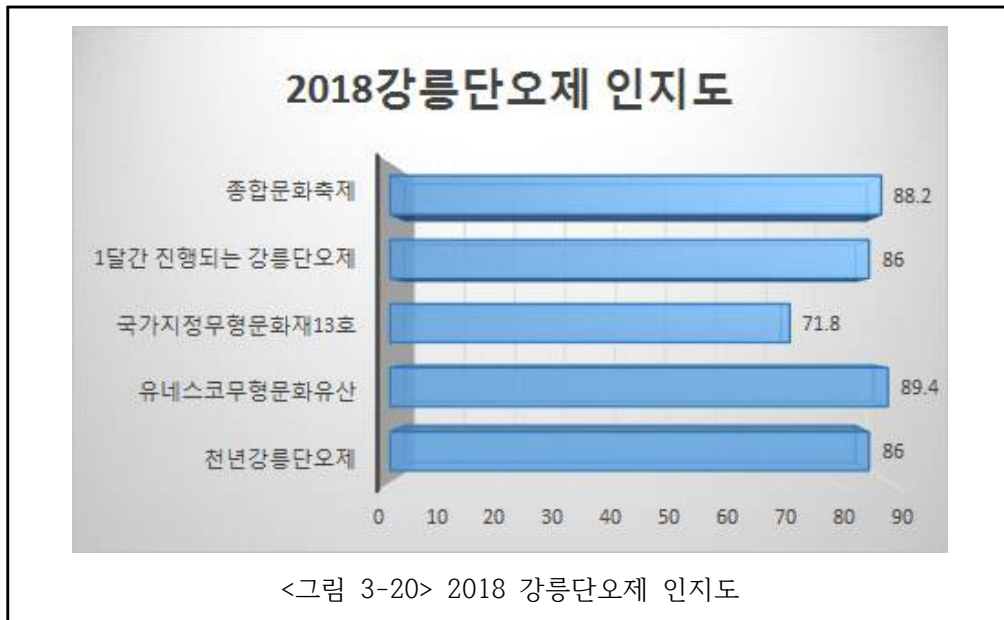
(5) 2018강릉단오제 지정문화재 참여도



- 2018 지정문화재 행사 프로그램 참여 여부 조사 항목
 - 참여 1순위 프로그램 : 관노가면극 / 60.2%
 - 참여 2순위 프로그램 : 단오굿 / 56.6%
 - 참여 3순위 프로그램 : 영신제, 영신행차 / 43.0%
 - 최저 참여 순위 프로그램 : 조전제 / 23.6%

- 2018강릉단오제 방문객 중 최고 참여도를 보인 프로그램은 관노가면극이며, 최저 참여도를 보인 프로그램은 조전제임
 - 2017강릉단오제 방문객 참여 지정문화재 1순위 : 관노가면극 / 42.4%
 - 2017강릉단오제 방문객 참여 지정문화재 7순위 : 조전제 / 11.6%
 - 2018강릉단오제 방문객 참여 지정문화재 순위 역시 2017년도 순위와 동일함
 - 지정문화행사 조전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조전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조전제의 유교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필요
 - 조전제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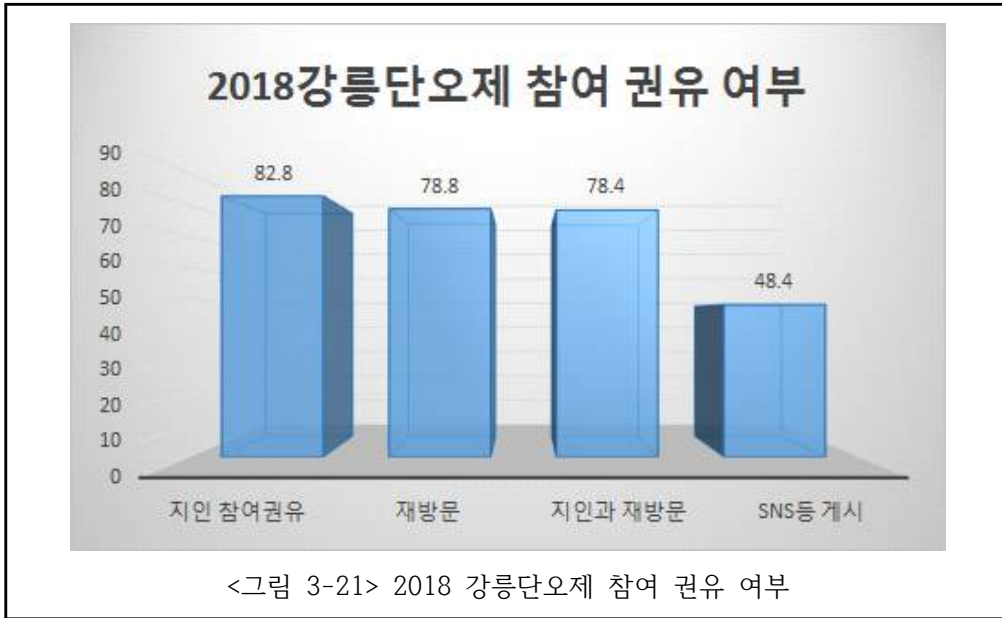
(6) 2018강릉단오제 인지도



- 2018 방문한 방문객들이 해당 축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항목
 - 2018강릉단오제에 대해 응답자의 70% 이상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음
 - 2018강릉단오제가 천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것은 85% 이상 인지하고 있음
 - 하지만 2018강릉단오제가 국가지정무형문화재 13호라는 사실은 다른 내용들에 비해 인지도가 낮음
 - 이에 이후에는 강릉단오제를 국가지정무형문화재로서의 역사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7) 2018강릉단오제 의견

- 2018강릉단오제 참여 권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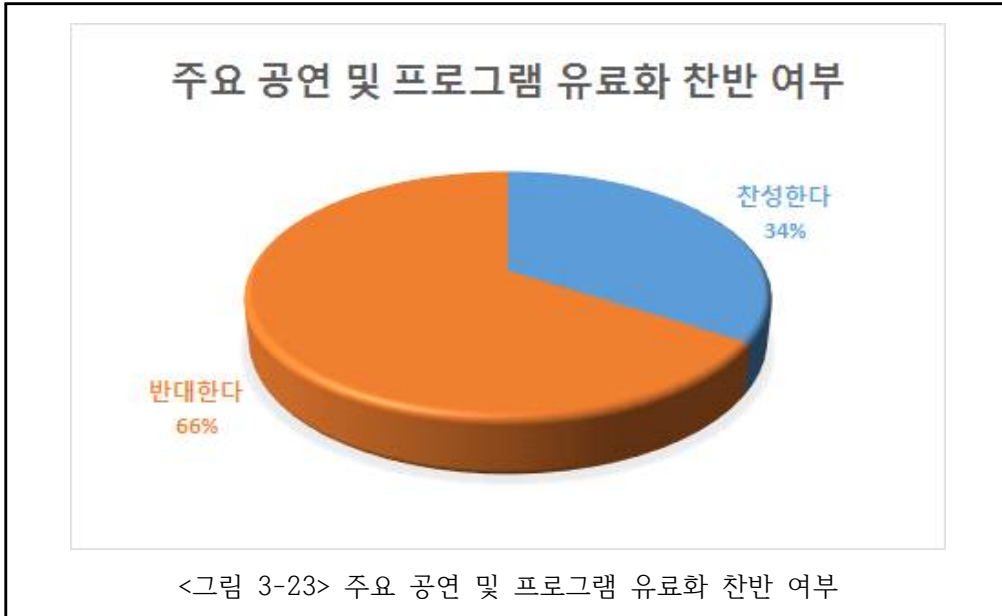
- 2018 강릉단오제 참여 권유 여부는 SNS 등 게시 항목을 제외한 항목이 78% 이상의 응답률을 보임
 - 지인의 참여 권유, 재방문, 지인과 함께 재방문의 항목은 높은 참여 권유를 보임
- 주변 관광지 방문 의사



- 2018강릉단오제 참가 후 주변 관광지 방문 의사 조사 항목
 - 2018강릉단오제 참가 후 주변 관광지 방문 의사를 조사한 결과 강릉항-안목커피거리를 방문 한다는 의견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외 강릉중앙시장(19.8%), 경포(16.2%), 바다부채길(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방문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1.2%로 나타남

■ 주요 공연 및 프로그램 유료화 찬반 여부



- 강릉단오제의 주요 공연이나 일부 특정 프로그램의 유료화 여부를 알아본 결과 반대가 65.8%, 찬성이 34.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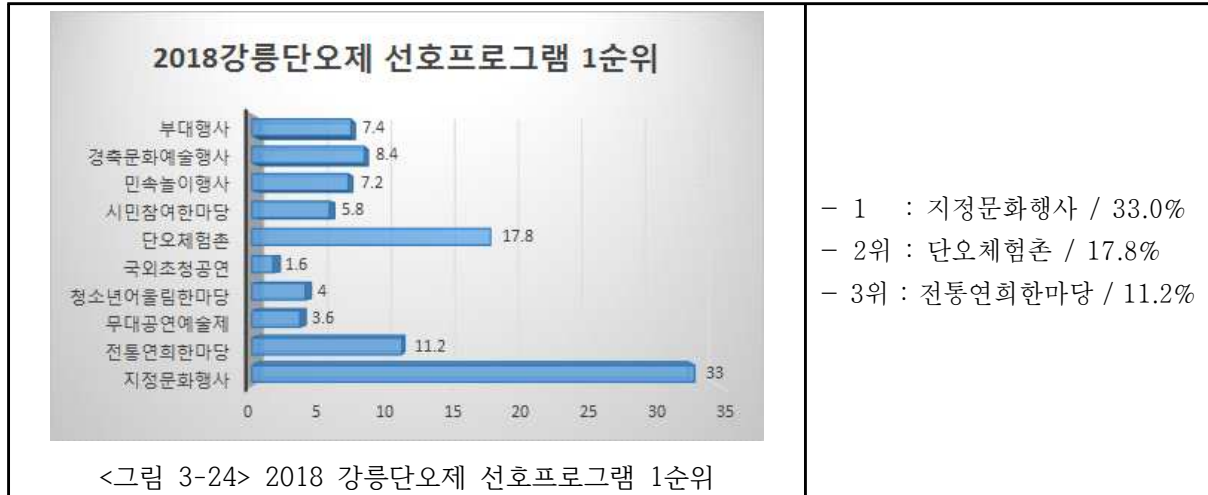
(8) 2018강릉단오제 선호 프로그램

<표 3-2> 2018 강릉단오제 선호 프로그램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65	33.0	53	10.6	57	11.4
전통연희한마당	56	11.2	68	13.6	28	5.6
무대공연예술제	18	3.6	43	8.6	38	7.6
청소년어울림한마당	20	4.0	30	6.0	22	4.4
국외초청공연	8	1.6	22	4.4	23	4.6
단오체험촌	59	17.8	86	17.2	89	17.8
시민참여한마당	29	5.8	32	6.4	33	6.6
민속놀이행사	36	7.2	76	15.2	71	14.2
경축 문화·예술행사	42	8.4	54	10.8	61	12.2
부대행사	37	7.4	36	7.2	78	15.6
합계	500	100.0	500	100.0	5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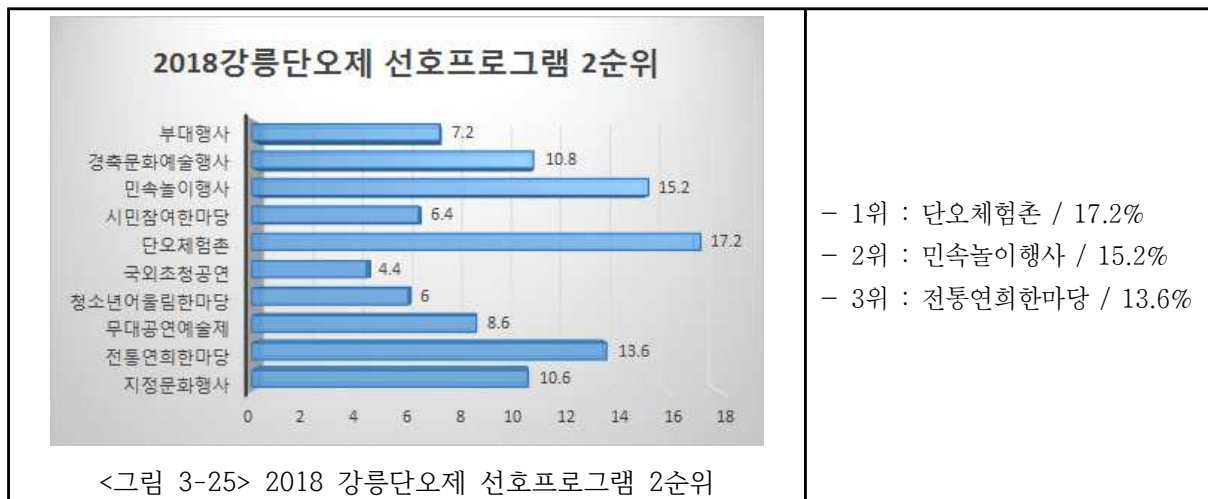
■ 1 선호 프로그램

- 2018강릉단오제 전체 프로그램 중 1순위 중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순위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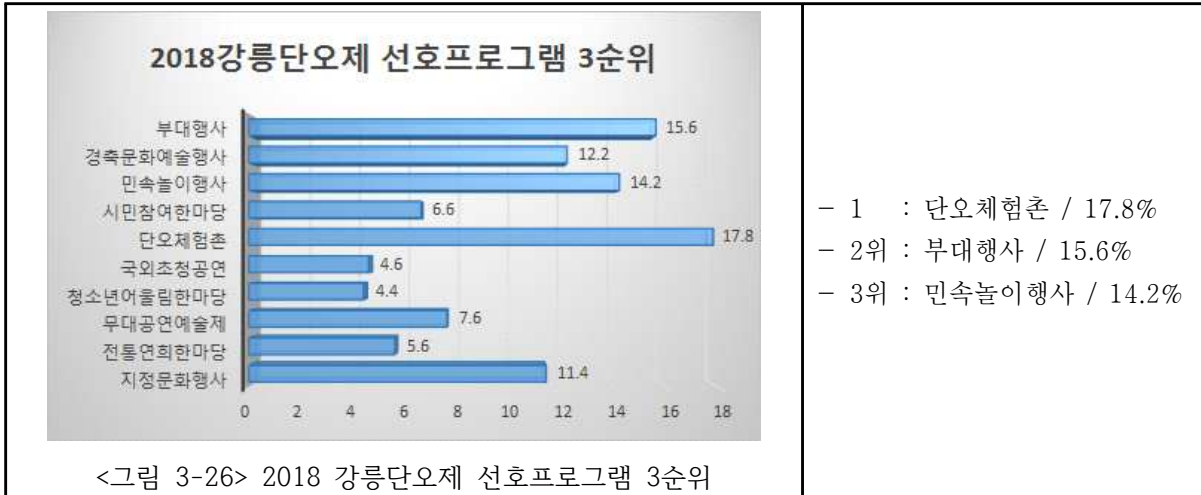
■ 2순위 선호 프로그램

- 2018강릉단오제 전체 프로그램 중 2순위 중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순위는 다음과 같음



■ 3 선호 프로그램

- 2018강릉단오제 전체 프로그램 중 3순위 중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순위는 다음과 같음



(9) 2018 강릉단오제 부분별 만족도

<표 3-3> 2018 강릉단오제 부분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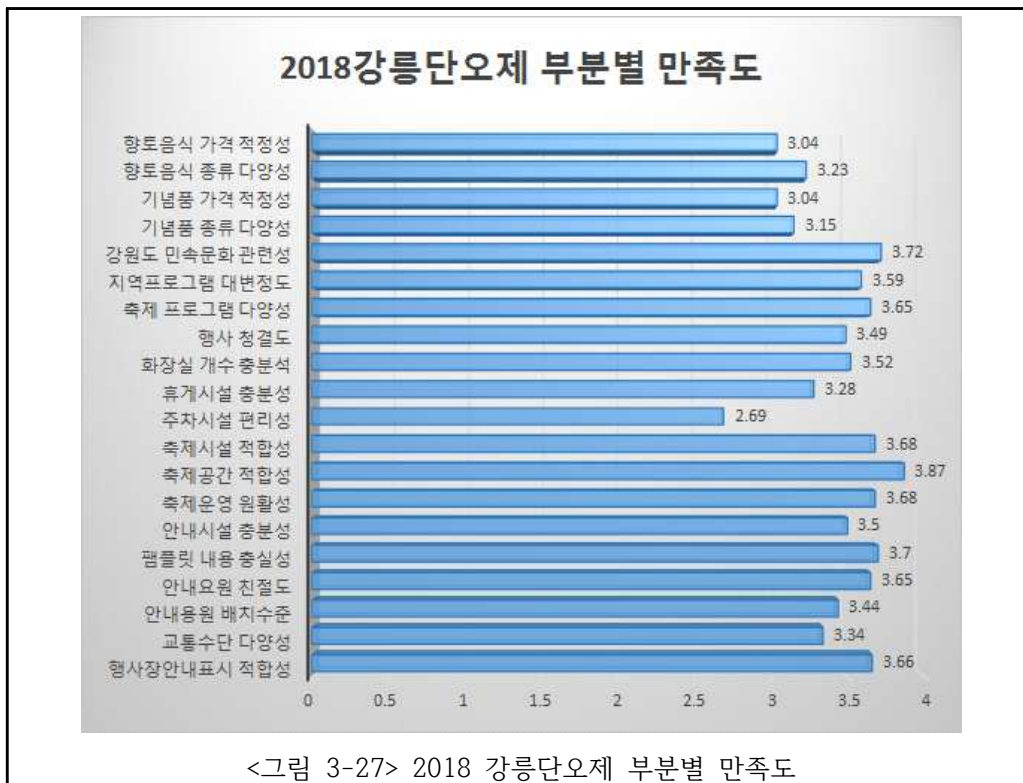
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점수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이정표가 있어 찾아오기 쉬웠다	11	33	206	117	133	3.66
행사장까지 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 다양했다	20	67	225	101	87	3.34
행사장 내 안내요원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	18	50	222	113	97	3.44
행사장 내 안내요원이 친절하다	13	29	195	147	116	3.65
행사장 안내 및 프로그램 등 팸플릿 내용이 충실하다	9	36	170	165	120	3.70
행사장 내 안내시설이 충분하다	7	54	209	141	89	3.50
행사장 내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하다	6	25	193	177	99	3.68
행사장이 2018강릉단오제 축제공간으로 적합하다	5	25	146	179	145	3.87
행사장 시설이 축제 관람 및 참여가 용이하도록 배치되었다	12	38	157	183	110	3.68
행사장 내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121	96	155	74	54	2.69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의 배치가 충분하다	29	89	186	105	91	3.28
행사장 내 화장실 개수가 적당하다	11	63	179	147	100	3.52
행사장 내 모든 공간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13	53	206	134	94	3.49
축제의 주제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6	34	195	160	105	3.65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8	38	199	160	95	3.59
축제프로그램이 강원도 민속 문화를 알게 해준다	7	41	154	179	119	3.72
축제관련 기념품이 다양하다	22	94	2230	93	61	3.15
축제관련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다	31	97	250	63	59	3.04
향토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24	84	221	96	75	3.23
향토 음식의 가격이 적당하다	33	101	238	69	59	3.04

■ 2018 부분별 만족도 조사 항목임

- 접근성 및 안내 시설의 충실성, 축제 공간 적합성, 행사장 청결도, 축제 프로그램의 다양성, 축제 기념품 다양성 및 가격, 향토 음식의 다양성 및 가격 적정성 항목을 조사함
- 각 항목별로 만족도에 따라 매우 만족 5점부터 매우 불만족 1점까지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응답자의 점수 / 응답자 전체 수로 나누어 척도 평균을 사용함

■ 2018강릉단오제 만족도에 대한 세부별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강릉단오제 행사장 접근성 만족도 : 3.50
- 강릉단오제 행사장 친절도 및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 3.59
- 강릉단오제 행사장 공간 적합성 만족도 : 3.38
- 강릉단오제 행사장 내 청결도 만족도 : 3.51
-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다양성 만족도 : 3.65
- 강릉단오제 기념품 다양성 및 가격 적정성 만족도 : 3.10
- 강릉단오제 향토음식 다양성 및 가격 적정성 만족도 : 3.14



■ 만족도(접근성)의 영향관계

- 교통수단과 만족도(접근성)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명목척도로 측정된 독립변수를 더미변수로 변환
- 교통수단 간의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타(도보, 시내버스)교통수단을 기준변수로 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 교통수단의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을 보여주는 R2는 .178로 나타났으며, 회귀모델은 $p < .01$ 수준($F=5.179, df=4, 456$)에서 유의하게 나타남

<표 3-4> 교통수단과 접근성 만족도의 영향관계

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p-value
		B	표준오차	β		
(접근성)	(상수)	3.600	.111		32.324	.000
	시외/고속버스	-.378	.227	-.086	-1.665	.097
	KTX	-.507	.192	-.142	-2.638	.009**
	관광버스	.218	.329	.032	.663	.508
	자가용	-.356	.126	-.165	-2.816	.005**

R2=.178, Adjusted R2=.171, F=5.179, df=4, 457, sig.=.003

주 : *= $p < .05$, **= $p < .01$, ***= $p < .001$

- 교통수단 중에서 KTX($t=-2.638, p < .01$), 자가용($t=-2.816, p < .01$)은 만족도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기타(도보, 시내버스)교통수단보다 KTX는 14.2%, 자가용은 16.5%의 만족도가 낮아짐을 의미함
- 그리고 자가용($\beta = -2.816$)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므로 교통수단별로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KTX를 타고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행사장으로의 셔틀버스를 운영, 또는 행사기간 동안 할인 등을 시행하여 만족도 제고 방안이 필요함
- 그리고 자가용이 낮은 것은 주차시설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사료되니, 행사장 주위의 간이 주차장 설치, 고속도로비, 유류비의 부담 해소 등의 방안의 시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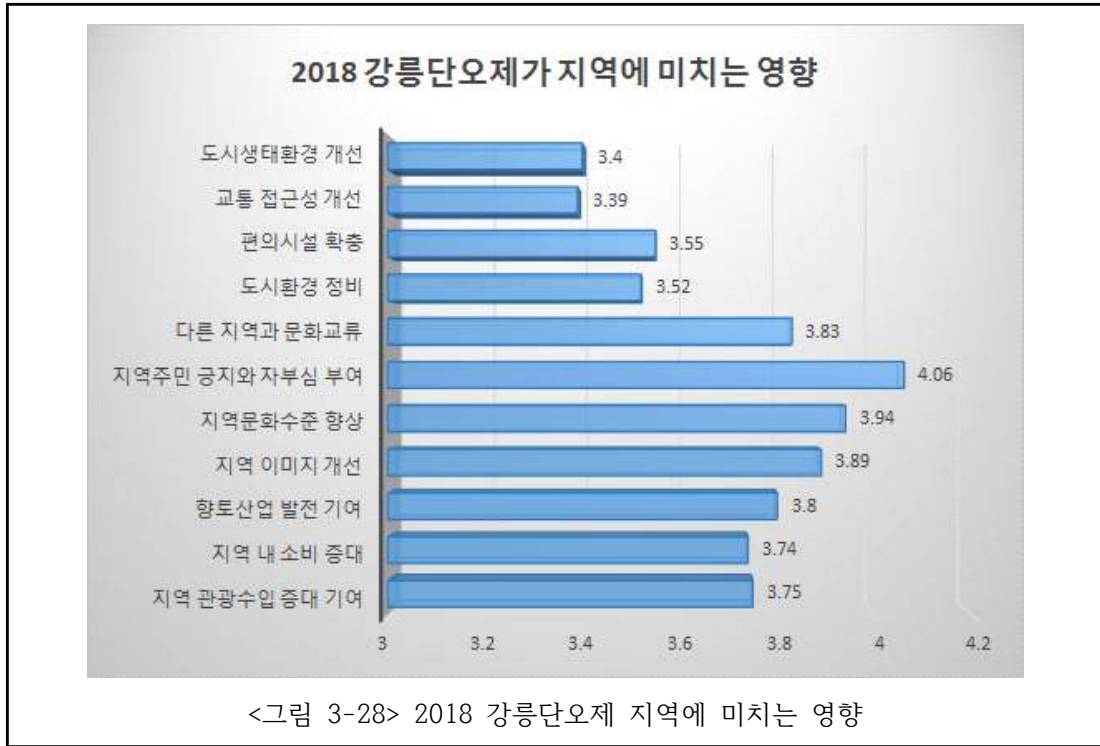
(10) 2018 강릉단오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표 3-5> 2018 강릉단오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수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관광수입 증대에 기여한다	8	17	191	162	122	3.75
지역 내 소비를 증대시킨다	11	24	165	183	117	3.74
향토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8	25	160	173	134	3.80
지역 이미지를 개선한다	5	19	149	180	147	3.89
지역문화수준을 향상시킨다	4	17	138	186	155	3.94
지역주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한다	4	10	118	186	182	4.06
다른 지역과 문화교류가 가능하다	5	21	159	186	129	3.83
도시환경이 정비된다	11	43	207	153	86	3.52
편의시설이 확충된다	15	42	192	154	97	3.55
교통 접근성이 개선 및 확보된다	21	55	213	129	82	3.39
도시생태환경이 개선된다	25	59	195	133	88	3.40

■ 2018 강릉단오제가 지역에 미치는 여향에 대한 질문 항목

- 2018강릉단오제가 지역에 미치는 여향에 대한 모든 항목이 3.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음
- 지역주민의 긍지와 자부심 향상이 4.06점으로 가장 높은 여향력을 보이고 있음
- 그 외에도 지역문화수준 향상(3.94점) 지역 이미지 개선(3.89점), 다른 지역과 문화교류 가능(3.83점) 등이 높은 여향력을 보이고 있음
- 가장 낮은 여향력을 보이는 항목은 교통 접근 개선(3.39점)으로 나타남
- 또한 도시생태환경 개선도 3.40점으로 낮은 여향력으로 나타남



2 2018 강릉단오제 방문객 추정 및 영향분석

1) 방문객 추정

(1) 방문객 추정목적

- 참가자 총수(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수)의 추정을 통하여 2018 강릉단오제의 규모 파악
- 축제의 파급효과 파악 및 향후 축제 개최의 방향 설정 참고
- 2018 강릉단오제 개최 목적 달성 정도의 파악 및 파급효과의 추정

(2) 방문객 추정 방향

- 2018 강릉단오제 방문객 추정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개년도의 방문객 수를 추정한 모니터링 보고서의 평균을 통해 추정함
- 2015년은 메르스 발생에 따른 행사 취소로 제외하였음

(3) 방문객 추정 결과

- 방문객 추정은 기존에 조사된 방문객 수의 평균을 계산하여 추정하면 2018 강릉단오제 방문객 수는 1,090,000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3-6> 2018 강릉단오제 방문객 추정결과

	2017년	2016년	2014년	2018년(추정)
방문객 수	1,050,000	1,130,000명	1,100,000명	1,090,000명

2) 영향(파급효과) 분석

(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전체

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

- 파급효과는 2018 강릉단오제를 통해 발생하는 중요한 간접 편익이므로,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한 축제평가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함
-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간접효과로서 모든 사회적 순편익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나 축제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각 산업부문에 미치는 생산, 소득, 부가가치, 고용 등 효과의 범위가 분명하고 객관적인 수치의 측정이 비교적 가능한 경제적 효과임
- 2018 강릉단오제를 통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모형은 산업연관 모형(Input-Output Model : IO)을 활용

나. 승수의 이해

■ 생산유발승수

- 생산유발승수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직·간접 유발효과 되는 효과를 의미함

■ 소득유발승수

- 소득유발승수는 한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국가 또는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직·간접 소득유발효과를 의미함

■ 부가가치유발승수

- 부가가치유발승수는 한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효과를 의미함

■

- 고용유발승수는 한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효과임

(2) 경제적인 영향(파급효과)

- 본 조사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8 강릉단오제 개최에 따른 재정지출에 의한 파급효과와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의한 파급효과로 나누어 추정함

가. 축제 운영관리 지출에 의한 파급효과

■ 2018 강릉단오제 운영관리수입과 지출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에 따른 수입은 총 1,638,491,195원(예산 : 1,620,000,000원)이며, 지출은 총 1,194,000,000원(예산 : 1,194,000,000원)으로 예산보다 원이 절감된 것으로 결산되었으며, 이러한 실제 총액을 파급효과의 산정 지표로 활용함

<표 3-7> 2018 강릉단오제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 원) / (2018. 08. 20 현재)

	2018 수입	2018 예산	수입/예산	2017년 결산액
총수입	1,638,491,195	1,620,000,000	18,491,195	1,356,964,979
총지출	1,194,000,000	1,194,000,000	-	913,764,578
경상이익	444,491,195	-	-	435,609,740

■ 축제운영관리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 축제운영관리에 따른 지출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 계상의 승수는(생산유발승수 : 1.9956, 소득유발승수 : 0.4248, 부가가치유발승수 : 0.8372, 세수유발승수 : 0.0672, 취업유발승수 : 0.0462) 2013년 한국관광공사의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 등을 평균한 값을 토대로 소수점 네 자리 이하 반올림함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

- 경제적 파급효과는 각 부문별 유발승수와 2018 강릉단오제 지출금액을 곱하여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의 사업비지출(예산집행)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2,382백만원으로 추정됨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의 사업비지출(예산집행)에 따른 소득유발효과는 507백만원으로 추정됨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의 사업비지출(예산집행)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99백만원으로 추정됨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의 사업비지출(예산집행)에 따른 세수유발효과는 80백만원으로 추정됨
- 2018 강릉단오제 운영관리 지출에 따른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3,968백만원으로 추정됨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55명으로 추정됨

<표 3-8> 축제 운영관리 지출에 의한 파급효과 분석결과

	승수	2018 강릉단오제 지출금액	추정치
	1.9956	1,194백만원	2,382백만원
소득유발효과	0.4248		507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0.8372		999백만원
세수유발효과	0.0672		80백만원
종합효과	-		3,968백만원
취업유발효과	0.0462		55명

나. 방문객의 소비활동에 의한 경제적인 파급효과

■ 2018 강릉단오제 방문객 소비지출

- 2018 강릉단오제 방문객 수는 총 109만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에 지역주민 58만명(53.2%), 관광객 51만명(46.8%)으로 참여 지역주민의 수와 참여 관광객 수가 각각 절반 정도임
- 방문객 조사를 위하여 5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측값 없이 500개의 유효표본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소비지출에 대한 응답의 항목

평균값을 추정에 활용하였음

<표 3-9> 2018 강릉단오제 부분별 소비금액

	지역주민		관광객		전체	
	소비액	구성비(%)	소비액	구성비(%)	소비액	구성비(%)
	7,258원	13.8	30,545	19.3	49,931원	11.9
숙박비	484원	0.9	67,857	42.9	107,831원	25.6
식음료비	26,009원	49.5	30,187	19.1	61,378원	14.6
유흥비	5,959원	11.3	9,939	6.3	51,000원	12.1
쇼핑비	12,115원	23.0	18,447	11.7	67,492원	16.0
기타비	784원	1.5	1,140	0.7	83,817원	19.8
합계	52,609원	100.0	158,115원	100.0	421,449원	100.0

- 지역주민은 2018 강릉단오제에서 1인당 평균 52,609원을 소비하였으며, 관광객은 158,115원을 소비하였음
- 지역주민은 식음료비에 전체 소비액의 약 50.0%를 차지하고 있었고, 관광객은 숙박비에 42.9% 차지하고 있었음
- 특히 관광객의 경우 작년에 비해 숙박비 비중이 20.6%에서 42.9%로 확대됨에 따라 숙박형 관광객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2018 강릉단오제 방문객 소비지출의 경제적인 파급효과

- 본 조사 분석에서는 지역주민의 2018 강릉단오제와 관련된 소비는 지역 내 소비와 추후 지역에서 소비할 가계지출 부분에서 소비한 것으로 상정하여 축제 개최의 경제파급효과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함
- 따라서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만 추정하기로 함
-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추정함
- 첫째는 축제 참가자 소비지출의 총액을 가지고 승수효과를 추정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축제참가자 소비지출 항목 중에 교통비와 숙박비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축제의 성격과 개최지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

경우임

- 본 조사 분석에서는 축제참가자 소비지출 총액에 의한 경제파급효과의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함
- 제1모형은 2018 강릉단오제 참가자(지역주민 + 관광객) 전체의 소비지출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 제2모형은 관광객의 소비지출 총액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 제3모형은 관광객의 교통비와 숙박비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파급효과의 추정으로 나누어 제시함
- 본 평가에서는 제3모형을 2018 강릉단오제 개최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파급효과 추정결과로 제시하고자 함

① 제1모형(방문자 전체의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파급효과)

<표 3-10> 제1모형(방문자 전체 소비지출) 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

	승수	방문자 전체 소비지출금액	추정치
	1.7052	459,379백만원	783,333백만원
소득유발효과	0.3001		137,859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0.8229		378,023백만원
세수유발효과	0.0968		44,467백만원
종합효과	2.925(승수계수)		1,343,684백만원
취업유발효과	0.0181		8,315명

※ 승수는 2011년 한국관광연구원 「한국관광산업의 경제효과분석」을 참조.

※ 관광 및 컨벤션 승수 : 3.4-4.3

- 2018 방문한 전체 방문객이 소비한 금액은 총 459,379백만원이었음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의 전체 방문자 소비지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783,333백만원임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의 전체 방문자 소비지출에 따른 소득유발효과는 137,859백만원임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의 전체 방문자 소비지출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78,023백만원임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의 전체 방문자 소비지출에 따른 세수유발효과는 44,467백만원임
- 따라서 2018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전체 방문자의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는 총 1,343,684백만원이며 승수는 2.925로 보편화된 관광 및 국제회의의 승수계수 최소 3.4에서 최대 4.3보다 낮은 편임
- 이러한 결과에 의한 취업유발효과는 8,315명이고 대부분 단오제 기간에 한정될 수 있으나 행사의 기획, 공연, 일부의 기념품과 식음료 부문에서는 지속화하는 경우도 있음

② 제2모형(관광객의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파급효과)

<표 3-11> 제2모형(관광객 소비지출) 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

	승수	관광객 소비지출금액	추정치
	1.7052	80,638백만원	137,505백만원
소득유발효과	0.3001		24,199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0.8229		66,357백만원
세수유발효과	0.0968		7,805백만원
종합효과	2.925(승수계수)		235,866백만원
취업유발효과	0.0181		1,459명

※ 승수는 2011년 한국관광연구원 「한국관광산업의 경제효과분석」을 참조.

※ 관광 및 컨벤션 승수 : 3.4-4.3

- 2018 방문한 관광객이 소비한 금액은 총 80,638백만원이었음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의 전체 방문자 중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37,505백만원임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의 전체 방문자 중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소득유발효과는 24,199백만원임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의 전체 방문자 중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6,357백만원임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의 전체 방문자 중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세수유발효과는 7,805백만원임
- 따라서 2018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전체 방문자 중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는 총 235,866백만원이며 승수는 2.925로 보편화된 관광 및 국제회의의 승수계수 최소 3.4에서 최대 4.3보다 낮은 편임
- 이러한 결과에 의한 취업유발효과는 1,459명이고 대부분 단오제 기간에 한정될 수 있으나 행사의 기획, 공연, 일부의 기념품과 식음료 부문에서는 지속화하는 경우도 있음

③ 제3모형(관광객 소비지출에 의한 실질적인 경제파급효과)

<표 3-12> 제3모형(관광객 실질적 소비지출) 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

	승수	관광객 실질적 소비지출금액	추정치
	1.7052	58,717백만원	100,124백만원
소득유발효과	0.3001		17,620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0.8229		48,318백만원
세수유발효과	0.0968		5,683백만원
종합효과	2.925(승수계수)		171,747백만원
취업유발효과	0.0181		1,062명

※ 승수는 2011년 한국관광연구원 「한국관광산업의 경제효과분석」을 참조.

※ 관광 및 컨벤션 승수 : 3.4-4.3

- 2018 참가자가 지출한 소비액이 강릉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교통비 총액(15,577백만원)의 3분의 1(5,192백만원, 1인당 10,181원), 숙박비 총액(34,607백만원)의 3분의 2(23,071백만원, 1인당 45,238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2018 강릉단오제 참가 관광객의 실질적인 역내 소비지출총액은 58,717백만원(1인당 115,132원)으로 추정됨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의 전체 방문자 중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00,124백만원임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의 전체 방문자 중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소득유발효과는 17,620백만원임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의 전체 방문자 중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8,318백만원임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의 전체 방문자 중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세수유발효과는 5,683백만원임
- 따라서 2018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전체 방문자 중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는 총 171,747백만원이며 승수는 2.925로 보편화된 관광 및 국제회의의 승수계수 최소 3.4에서 최대 4.3보다 낮은 편임
- 이러한 결과에 의한 취업유발효과는 1,062명이고 대부분 단오제 기간에 한정될 수 있으나 행사의 기획, 공연, 일부의 기념품과 식음료 부문에서는 지속화하는 경우도 있음

라. 2018 강릉단오제 개최에 따른 경제적인 총 파급효과

- 2018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운영관리비 지출에 의한 파급효과와 방문객 소비지출에 따른 파급효과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 방문객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2018 강릉단오제 전체 방문자의 지출에 따른 파급효과(제1모형), 관광객 소비지출에 따른 파급효과(제2모형), 실질적인 지역 내 관광소비지출에 따른 파급효과(제3모형)로 나누어 측정함
- 따라서 2018 강릉단오제 개최에 따른 종합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운영관리비 지출에 의한 파급효과와 관광객 소비지출에 의한 파급효과 제3모형을 통합하여 추정함

<표 3-13> 2018 강릉단오제 개최에 따른 경제적인 총 파급효과

	운영비지출	관광객소비지출	총 경제파급효과	비고
	2,382백만원	100,124백만원	102,506백만원	
소득유발효과	507백만원	17,620백만원	18,127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999백만원	48,318백만원	49,317백만원	
세수유발효과	80백만원	5,683백만원	5,763백만원	
종합효과	3,968백만원	171,747백만원	175,715백만원	
취업유발효과	55명	1,062명	1,117명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실질적인 생산유발효과는 102,506백만원으로 추정됨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실질적인 소득유발효과는 18,127백만원으로 추정됨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실질적인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9,317백만원으로 추정됨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실질적인 세수유발효과는 5,763백만원으로 추정됨
- 2018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취업유발효과는 1,117명으로 추정됨
- 따라서 2018 강릉단오제 개최에 의한 실질적인 경제파급효과는 총 175,715백만원이며, 취업유발효과는 1,117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추정결과는 2017년 강릉단오제에 비하여 2배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 이는 방문객들이 2018년 강릉단오제에서 지출한 비용이 2017년 강릉단오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이유로 추정할 수 있음



IV. 2018 강릉단오제 현장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개요
2. 2018 강릉단오제 주요 프로그램
3. 2018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외 항목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

1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목적

- 대표하는 민속축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 진단평가
 -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결작, 국가무형문화재 제 13호 강릉단오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매일 일정한 단오제 기간 동안 단오제 축제 공간에서 평가를 진행함
 - 평가 진행 방법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2018 강릉단오제를 평가함
 -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과제를 도출할 것임
 - 더불어 진행된 모니터링을 통해 축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모니터링 목적

- 모니터링 조사 방법
 - 선행 연구를 통하여 2018 강릉단오제 축제 프로그램 연구 및 강릉 단오제 문헌 조사 및 현황 자료를 파악함
 - 2018 강릉단오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을 위해 정상적인 방법 및 정량적 방법을 모두 사용함
 - 항목별 모니터링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리커드 5점 척도를 추가하여 점수화함
 - 또한, 단위 프로그램 별 평가와 분석을 정량화 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크리스트 및 인터뷰 지를 설계하여 모니터링 요원들의 참여 관찰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함
- 모니터링 조사 항목
 - 모니터링 항목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음
 - 첫째, 2018 강릉단오제 행사 기간 동안(2018.05.19.~2018.06.21. 34일간) 진행된 프로그램 항목별 모니터링 함
 - 둘째, 2018 강릉단오제 축제 기간 동안(2018.06.14.~06.21. 8일간)의 시설 및

, 진행, 운영 등 프로그램 외 항목을 모니터링 함

- 각 모니터링 조사 항목은 리커드 5점 척도를 통해 정량적 측정을 동시에 진행 함
- 각 조사 항목별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함

<표 4-1> 2018 강릉단오제 모니터링 조사항목

	항목	세부내용
그램별 모니터링 항목	주제성	• 축제조직위가 정한 “축제 중심 주제”와 “개별단위 프로그램 각각의 주제”가 충실하게 부합하는가?
	참여성	• 축제 방문객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가? • 체험 형과 관람 형으로 구분하여 참여정도를 측정 하도록 함
	고유성	• 지역이나 축제의 장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는가?
	신기성	• 처음 경험하는 프로그램이거나, 비슷한 사례의 프로그램이더라도 다른 차별화된 신기성이 프로그램에 존재 하는가?
	의외성	•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축제를 경험한 후 재미와 흥미를 북돋울만한 요소가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요인이 있었는가?
프로그램 의 항목 모니터링	편의시설	• 주차시설, 식수시설, 휴게시설(매점, 벤치, 수유시설 등), 화장실 개수·청결도, 오폐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 장소의 효율성 및 동선의 적절성
	홍보 및 안내	• 축제 홍보의 효율성(사전·중·후), 프로그램 정보 전달의 적절성, 홍보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안내시(방송, 표지판, 안내도), 안내요원의 배치 및 친절도
	공간 배치	• 무대·전시공간·체험 공간 배치의 적절성, 먹거리 공간, 편의공간과의 혼잡도
	진행 및 운영	• 원활성과 적절성, 순서의 적당성,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태도, 개최시기(시간)의 적당성

3) 모니터링 조사 기간 및 장소

■ 모니터링 기간

- 2018 강릉단오제 행사 기간 및 축제 기간의 모든 일정을 직접 참관 및 모니터링 함
- 2018 강릉단오제 모니터링 일정 : 2018.05.19.~2018.06.21. 총 34일

■ 모니터링 장소

- 2018 강릉단오제 축제 공간 일대

<표 4-2> 2018 강릉단오제 모니터링 장소

	행사장 내용
A : 메인행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단, 공연장, 단오체험촌, 씨름장, 그네 터, 종합안내소, • 향토먹거리 촌, 장포 쉼터 등, 메인 시설물 설치
B구역 :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신주 교환소 등 • 단오공원을 활용한 청소년 활동 장소 활용
C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커스 및 과학 체험관, 먹거리 촌 등
D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물시장
E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부스 및 이불전 등
F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다리기, 옷놀이, 불꽃놀이 행사, 소제행사 등

4) 모니터링 분석 내용 전개 및 구성

- 2018 프로그램 모니터링 내용 전개 및 구성
 - 2018 강릉단오제 기간 동안의 날짜를 기준으로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순서대로 기술함
 - 상시적으로 운영된 체험 프로그램들은 항목으로 묶어 분석 결과를 기술함
- 2018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외 항목 모니터링
 - 2018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외 항목 모니터링 내용은 날짜별 및 공간별로 상세 기술할 것임
 - 2018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외 항목 모니터링 내용은 날짜별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3> 2018 강릉단오제 모니터링 장소

지정 문화 행사	날짜	장소
신주빚기	2018.05.19.	칠사당
대관령 산신제	2018.05.29.	대관령 산신당
대관령 국사성황제	2018.05.29.	국사성황사
구산서낭제	2018.05.29.	구산서낭당
학산서낭제	2018.05.29.	학산서낭당
봉안제	2018.05.29.	대관령국사여성황사

- 이상 위 항목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2018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외 항목 모니터링 분석 내용”은 공간별로 기술할 것임

2 2018 강릉단오제 주요 프로그램

1) 신주빚기

(1) 신주빚기 프로그램 모니터링 개요

- : 1부 / 신주빚기 지정문화재행사 - 강릉 대도호부관아 칠사당
2부 / 신주빚기 체험 행사 - 강릉 대도호부관아 서현
- 시점 : 5월19일 토요일 음력 4월 5일 09:00 ~ 16:00

(2) “신주빚기”행사 모니터링

준	평 점	평 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빚기는 강릉단오제의 시작을 의미하는 행사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확실함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써 신주빚기 체험행사는 행사 전 참여자 모집을 통해 타지역 사람들 까지 신청하여 높은 관심과 참여율을 보임 • 강릉 도호부관아 칠사당에서 이루어진 신주빚기 행사는 좁은공간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행사 몰입에 다소 방해되었음 • 하지만 강릉시민 규모에 비해서는 참여율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추후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서 넓은 행사장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절차를 통해 신주를 빚고 무당이 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모습은 요즘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임 • 관람객들은 모든 과정을 관람하였지만 해당 전통의식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생소할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부문에 적합함 • 강릉시장이 제관복을 입고 행사에 참여하는 장면은 강릉단오제의 오랜 전통을 보여줌 • 또한 전통주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신주빚기 체험의 참여자들은 술을 처음 담가보는 참여자가 대부분이었으므로 매우 적합함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빚기는 무녀와 제관들의 행렬로부터 시작하여 부정 곳을 하고 신주를 빚어내는 것까지 모든 행사가 우리의 전통을 전승함에 의의가 있음 • 신주를 빚는 행사는 강릉단오제 뿐만 아니라 타 지역 단오제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나 규모 및 인지도 면에서 강릉단오제가 월등하여 고유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조선시대의 강릉지역 관아였던 칠사당에서 본 행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타 지역에서는 접할 수 없는 깊은 전통임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빚기 본 행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빚는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전통행사가 함께하는 행사 및 친근한 이미지를 조성함

(3) 프로그램 외 항목 모니터링

	세부내용	내용
시설	1. 주차시설 2. 식수시설 3. 휴게시설 (매점, 벤치, 수유시설 등) 4. 화장실 개수·청결도 5. 오폐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녀와 제관들의 행렬은 일반 시민도 함께 걸어가며 관람이 가능하여 주차시설의 필요성이 적음 • 하지만 비교적 변화가에 위치한 칠사당에서의 신주빚기 의식 관람 및 신주빚기 체험행사를 위한 참여자 및 관광객을 배려한 주차시설이 미흡하여 도로 갓길 불법 주차 및 교통혼잡을 초래할 수 있음 • 공식적인 식수시설은 설치하지 않았으나 안내부스 및 신주미 봉정 부스에서 제공(비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었음 • 행사가 행렬식 행사와 칠사당에서의 전통행사로 이루어졌으나 행사 시간이 길지 않아 휴게시설의 필요성이 미비함 • 또한 관아 내부 공원에 벤치가 조성되어 있어 올해 참여자 및 관광객 규모는 해당 시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나 참여자 및 관광객이 증가하면 휴게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 • 관아 내에 조성되어 있는 화장실은 청결하며 규모면으로도 본 행사에는 적절함 • 체험행사에 쓰인 인쇄물, 제품포장지 등이 행사중간에 버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나 행사 종료 후에는 청결하게 유지됨
홍보 및 안내	1. 축제 홍보의 효율성 2. 프로그램 정보 전달의 적절성 3. 홍보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4. 안내시설 (방송, 표지판, 안내도) 5. 안내요원의 배치 및 친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를 실시하는 장소의 문제로 인해 소극적 홍보형태를 보임 • 많은 관광객들이 행사를 관람할 경우 행사에서 추구하는 정보와 가치의 전달이 힘들 것으로 사료됨 • 신주빚기 체험 참여자는 정해진 인원수로 제한하여 신청을 받음으로써 참여자들이 쾌적하게 체험 진행 가능 • 행사의 절차, 의식의 의미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실시하거나 안내를 위한 인쇄물을 비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안내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신주빚기 체험준비 등으로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것이 보여 대체인원 추가 및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공간 배치	1. 무대·전시공간·체험 공간 배치의 적절성 2. 먹거리 공간 3. 편의공간과의 혼잡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사당이라는 전통적인 고유의 장소성은 본 행사에 가장 적합하나 관람의 측면에서는 매우 불편한 특징을 보임 •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한 기자 및 관광객들은 행사 몰입을 방해할 정도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자아냄 • 신주빚기 체험을 진행한 관아 공원의 장소는 적절하였으나 무녀와 제관들이 실시하는 신주빚기의 쾌적한 관람을 위해서는 접근제한을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
진행 및 운영	1. 원활성과 적절성 2. 순서의 적절성 3.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태도 4. 개최시기(시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됨 • 사진을 찍기 위한 기자 및 관광객들의 무질서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타지역 관광객을 배려하여 적정한 행사요일 및 시간을 조율할 필요가 있음

총 평

- 위한 요원이 안내부스 자리를 자주 이탈
- 체관들이 담당구역에서 참가자들의 체험을 도왔던 것이 인상적이었음
- 안전요원 및 경찰 통제 하에 행사가 진행되어 비교적 안전하게 진행됨
- 기자 및 관람객의 무질서한 촬영이 관람에 상당한 지장을 주므로, 몰입을 방해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됨
- 촬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문화재 행사 촬영 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도호부관아의 공사로 행사장이 어수선하여 행사장 풍경 및 방문객들의 안전에 불편을 초래
-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미흡함
- 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정식 지정문화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식수 및 편의 시설 섭외가 원활하지 않으며 추후 관람객 증가를 고려할 경우 쓰레기통과 안전요원 및 환경요원의 배치가 필요함
- 지정문화재행사와 체험행사 사이에 민속놀이 물품 등을 구비해 놓아 기다리는 아이들 및 부모님들과의 놀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2) 산신제·성황제·봉안제

(1) “산신제·성황제·봉안제” 프로그램 모니터링 개요

- : 대관령 산신당
- 시점 : 5월 29일 화요일 음력 4월 15일

(2) “산신제·성황제·봉안제” 프로그램 모니터링

준	평 점	평 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관령 정상의 산신당과 국사성황사에서 진행되는 산신제는 예로부터 김유신 장군을 모시기 위한 전통성 있는 행사로 단오제의 전통성과 부합 • 성황제 및 봉황제 또한 단오제 지정문화재 행사로써 단오제의 전통과 문화성과 부합 • 제를 올리는 의식 및 절차를 정성스럽게 진행하고 각 의식의 주제에 맞게 진행됨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신제는 민간차량 통제에도 불구하고 약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많은 인파는 쾌적한 관람 및 안전 통제 등 제약이 따를 수 있음 • 민간차량의 통제는 쾌적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한결 수월하게 행사가 진행됨 • 참여자들이 많아 단오신주와 시루떡의 물량이 부족하였음(물량을 넉넉히 준비할 것)
신기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목에 신이 깃들었다 여겨 오방천을 두르고 산에서 여러 사람이 모시고 내려오는 과정과 절차는 일반인들은 쉽게 볼 수 없는 진귀한 풍경임 • 제례의 절차는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한문으로 진행되는데 이색적이었음 • 해당 제례 절차는 안내인쇄물 배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 고유의 산신과 국사성황신을 모시는 천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전통적인 행사로써 역사성과 고유성이 깊음 • 신이 깃든 신목을 선택하고 모시고 내려와 서낭당에서 시민이 마련한 음식으로 제를 지내고 요기를 하는 모든 과정이 강릉단오제에서만 접할 수 있는 문화임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목을 모시고 내려오는 제관들의 나이가 매우 많았으나, 무거운 신목을 들고 산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조상들의 정성과 예를 느낄 수 있었음 • 강릉의 전통과 지역적 특색을 알 수 있으며 모든 의례들이 강릉단오제와 깊이 연관되어 강릉단오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됨

(3) “산신제 · 성황제 · 봉안제” 프로그램 외 모니터링

	세부내용	내용
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시설 2. 식수시설 3. 휴게시설 (매점, 벤치, 수유시설 등) 4. 화장실 개수 · 청결도 5. 오폐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시설은 자동차 10대 가량 주차할 수 있는 소규모 주차장이 있었으나 민간 차량 통제로 인해 휴게소에 주차후 2~300m를 아스팔트 도로를 올라가야 비로소 행사장에 도착할 수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0여명의 시민들이 제례에 참여하였으며 해당 공간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음 • 이번행사와 같이 민간차량 통제를 통해 관람객들로 인한 행사장 포화상태 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산신제 및 국사성황제는 약수터가 마련되어 있어 식수시설의 도입은 필요 없으나 본 행사는 행사장을 수시로 이동하므로 물통 및 간단한 음료 정도는 지참하여 참여할 것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산신제, 국사성황제에 화장실은 마련되어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청결을 유지하였음
홍보 및 안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제 홍보의 효율성 2. 프로그램 정보 전달의 적절성 3. 홍보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4. 안내시설 (방송, 표지판, 안내도) 5. 안내요원의 배치 및 친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적 규모에 비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여 홍보는 비교적 적당한 효과를 내었다고 할 수 있음 • 홍보가 과할 경우 쾌적한 관람이 어려울 수 있음 • 프로그램 정보 전달을 위한 안내전단지 는 매우 자세하고 친절하게 만들어져 있음 •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통해 수월한 행사진행이 가능하였음
공간 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대 · 전시공간 · 체험 공간 배치의 적절성 2. 먹거리 공간 3. 편의공간과의 혼잡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차량을 통해 행사에 참여할 경우 차량통제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거리이나 적당한 리스크를 통해 방문객 조절 필요 •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으나 야외인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따로 마련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음식 및 쓰레기가 산림에 버려지지 않도록 캠페인 및 단속을 시행해야 함 • 편의공간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산림에 배치되어 있는 바위, 블록, 돛자리 등에 앉아서 휴식하는 참여자들이 대부분이었음 • 해당 행사는 자연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추가적인 편의공간은 행사이미지 및 몰입에 방해될 수 있음
진행 및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활성과 적절성 2. 순서의 적절성 3.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태도 4. 개최시기(시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사당 앞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로부터 행사장 이동, 행사관람, 귀환 등 모든 행사들은 수월하게 진행되었으나 산신제를 마무리하고 국사성황제로 전환하는 시간이 비교적 많이 소비되었음 • 셔틀버스를 타고 산신제에 참여한 경우 구산서낭제 등 참여할 수 없는 행사들이 있었음



총 평

- 통한 조상들의 전통과 얼을 느낄 수 있는 행사
 - 산신제, 성황제, 봉안제는 강릉단오제의 대상인 신을 모시는 행사로 모든 절차와 방법들이 전통방식으로 진행됨
 - 많은 시민들이 해당 행사에 참여하여 삶의 안녕을 기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
 -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강릉단오제의 인지도 및 전통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음

- 적당한 참여자 조절을 통한 쾌적한 행사진행 필요
 - 금년 산신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음에도 정돈된 행사진행과 청결한 관리로 쾌적하게 행사진행이 되었으나, 추후 참여자가 100명 정도가 늘어나면 쾌적한 관람이 어려워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산신당 및 국사성황당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홍보효과 조절 및 통제를 통해 쾌적한 행사공간을 유지해야 함

- 행사 단계별 진행자 및 안내자 필요
 - 산신제, 성황제, 신목 자르기, 신목모시기 등 행사 절차가 전환될 때 마이크를 통해 안내해 줄 수 있는 해설자가 있으면 처음 관람하는 참여자도 행사에 더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을 것임
 - 전체적인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참여자 입장을 고려하여 함께하는 행사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3) 2018 단오제 본 행사

(1) 2018.06.14.(목) - 단오제 1일차

■ 윈드오케스트라(수리마당)

	평점	평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본격적인 최초 무대공연으로써 웅장한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공연 • 강릉단오제와의 전통성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축제와 음악은 관련이 깊고 무대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측면에서는 각인 효과가 뛰어남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아침시간대에 진행된 공연으로 관람객들이 저조하였으며 대부분 노인들임 • 시간여건상 관람객의 참여가 저조하였으나 반면에 힘을 실어 주듯 호응도는 매우 좋았음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로 익숙한 음악들을 연주하였으며 타 오케스트라 연주와는 특별한 차별성을 느낄 수 없었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케스트라 연주는 다양한 악기의 합주인 만큼 공연을 실시함에 있어 많은 사람과 공간적 제약이 따름 • 이에 쉽게 접할 수 없는 공연으로써 희소 가치가 있음
의외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평이한 진행과 연주를 보임

총 평

- 오전에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 전체적인 곡선택과 진행에 있어서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을 것



■ 예술원(수리마당)

	평점	평가
	4	• 우리나라 전통 무용 및 소리를 하는 공연으로써 강릉단오제의 전통성과 부합하는 공연임
참여성	2	• 평일 낮 시간대에 진행되어 참여가 저조함
신기성	3	• 우리의 국악에 한국무용과 창작무용이 더해져 우리 음악의 신명과 아름다운 선율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음
고유성	3	•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인 김규리 단장 등 인지도 높은 명창과 명인들이 꾸며내는 무대(경복궁타령, 한량무 등)는 한국의 풍류문화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다양한 지방의 전통예술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어 고유성을 가지고 있음
의외성	3	• 한가지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어 지루함을 덜어주었으며 우리나라 가락에 관람객들은 몰입하여 관람함

총 평

- 우리나라 전통예술 퍼포먼스를 통해 천년역사 강릉단오제의 분위기에 걸맞는 아우라를 만들어냄
- 퍼포먼스의 역사나 유래 등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함
- 평일 낮 시간대 공연이라 참여자가 저조한 것이 아쉬움



■ 음악클럽(수리마당)

	평점	평가
	4	• 축제와 음악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음악공연은 축제의 분위기를 복돋아 주는 매개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제가 적당하나 전통성과 역사·문화적 측면에서는 해당되지 않음
참여성	4	• 블루그래스, 요들송 등 신나는 노래 위주의 공연으로 공연장을 지나가다 호기심을 갖고 공연 중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음
신기성	3	• 쉽게 접할 수 없는 벤조, 바이올린 등의 악기의 연주와 요들송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으나 악기나 노래의 특성이 강하여 빨리 질리는 단점이 있었음
고유성	3	• 지역에서 해당분야의 공연을 찾아보기 힘들며 단오제에서 개성있는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유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의외성	3	• 연주실력이나 노래실력은 뛰어나지는 않았으나 악기와 노래장르에서 관람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음

총 평

- 듣고 즐기는 공연으로써는 가치가 있으나 수리마당의 규모를 세가지 악기로 채우기에는 부족해 보였음
- 세션의 변화와 장르의 다양성을 통해 변화를 줄 수 있다면 더욱 발전된 공연이 될 것 같음



■ 2018 주민자치 스마일한마당(수리마당)

	평점	평가
	5	• 강릉 시민들의 축제라는 점에서 단오제의 주제와 부합함
참여성	5	• 매우 많은 강릉시 주민들이 참여하였으며 무대 공연 뿐만아니라 응원단까지 많은 인원이 객석을 채워주었음
신기성	4	•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노래, 연주, 율동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였는데 약 30명의 시민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 신나게 율동을 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과 호응도를 유발함
고유성	4	• 단오제를 맞이하여 전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행사로써 신통대길놀이와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요행사로써 자리잡을 수 있음
의의성	4	• 초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객석으로 모두 채울만큼 참여도가 좋았으며 각 자치센터별 특별한 공연들이 다양하여 즐거움을 더했음

총평

- 강릉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여 발전시켜 나가면 신통대길놀이와 같은 미래의 단오제 메인 행사로써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음



■ 관노가면극(아리마당)

	평점	평 가
	4	• 관노가면극은 강릉단오제 때 펼쳐지는 탈놀이로 강릉단오제의 주제와 매우 부합됨
참여성	4	• 점심시간이 겹쳐 사람들이 식당으로 다수 이동 • 하지만 초등학교 동기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관람하여 비교적 객석이 채워짐
신기성	3	• 초등학교생들의 공연으로 아기자기함을 느낄 수 있었음
고유성	3	• 강릉단오제의 고유한 탈놀이로 타 지역에서는 감상하기 힘든 공연임 • 하지만 강릉단오제 행사에서는 관노가면극의 공연횟수가 많아 쉽게 감상할 수 있음
의외성	3	• 초등학교생임에도 불구하고 연기 실력이 뛰어나 참여한 관광객의 호응을 많이 끌어냄

총 평

- 관노가면극 초등학교생 공연이 여러 번 있었으나 그 팀 중에 연기실력이 가장 뛰어났음



■ (아리마당)

	평점	평 가
	4	• 전통 농악공연으로 단오제의 전통성과 부합하는 주제임
참여성	3	• 평일 오후 2시공연으로 참여자가 저조하였음(약 50명 가량) • 노년층 위주의 참여
신기성	3	• 흔히 볼 수 있는 농악공연으로써 전통풍물공연이라는데 의의가 있음 • 주민자치단체의 시민들이 농악을 배워 준비하여 나왔지만 비교적 연주실력이 떨어짐
고유성	2	• 강릉단오제 및 타 지역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연으로 고유성은 떨어짐
의외성	2	• 평범한 풍물공연이었음

총 평

- 농악을 통해 강릉단오제 분위기를 잘 살려주었으나 합주가 다소 안맞는 경향이 있었음
- 전문인이 아니어서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스토리텔링을 통해 준비한 기간, 나이 등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객 몰입을 증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 (아리마당)

	평점	평가
	4	• 강릉단오제와 함께 강릉의 대표적인 문화재로써 전통성에 부합됨
참여성	4	• 여러 가지 기구와 도구들을 사용하며 진행되는 공연에 지나가는 관객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관람함
신기성	4	• 강릉에서 논을 맬 때 부르던 농요로 지역성이 잘 드러나 있으며 마을주민들이 직접 시간을 내어 전수받아 지역문화를 이어간다는 것에 놀라웠음
고유성	5	• 학산오독떼기는 강원도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될 만큼 흔히 보기 힘든 지역전통공연임
의외성	4	•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학산리에서 실제 거주중인 노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노래의 가락이 구성지게 들려와 몰입하여 관람하게 됨

총 평

- 자랑스러운 지역의 토착문화를 마을주민들이 직접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공연을 시작하면 몰입도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임



■ 관노가면극(아리마당)

	평점	평 가
	5	• 관노가면극은 단오제의 꽃이라는 말이 있듯 단오제 주제성과 부합함
참여성	4	• 약 100명의 관람객이 관노가면극을 관람하였음
신기성	5	• 옛날 관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던 관노가면극은 대사가 없는 무언극이지만 큰동작과 연기자들의 연기로 스토리가 이해되는 것이 특별함
고유성	5	• 우리나라 전국에도 많지 않은 탈놀이 문화 중 강릉에 유일한 무언가면극으로서 그 고유성을 잘 보여줌
의외성	3	• 시시때때가 관객들과 소통하며 진행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

총 평

- 관노가면극은 단오제와는 떼어 놓을 수 없는 최고의 공연물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특징 없이 반복되는 관노가면극은 희소성이 반감될 수 있음



■ (아리마당)

	평점	평 가
	5	• 강릉농악은 강릉단오제와 함께 강릉을 대표하고 전통이 깊은 풍습이며 이를 잘 표현해 주고 있음
참여성	3	• 평일 낮시간대라 관람객은 약 50명정도로 저조하였음
신기성	4	• 다른 농악대와 비교하여 가장무용수가 포함되어 규모면이나 화려함이 더해졌음
고유성	5	• 강릉농악은 타 농악과는 다르게 농사짓는 과정과 내용을 흥내내어 재현하는 형태의 농사풀이가 판굿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11-4호로 고유성이 있음
의외성	4	• 무동, 소고가 인원이 많아 타 농악팀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줌

총 평

- 교동농악대의 규모는 타 농악대에 비해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었음
- 특히 무동은 화려한 오방색의 옷을 입고 농악에 맞추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 타 농악팀과 차별점이었음



■ 관노가면극(아리마당)

	평점	평가
	5	• 관노가면극은 강릉단오제의 대표 극으로써 강릉단오제의 주제와 부합함
참여성	5	• 저녁시간에 공연이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약 150명)
신기성	4	• 옛날 관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던 관노가면극은 대사가 없는 무연극이지만 큰동작과 연기자들의 연기로 스토리가 이해되는 것이 특별함
고유성	5	• 우리나라 전국에도 많지 않은 탈놀이 문화 중 강릉에 유일한 무연가면극으로서 그 고유성을 잘 보여줌
의외성	4	• 대부분 나이가 드신 어머님들이 연기를 하였으며 공연이 끝난 후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것에 대한 자축과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을 보고 많은 노력을 통해 공연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음

총평

- 타 관노가면극에 비해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부족해 보였으나 어머님들이 고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물이라 생각되어 성공적인 공연마무리에 의의를 둠



■ (단오제 전수교육관)

	평점	평 가
	5	• 굿 위드어스는 강릉단오제의 메인행사인 굿을 주제로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공연물을 기획한 것으로 강릉단오제의 주제와 매우 부합함
참여성	3	• 야심차게 준비한 기획공연인 것에 비해 참여율은 저조하였음
신기성	4	• 강릉단오제의 정신과 굿문화를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공연으로써 접할 수 있다는 것에 차별성이 있음
고유성	5	• 강릉단오제위원회가 기획한 굿 위드어스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강릉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공연에 선정되어 그 고유성을 인정받음
의외성	4	• 다양한 춤과 악기연주, 굿문화를 보여주어 지루하지 않게 관람할 수 있었음

총 평

- ‘춤, 단오 그리고 신명’ 을 주제로 기획한 굿위드어스는 단오 굿에 무용부분을 특화한 공연 기획물이며 배경 영상과 함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냄
- 관노가면극과 함께 단오제를 대표하는 공연물로써 발전가능성이 있음



(2) 2018.06.15. - 단오제 2일차

■ World Passion Gala Show () (총 5회공연)

	평점	평 가
	4	• 강릉단오제가 우리나라의 전통이라면 타국의 전통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며 전통이라는 주제에 부합함
참여성	5	• 공연 내내 약 400명 가량의 많은 인원이 관람하였음
신기성	4	• 캐나다 팀은 공연팀이 한가족으로써 할머니, 어머니, 손녀, 아들, 딸들이 서로 웃으며 즐겁게 공연하는 것에 굉장히 인상깊었음
고유성	4	• 쉽게 접할 수 없는 타국의 전통공연이었음
의외성	4	• 다양한 공연물 중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한 공연이었음 • 캐나다 팀의 꼬마들이 매우 귀여웠음

총 평

- 캐나다, 몽골,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타국의 전통 음악 및 전통 무용을 관람할 수 있었던 공연으로써 매회 마다 객석이 만원이 되는 현상이 있었음
- 타국의 전통에 많은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제 11회 한·청 실버가요제(수리마당)

	평점	평 가
	4	•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버가요제는 축제라는 주제와 부합함
참여성	5	• 노래부르는 어르신들과 이에 호응하고 무대앞까지 나와 춤을 추는 어르신들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 • 객석은 응원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음
신기성	4	• 축하공연 및 참가한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 한명한명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니 전국 노래자랑이 생각남
고유성	5	• 단오제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이 한을 풀 듯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통해 강릉단오제가 어르신들을 위한 놀이의 장을 마련해 줬다는 생각이 들었음
의외성	5	• 거리낌 없이 무대앞 공간에서 춤을 추는 어르신들은 관광객들에게 또하나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

총 평

- 어르신 한마당이 격식을 차리고 그동안 준비해 온 것을 보여주는 발표회였다면 실버가요제는 순수하게 놀이마당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지속적인 유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놀이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생각하는 강릉단오제가 되길 기원함



■ 연화아가씨의 사랑(수리마당)

	평점	평 가
	5	• 우리나라 전통음악으로써 전통성에 부합함
참여성	3	• 저녁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참여가 저조함 • 세명의 국악인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전달이 제대로 안되어 이해하기 힘들었음
신기성	3	• 배경지식이 없다면 어느 공연과 다를 것이 없는 전통공연이었음
고유성	4	• 과거 강릉단오제 무대공연예술작품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으로써 고유성이 있다고 하나 배경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 힘들 수 있음
의외성	2	• 노래의 가사를 해석할 수 없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음

총 평

- 우리나라 전통공연의 창이나 판소리의 단점은 요즘 세대들은 발음과 어투에 익숙하지 않아 듣기만으로 내용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음
- 가사를 전달 할 수 있는 매체를 도입하여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SB 단오를 흔들다(수리마당)

	평점	평가
	4	• 신나는 벨리댄스 공연으로 축제라는 주제와 부합함
참여성	5	• 밤 9시가 넘는 시간에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연들을 통틀어 관객이 가장 많은 공연이었음
신기성	4	• 벨리댄스는 약간의 노출이 남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아 무대공연이 아니면 쉽게 볼 수 없는 공연임
고유성	4	• 다양한 팀들이 다른 음악으로 다양한 공연을 보여주는 구성으로 지역축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공연임
의외성	4	• 솔로공연을 하였던 엄서빈은 세계대회에서 벨리댄스 1위를 기록한 전문가로써 모든 객석의 관객들이 넋을 잃고 공연에 몰입하게 만들었음

총 평

- 축제를 주제로 관객이 원하고 즐기는 것으로 보면 이 공연만한게 없었다고 생각됨
- 공연의 시간대도 중요하지만 전통과 축제의 주제성을 바탕으로 어떤 비율로 공연물을 무대에 올릴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농악대(아리마당)

	평점	평 가
	4	• 달맞이 농악대는 오죽헌 앞에서 정기적인 농악공연을 하는 여성단체로써 단오제의 전통성과 부합하는 주제임
참여성	4	• 평일 낮시간대에 이루어진 공연인 것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
신기성	4	• 지속적으로 공연을 해오던 공연팀이라 호응이 잘 맞고 무동들의 연기가 좋았음
고유성	5	• 강릉농악은 타 농악과는 다르게 농사짓는 과정과 내용을 흥내내어 재현하는 형태의 농사풀이가 판굿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11-4호로 고유성이 있음
의외성	3	• 모든 구성원이 여성이라는 것이 놀라움 • 상모를 능숙하게 돌리지 못함

총 평

- 강릉농악을 배우고 유지하며 상시 공연하는 팀으로써 여성들로 이루어짐
- 농악에서 대표적인 볼거리중 하나인 상모돌리기는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더좋은 공연으로 발전할 수 있길 기원함



■ (아리마당)

	평점	평가
	4	• 황병산 사냥민속은 평창지역의 전통을 재현한 공연으로 전통의 주제와 부합함
참여성	4	• 평일 낮시간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연기자들의 복장과 도구들에 호기심을 느낀 관람객들이 많이 참여함
신기성	4	• 산간지역의 겨울철 공동체 사냥을 재현한 공연으로 다른 공연들과 차별성이 있는 공연이었음
고유성	5	• 평창황병산 사냥민속은 이 지역의 의식주, 공동체 신앙, 사냥 관행 등 사냥민속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고유성이 있음
의외성	4	• 연기자들의 복장과 사냥하는 장면의 묘사는 매우 몰입도가 높았음

총 평

- 농악이나 관노가면극의 공연 횟수를 조금 줄이고 이와 같은 타 지역의 전통민속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게 공연의 다양성 측면에서 봤을 때 유리할 것임
- 공연전 공연의 이해를 돕기위해 팸플릿을 비치하고 공연이 끝난 뒤 회수해 가지 않아 그대로 쓰레기로 전락해버림



■ 전주기접놀이(아리마당)

	평점	평가
	4	• 옛 전주에서 한여름 백중날 17개 마을이 모여 5m 넘는 용깃발을 장쾌하게 휘두르며 대동축제를 벌이던 전주기접놀이를 무대공연으로 창작한 공연임
참여성	3	• 전주기접놀이에 대하여 시민들이 잘 몰라 관람객 참석이 저조함
신기성	3	• 강릉에서 전주의 기접놀이를 창작한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신기함이 있음
고유성	3	• 특별한 고유성을 찾기는 어려움
의외성	3	• 특별한 의외성을 찾기는 어려움

총 평

- 전주의 전통문화인 전주기접놀이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음
- 평일 오후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적어 아쉬움이 남음
- 타 지역의 전통문화를 다양하게 초빙하여 문화교류의 시간으로 강릉단오제를 즐길 수 있었음



■ 외도동민속보존회(아리마당)

	평점	평 가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외도동 민속보존회가 주관한 무대로 제주 해녀들의 삶을 엿 볼 수 있었음 •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주제성이 강릉단오제와 밀접함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였고, 공연 막바지 관람객들도 함께 나와 춤을 추었음
신기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해녀의 생활을 관람객에게 잘 전달함 • 제주의 방언을 사용해 그대로 사용
고유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전통과 역사, 삶의 애환 등이 고스란히 녹여있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보존회 시연 구성원들이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기 좋았음

총 평

- 다양한 연령층이 시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으며, 공연 막바지 관람객들도 함께 어우러져 춤추는 모습은 대동제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음



■ 관노가면극(아리마당)

	평점	평 가
	5	•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관노가면극은 강릉단오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음
참여성	3.5	•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지역 고유의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 • 관람객은 많은 편이 아니었으나 아이들과 한데 어우러진 연출 모습은 보기 좋았음
신기성	4	• 무언극이 관람객에게 전해지는 내용의 전달력이 꽤나 정확하게 전달됨
고유성	5	• 단오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고유성은 매우 높음
의외성	4	• 대학생들이 극을 시연하기 때문에 춤 사위나 행동들이 매우 역동적임

총 평

- 지역의 대학 및 학생들이 지역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으며, 향후 전문화된 가면극을 기대할 수 있었음



■ 인형극(단오제 전수교육관) (총 3회 공연)

	평점	평 가
	5	• 강릉단오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인 관노가면극을 인형극으로 보여줌
참여성	5	• 관람객들은 주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생들 단체 관람이 많았으며, 눈높이에 맞춰 인형극을 진행하며 호응을 잘 유도함
신기성	5	• 일반 관노가면극은 대사가 없는 무연극이었는데 이것을 인형극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어서 관람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 강릉사투리를 사용해 친근감 있게 다가옴
고유성	5	• 관노가면극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은 매우 높음
의외성	4.5	• 일반 가면극 못지 않게 인형극에서도 해학적인 모습을 잘 볼 수 있었음

총 평

- 강릉단오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인 관노가면극을 인형극으로 볼 수 있어 보다 쉽게 강릉단오제를 이해할 수 있었음
- 향후에는 인형극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제작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개발이 필요함



■ 2018 어르신 한마당 Gold Festival(단오제 전주교육관)

	평점	평가
	3	• 음악연주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어르신들의 종합 무대예술 공연
참여성	3.5	• 강릉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직접 공연에 참여 • 노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어 관객들 역시 노년층이 주를 이룸
신기성	3	• 어르신들만의 감성으로 문화예술 퍼포먼스를 시연
고유성	3	• 특별한 고유성은 발견하지 못함
의외성	3.5	• 어르신들의 노력이 공연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됨

총 평

- 강릉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종합예술공연으로 많은 연습과 준비한 기간이 긴 만큼 공연의 수준도 높았음
- 다만,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화가 필요함



■ (단오제 전수교육관)

	평점	평 가
	4	• 플룻 연주자체의 주제성에는 부합하나 강릉단오제와의 주제적 결연성은 다소 떨어짐
참여성	2.5	• 금요일 저녁 실내공연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참여가 매우 저조함
신기성	3.5	• 일반 시민들이 플룻연주를 들을 기회가 적는데, 강릉단오제를 통해서 문화경험을 할 수 있었음
고유성	2	• 다른 악기 공연들과 차별성있는 구성은 없었음
의외성	2	• 플룻의 선율에 마음이 편안해 지는 느낌을 받음

총 평

- 강릉단오제의 주제와 결연성이 적은 공연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관람객 역시 굉장히 적었음
- 만약 이러한 공연팀을 참여하게 한다면 강릉단오제와 연결할 수 있는 무대기획이 필요함



(3) 2018.06.16.(토) - 단오제 3일차

■ 꿈의 오케스트라(수리마당)

	평점	평 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제 3일차를 알리는 무대공연으로 2013년 창단한 오케스트라는 현재 12개 파트로 운영하고 있음 • 드림나눔 콘서트는 대중에게 익숙한 영화나 드라마 OST를 공연함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요일 오전 공연이어서 많은 관객들이 있지는 않았으나 공연하는 곡들은 대중적인 곡들 이어서 관람객들에게 친숙함을 보여줌
신기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숙한 음악들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시연되면서 특별한 차별성을 느낄 수 없었음
고유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 규모의 맞는 악기 배치 등으로 인해 공간적 제약이 따름
의외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평범한 진행과 연주를 보임

총 평

- 주말 첫 공연임에도 오전 공연이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
- 대중적인 곡 선택으로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함



■ 청소년 국악봉사단 다운(수리마당)

	평점	평 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모여 국악으로 따듯함을 나누는 단체임 •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이 시연하는 국악무대가 관객들의 호뭇한 미소를 보이게 함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향전이라는 대중적인 작품을 스토리텔링한 음악극으로서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극을 접하지 못한 관객에게는 새로운 퍼포먼스로 다가옴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이라는 콘텐츠를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젊은 관객들에게도 호응이 좋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시연하는 국악무대로서 새로운 모습의 국악을 선보임

총 평

- 점심시간 이후 공연으로 많은 관객이 참여함
- 공연을 위한 청소년들의 노력이 관객들에게 전해짐



■ (수리마당)

평점	평 가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시립예술단은 강원도 영동권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1992년 창단됨 • 매년 정기회, 찾아가는 연주회 등 60여회의 음악회를 개최 • 그러나 강릉단오제와는 주제성이 다소 떨어지고, 첫째날부터 매일 오케스트라 공연이 지속되어 관람객들에게 따분함을 줄 수 있음 	
참여성	3	• 프로그램 특성상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지만 호응도는 양호함
신기성	3	• 연속된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인해 새로움이 떨어짐
고유성	3	• 강릉단오제 축제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의외성	3	• 전반적으로 평범한 연주를 선보임

❖ 총 평

- 오케스트라 공연 자체는 고품질의 공연이었으나, 매일 지속되는 오케스트라 공연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흥미를 떨어지게 할 수 있음
- 이에, 오케스트라 외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이 필요함



■ 관노가면극(아리마당)

	평점	평 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노가면극은 단오제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음 • 강릉단오제와 주제성이 매우 잘 부합됨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시간 학생들 관련 관람객 외에도 많은 관람객이 참여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학생들만의 풋풋함을 느낄 수 있었음
고유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노가면극은 강릉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으로 타 지역에서 보기 힘들
의외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이 아닌 초등학교 학생들의 연기지만 연기력이 좋아 관객들이 몰입하여 보았고, 후반부 관객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

총 평

- 관노가면극은 다양한 단체들이 축제 기간 동안 시연을 하는데, 그 중 초등학교 학생들의 시연이 관람객들 호응이 가장 좋음



■ (아리마당)

	평점	평가
	5	• 단오제의 흥이 담긴 농악으로 그 주제가 단오제와 매우 잘 부합됨
참여성	4	• 관람객들의 직접적인 참여는 없지만 농악에 맞춰 관람객들의 흥을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었음
신기성	3.5	• 농악이나 강릉농악보존회의 존재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는 계기 마련
고유성	4	• 강릉의 단오절 행사는 그 역사가 깊은데 강릉농악 역시 그 역사가 깊기 때문에 강릉농악의 보존가치의 공유성은 매우 높음
의외성	3.5	• 강릉농악보존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향후 보존 및 지속가능한 공연이 기대됨

총 평

- 강릉 지역을 대표 할 수 농악공연으로 다수의 공연경험을 통해 관람객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음
- 직접 시연하는 보존회 사람들의 얼굴에서 자부심과 즐거움을 볼 수 있었음



■ (청소년) 관노가면극(아리마당)

평점	평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무형재 제13호로 지정된 강릉단오제의 대표 공연이라고 할 수 있음 • 관노가면극의 주된 이야기 구성을 충실히 수행함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하는 관람객의 호응을 적극적으로 유도 • 극 중 재미있는 상황을 관람객의 눈앞에서 시연함으로써 친근하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함 • 관노가면극 관람객 중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모임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언극으로서 특성을 놓치지 않고 잘 살림 • 무언극임에도 공연의 내용이 관람객에게 잘 전달됨
고유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제 기간 동안 1회 이상 관람할 수 있음
의외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의 가벼운 춤사위로 친근하게 다가옴 • 젊은 에너지가 관람객들에게 전해짐

총 평

- 청소년들의 젊은 에너지로 관노가면극의 생명력이 배가됨
- 많은 관노가면극 시연 중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모임



- , 대중민요에서 대중가요로 이어지다(단오제 전수교육관)

	평점	평가
	4.5	• 강릉아리랑에 대한 이해와 공연에 대한 해석이 함께 어우러짐
참여성	3.5	• 공연의 특성상 관람객이 직접 참여가 어려움
신기성	3.5	• 아리랑 및 강릉아리랑을 잘 모르는 대중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었음
고유성	3.5	• 아리랑 공연은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든 볼 수 있지만 강릉아리랑은 이 곳에서 볼 수 있어서 공연 자체의 고유성이 있음
의외성	4	• 아리랑을 통해 대중민요와 대중가요까지 이어지는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과 부연 공연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전수 및 홍보 공연형태를 보여줌

총 평

- 강릉아리랑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대중적인 접근이 돋보임
- 공연에 대한 해석풀이와 중간 사이에 공연이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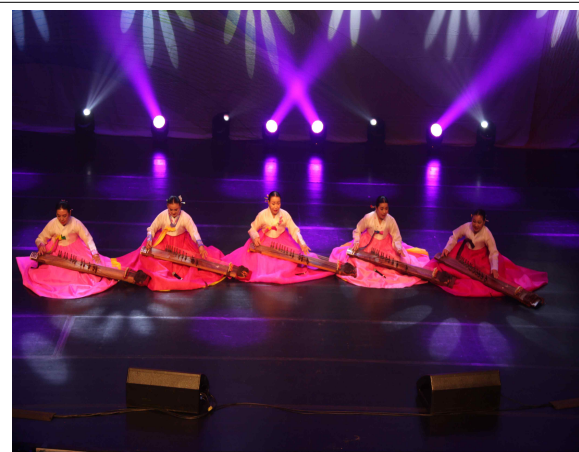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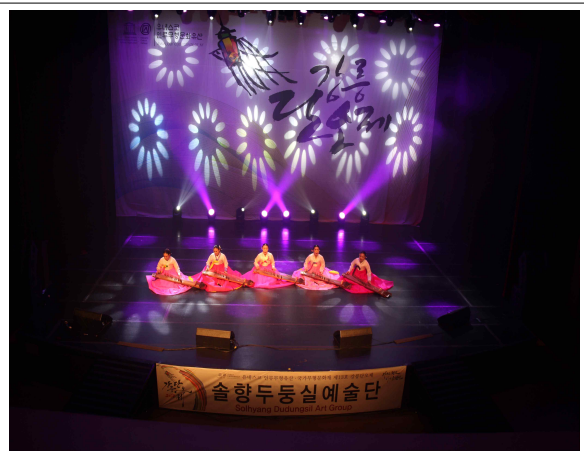


■ (단오제 전수교육관)

	평점	평 가
	3.5	• 가야금병창과 민요병창으로 우리의 소리를 담은 무대 구성
참여성	4.5	• 작년 야외 무대에서 단오제전수교육관 실내 무대로 이전함으로 관객의 집중도를 높여줌
신기성	4	• 공연자들과 무대연출이 잘 어울려짐으로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함
고유성	4.5	• 우리의 소리를 강릉단오제에서 감상할 수 있었음
의외성	4	• 대중성이 약한 가야금병창과 민요병창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의 호응이 매우 좋았음

총 평

- 전통음악으로 우리의 소리를 강릉단오제에서 볼 수 있었음
- 단오와 관련된 가야금병창과 민요병창이 있었다면 주제의 부합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됨



■ 길놀이

	평점	평 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시 21개 읍면동 주민들이 단오를 맞이해 모두 나와 즐기는 길놀이로 단오제의 전통성과 축제성 모두 부합하는 행사임
참여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읍면동에서 오늘을 위해 준비한 각종 소품들과 조형물들을 이끌고 동네 깃발을 들고 적게는 10명 내외에서 많게는 30명 가까이 길놀이에 참여함 관람객들은 연신행차가 지나가는 도로 가에 빼곡이 들어서 있었으나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는 참여가 저조했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성있는 차림새와 조형물로 자신들의 동네를 외치며 흥에겨워 춤추며 퍼레이드 하는 모습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지역의 축제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퍼레이드를 하고 있으며 신통대길 길놀이의 퀄리티는 타 지역축제보다 다소 떨어지는 느낌임 진주강남유등축제의 길놀이를 보면 각 주민자치단체의 대표 캐릭터를 조형화하여 불을 밝혀 더욱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냄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퍼레이드가 끝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흥에 연주하는 농악과 추는 춤들이 강릉단오제의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킴

 총 평

- 신통대길 길놀이는 강릉단오제의 행사프로그램 중 축제 주체가 되는 각 주민자치단체 위원 및 참여자 뿐만 아니라 강릉시민, 관광객 모두가 하나가 되어 즐길 수 있는 대표행사임
- 하지만 각 주민자치단체의 행정주도의 준비 때문인지 몇몇 팀은 소극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각 주민자치단체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소품들도 깃발, 현수막, 의상이 대부분이었음
- 현수막도 동네의 특징을 홍보 또는 인지하기 위한 수단일 수는 있지만 다른 지역의 길놀이들을 벤치마킹하여 길놀이의 수준을 강릉단오제 이름에 걸 맞는 수준으로 고도화 시킬 필요가 있음



(4) 2018.06.17.(일) - 단오제 4일차

■ 청소년 예술단(수리마당)

	평점	평 가
	4.5	• 한국 전통무용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한 눈에 볼 수 있었음
참여성	3.5	• 프로그램 특성상 관객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호응도는 좋았음
신기성	4	• 태평무, 풀룻양상블, 청소년합창단 등 다양한 공연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색다르게 느껴짐
고유성	4.5	• 태평무 등 전통 가무에서 큰 고유성을 지니고 있음
의외성	4	• 관객 중 젊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귀한 무대였음

총 평

- 태평무, 풀룻양상블, 청소년합창단 3가지 각각의 공연이 하나로 잘 어우러지는 기획력이 돋보임



■ 강릉스쿨

	평점	평가
	3.5	• 링컨하우스 강릉스쿨은 인도, 남미 등 다양한 나라의 춤을 청소년들이 시연하는 무대임
참여성	3.5	• 프로그램 특성상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음
신기성	4	• 인도, 남미 등 다양한 나라의 춤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시연하는 모습이 신기함
고유성	4	• 청소년들의 에너지를 춤에서 느낄 수 있었으며,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달됨
의외성	4	•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른나라(인도, 남미 등)의 춤을 연습하여 시연하는 모습이 의외의 신선함을 선사함

총 평

- 강릉지역 청소년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음
- 춤을 통한 타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강릉단오제가 세계화로 가는데 이바지함



■ 제 22회 청소년 가요제 & 2018 청소년 댄스페스티벌(수리마당)

	평점	평가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가요제라는 주제에 맞게 강릉을 포함한 강원도 전역에서 모인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무대였음 • 참가한 청소년들의 실력이 높아 가요제의 품질을 높여줌
참여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요제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 • 관객과 참여자가 공연을 함께 즐기는 모습이 열정적이었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들의 실력이 뛰어나 관객들에게 공연 몰입도를 높일 수 있었음
고유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별로 무대구성이 관객들로 하여금 무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줌
의외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중간 사회자의 재치와 공연자들의 실력이 예상외로 높았음

❖ 총 평

- 강원도 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수준의 공연을 볼 수 있었음
- 무대 진행이 원활하고, 음향효과 역시 전문가수 못 지 않았음



■ (아리마당) (총 3회공연)

	평점	평 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지역의 대표적인 농요로서 단오제에서 공연을 통해 그 주제성을 잘 담았음 • 다수의 공연 경험을 통해 공연 구성력이 매우 좋음
참여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를 하며 불렀던 농요로서 실제 농부들이 직접 시연함으로써 리얼리티를 살려 극대화함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를 심는 과정과 생소한 농기구를 사용하는 모습이 신기함 • 옛날 우비를 입고 김매기를 하는 모습 등은 인상 깊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날 농기구부터 각종 소품이 잘 준비되었음 • 시연하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 지켜보는 관람객들에게도 행복감을 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는 기계화로 인해 농촌에서도 잘 볼 수 없는 농기계와 농요를 볼 수 있어서 좋았음

총 평

- 예전 농경사회가 주를 이루던 우리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시연하는 모습은 노년층에게는 추억을 젊은층에게는 교육을 줄 수 있는 유익한 공연이었음



■ (아리마당)

	평점	평 가
	4.5	• 전통 농악공연으로 단오제의 전통성과 부합되는 주제임
참여성	4	•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이 참여 • 직접참여는 어려우나 농악 자체를 관람객들이 즐김
신기성	3.5	• 도시에서는 보기 어려우나 농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농악공연으로써 의의가 있음 • 주민자치단체의 시민들이 직접 연습하고 시연하기 때문에 전문성은 다소 떨어짐
고유성	3.5	• 강릉단오제 뿐만 아니라 타 축제 및 다양한 행사에서 볼 수 있는 공연임
의외성	3	• 평범한 풍물공연이었음

❖ 총 평

- 농악을 통해 축제의 분위기를 밝게 조성함
- 전문 공연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직접 연습하고 시연하는 모습에서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음



■ 관노가면극(아리마당) (총 5회 공연)

	평점	평 가
	5	• 단오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보존회의 관노가면극은 시연하는 극 중 가장 전문성을 지니고 있음
참여성	5	• 극 중간중간에 관람객들이 함께 춤을 추기도 하고, 관노가면극의 캐릭터들이 관람객 사이사이에서 극을 진행
신기성	4	• 관노가면극은 무언극으로 기존의 연극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 대사 없이 극의 이해가 가능하도록하는 연기자들의 연기력이 매우 중요함
고유성	4.5	• 우리나라 많은 탈놀이 중 강릉에 유일한 무언가면극으로 그 고유성을 보여줌
의외성	4.5	• 관람객들과 조화롭게 극을 진행하는 기획력이 돋보임

❖ 총 평

- 다양한 관노가면극 중 보존회의 관노가면극은 가장 전문성이 높은 가면극임
- 가면극이나 무언극 경험이 없는 관람객에게도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연기자들의 연기력이 매우 좋음



■ 24회 강릉단오제 사물놀이경연대회(단오제 전수교육관)

	평점	평 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의 다양한 사물놀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음 • 단오제의 근본적인 의미인 농사와 관련된 주제성이 부합됨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 • 단오제 전수교육관에서 진행함에 있어 공간적 제약이 있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물놀이팀을 볼 수 있었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의 사물놀이 등 다양한 지역의 사물놀이를 그 지역에서 전수하고 지키는 고유한 우리 문화임
의외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오픈무대에서 시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됨

총 평

- 강릉의 사물놀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실내에서 진행되는 바람에 공간적 제약이 있었음
- 내년 행사 때는 외부진행으로 공간 활용이 용이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5) 2018.06.18.(월) - 단오제 5일차

■ (수리마당)

	평점	평 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의 토속민요인 영산홍가의 가사와 춤을 화려하게 표현하며 강릉단오제와 잘 어울림 특히 관노가면극에 등장하는 소매각시의 이미지를 가져와 산대놀이와 매칭하여 무용화함
참여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년층 관람객을 비롯해 다양한 관람객이 가득했음 강릉지역 40~50대의 여성들로 구성된 무용단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상, 소품 등 다채로운 준비를 통해 보는 즐거움이 있었음 이에 걸맞은 음악연출도 좋았음
고유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무용을 선보이는 자원봉사단의 공연으로 고유성이 있음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임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시민으로 구성된 무용단으로서 높은 기대감이 없었으나 높은 수준의 공연을 보여줌 단오를 알리는 공연 구성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단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

총 평

- 강릉 토속민요를 잘 표현하였고, 음악, 의상, 소품 등의 활용을 통해 완성도가 높은 공연을 선보임



■ (수리마당)

	평점	평가
	4	• 라틴 타악기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 콘텐츠를 시연
참여성	4	• 역동적인 리듬으로 클래식, 재즈, 동요,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연 • 많은 관객들이 흥미 있게 공연을 관람함
신기성	4	• 우리나라가 아닌 라틴 국가의 악기를 활용한 공연이 관객들에게 생소할 수 있으나 흥미를 유발함
고유성	3.5	• 한국의 전통악기와 비슷한 음색과 리듬을 지니고 있음
의외성	3.35	• 처음 듣는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관객이 재미있어함

총 평

- 타 국가의 악기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흥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 공연임



■ 25회 강릉사투리경연대회(수리마당)

	평점	평 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 사투리를 겨루는 대회로 25년째 대회가 진행되고 있음 강릉단오제의 인기 프로그램임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 주민들 위주로 이루어지며, 대회 참가자들이 만담, 상황극 등을 사투리로 연기해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음
신기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소재의 극이 준비되어 있고, 다수의 참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연기는 매해 연기력이 높아지고 있음
고유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 주민들의 생활과 고민들을 사투리를 통해 엿볼 수 있음 사투리를 즐기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1년 동안 이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음
의외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 아이들이 참가해 사투리로 동화구연을 하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냄 경연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관람하는 사람 모두 즐거워하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임

총 평

- 강릉단오제 기간 중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많은 방문객이 기대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와 호응도가 굉장히 좋음



■ 37회 KBS사장기 농악경연대회(아리마당)

	평점	평 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의 다양한 농악대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음 • 단오제의 근본적인 의미인 농사와 관련된 주제성이 부함됨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 •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농악대를 볼 수 있었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의 농악 등 다양한 지역의 농악을 그 지역에서 전수하고 지키는 고유한 우리 문화임
의외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도가 매년 항상 높은 프로그램임 • 매년 수준이 향상하고 있음

총 평

- 강릉의 농악대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음
- 서서 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였지만, 오랜 시간 공연이 지속되면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용물달기(아리마당)

	평점	평 가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건금마을에서 물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정월대보름때 마을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안녕을 빌던 전통 문화행사임 물을 관장하는 용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우제' 성격을 지니고 있음
참여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 막바지 부분 관람하던 관객들이 모두 나와 공연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놀면서 공연을 마무리
신기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물달기라는 문화가 특색이 있고, 그 행위 속에 용이라는 신비한 동물이 함께하여 신기성을 배가 시킴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의 안녕을 위해 정월대보름때 마을 주민들이 하나로 모여 우물에 용을 담가 놓고 지내던 행사가 지역의 특색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음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물달기 자체에 의외성이 있고, 농경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줌

총 평

- 강릉의 특색있는 농경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
- 건금마을 주민들이 공연을 직접 기획, 준비, 시연하는 정성이 관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됨



■ 뮤지컬(단오제 전수교육관) (총 2회공연)

	평점	평가
	5	• 강릉단오제를 남녀노소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가족뮤지컬로 탄생시킨 작품
참여성	4	• 아이를 동반한 관람객들이 많이 참여 • 프로그램 구성상 직접 참여는 한계가 있음
신기성	4	• 강릉단오제를 알리는 새로운 수단으로 뮤지컬을 활용
고유성	4	• 강릉단오제의 고유성을 지키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시키는 방법이 매우 흥미로움
의외성	4	• 뮤지컬로 구성한 강릉단오제를 통해 어린 아이들까지 강릉단오를 알릴 수 있었음

총 평

- 새로운 공연 콘텐츠를 강릉단오제와 접목시켜 다양한 계층에게 강릉단오제를 홍보할 수 있어 매우 좋은 공연 콘텐츠임
- 다양한 이야기를 구성하여 시리즈물 구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단오제 전수교육관)

	평점	평 가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의 마술사가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마술 공연을 선보임 • 강릉단오제와는 주제성이 다소 결여됨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술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관람객의 참여도가 매우 높음
신기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들에게 마술을 통해 신비한 시간을 선사함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술이라는 공연 자체의 고유성은 매우 높으나 강릉단오제 외에도 접할 수 있음
의외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이한 마술공연이었음

총 평

- 마술이라는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신비함과 관객들과의 호흡은 매우 좋으나 강릉단오제와는 주제성 부분에서 동떨어진 콘텐츠임
- 향후에는 마술 공연 내 강릉단오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획력이 필요함



■ (단오제 전수교육관)

	평점	평 가
	5	•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임
참여성	3.5	• 프로그램의 특성상 관람객의 참여는 한계가 있음
신기성	4	• 청, 홍, 황, 흑, 백 다섯 가지의 색상이 화려함이 무용의 매력을 배가 시킴
고유성	4	• 처용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강릉단오제와 함께 재해석한 점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의외성	3	• 처용무에서 큰 의외성을 발견하지는 못함

총 평

- 일반인들에게 접하기 어려운 처용무를 강릉단오제를 통해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가치가 있음



■ (단오제 전수교육관)

	평점	평 가
	3.5	• 판소리 자체의 주제성은 분명하나 강릉단오제와의 접착점은 낮음
참여성	3.5	• 프로그램 특성상 관람객의 참여는 한계가 있음
신기성	3.5	• TV나 타 축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판소리를 접할 수 있어 흥미는 다소 떨어짐
고유성	4	• 판소리 자체의 고유성은 매우 높음
의외성	2.5	• 판소리를 통해 의외성을 발견하지는 못함

총 평

- 대표 판소리 공연과 더불어 강릉단오제를 활용한 판소리를 함께 불러줌으로 공연의 콘텐츠 확대가 필요함



■ (단오제 전수교육관)

	평점	평가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꿈박물관 노가니경로당팀은 80세면 청춘이다라는 모토로 극의 준비부터 시연까지 모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음 • 모의재판 이루다 꿈은 조선시대와 현대 모의재판이 어우러지는 내용으로 유교적 관념이 주는 판결과 현대의 가치관의 차이를 생각하게 하는 코믹극임
참여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의 장르 특성상 관객의 참여가 어려움 • 중간 공연을 시연하는 배우들의 호응유도는 좋음
신기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들의 문화프로그램으로서는 가치가 매우 높으나 강릉단오제와의 연계성은 다소 떨어짐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가니경로당팀에서 직접 기획하면 시연한 프로그램으로서 극의 구성은 매우 좋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믹극의 특성상 중간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웃음을 선사

총 평

- 실내 공연으로서의 가치와 극의 연출, 출연자의 의미는 좋으나 강릉단오제와의 개연성은 다소 떨어짐



(6) 2018.06.19.(화) - 단오제 6일차

■ 윈드오케스트라(수리마당)

	평점	평 가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관악·타악 연주자들로 조직되어 있으며, 웅장하고 섬세한 곡을 연주 • 강릉단오제와는 주제성이 다소 떨어짐
참여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공연으로 관람객 참여가 저조하였음
신기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오케스트라연주를 들었으므로 흥미가 다소 떨어짐 • 대중적인 선곡이 아니어서 관람객들의 흥미가 다소 떨어짐
고유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 규모에 맞는 악기 배치 등으로 인해 공간적 제약이 있음
의외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평범한 진행과 연주였음

총 평

- 오케스트라 연주도 좋으나 강릉단오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공연의 확대가 필요하고, 오케스트라 연주 시 대중적인 선곡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수리마당)

	평점	평가
	4.5	• 거꾸로프로젝트는 전통음악을 텍스트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결합을 결합한 공연임
참여성	3	• 평일 공연으로 관람객 참여가 저조함
신기성	4.5	• 다양한 국악기를 활용하여 초연곡인 '비나이다'를 연주
고유성	4.5	• 국악공연이 가지고 있는 전통성이 있음
의외성	3	• 전반적으로 평범함

총평

- 국악연주라는 콘텐츠가 관람객에게 주는 따분함을 넘어선 공연이었음



■ 정선군아리랑예술단(수리마당)

	평점	평 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선아리랑은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호로 아리랑 중 유일하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한국의 중요한 전통문화로서 적합한 프로그램임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객들이 실제 공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연자들이 공연 중간 막걸리를 직접 들고 관람객에게 전해주며 함께 참여함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선아리랑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며 즐길 수 있었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네스코와 무형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만큼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 있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정선아리랑을 따라 부르는 것은 정선 아리랑이 정선을 넘어 전국적인 아리랑임을 확인함

총 평

- 다양한 종류의 아리랑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였으며, 정선아리랑을 하나의 극으로 엮어서 공연한 것이 새로움



■ 소리극 울어머이 왕산택(수리마당)

	평점	평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아리랑보존회에서 강릉지역에서 불리우던 강릉아리랑의 복원과 전승을 위해 2013년 극단을 창단, 2017년 왕산택의 강릉아리랑에 이은 후속작품임 강릉단오제와 강릉아리랑의 복원 및 전승, 연극적인 소재까지 첨가되어 축제의 주제성을 잘 나타내고 있음
참여성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단의 단원들은 강릉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극의 주제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관객의 공감을 충분히 얻었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기와, 노래, 강릉 왕산이라는 지역성까지 한데 어우러져 관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보여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는 이로 하여금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극을 시연함으로써 강릉아리랑 소리의 고유성이 더해짐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아리랑 소리를 통해 강릉 어머니의 삶의 애환을 잔잔하게 풀어내는 것이 좋음

총 평

- 강릉 아리랑을 중심으로 만든 창작극으로서 다양한 극의 전개와 소리가 관객의 흥미를 충분히 유도함



■ (수리마당) (총 2회공연)

	평점	평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단오의 지정 문화재 ‘굿’을 현대적인 무대공연으로 재해석함 • 전통과 현대가 마나는 단오제를 잘 담아냄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굿을 어색해 하던 젊은 층, 종교적 관객들도 편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제단에서 시행하던 ‘굿’과는 다른 색다른 예술적 무대로서 관람이 가능함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전통성과 강릉단오제에서만 볼 수 있는 희소성이 더해져 큰 고유성을 지님
의의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굿이 종교적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적 가치가 더해지면서 대중성이 있는 공연콘텐츠로의 가능성을 보여줌

총 평

- 단오제와 단오굿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한 앞으로가 기대되는 공연 콘텐츠
- 공연의 기획력을 확대하여 향후 대중에게 더욱 친밀한 단오제와 단오굿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오독떼기(아리마당)

	평점	평 가
	5	• 강릉학산오독떼기는 강원도무형문화재 5호로서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임
참여성	5	• 초등학생이 시연하는 공연으로 가족단위 관람객이 대부분이었음 • 노년층은 초등학생들의 공연을 보면서 매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음
신기성	4	• 노동요를 성인이 아닌 초등학생들이 시연하는 것이 신선하고 독특함
고유성	4.5	•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농요로 고유성이 뛰어남
의외성	3.5	• 아이들의 노력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극의 구성력이 뛰어나서 놀람

총 평

- 아이들을 통해 전해지는 노동요는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농요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됨
- 성인들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아이들의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좋았음



■ 관노가면극(아리마당)

	평점	평 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노가면극은 단오제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음 • 강릉단오제와 주제성이 매우 잘 부합됨
참여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시간 학생들 관련 관람객 일부만 있어 저조하였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학생들만의 풋풋함을 느낄 수 있었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노가면극은 강릉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으로 타 지역에서 보기 힘들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이 아닌 중학교 학생들의 연기지만 연기력이 좋아 관객들이 몰입하여 보았고, 후반부 관객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

총 평

- 중학생들의 관노가면극 공연이 성인 가면극 못 지 않게 연기력이 출중함
- 많은 가면극 공연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먼지가 많았음



■ (아리마당)

	평점	평 가
	4	• 타 지역의 노동요를 강릉단오제를 통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임
참여성	4	• 농사를 하며 불렀던 노동요로 강릉 외 타 지역의 문화를 비교할 수 있었음 • 강릉 시민들이 관심 있게 공연을 지켜봄
신기성	4	• 공연자 1명이 사투리로 노동요를 설명하는 부분과 나머지 공연자들이 후창으로 함께 부르는 모습이 노동을 위한 단합의 중요성을 보여줌
고유성	4	• 경상도 무형문화재 제2호로 등록되어 있어 그 고유성을 간직하고 있음
의의성	4	• 우리지역의 노동요와 타 지역의 노동요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 옛날 농사기계도 지역의 차이를 볼 수 있었음

총 평

- 농사를 하는 긴 시간동안 선조들이 일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 노동요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
- 강릉과 타 지역의 노동요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였음
- 이 후 안동 외 타 지역을 초청하여 지속적으로 비교·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 (아리마당)

	평점	평 가
	5	• 농악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한국적인 특색이 잘 나타남
참여성	4.5	• 평일 오후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이 참여함 • 직접 참여하는 부분은 없음
신기성	4	• 강릉지역 마을마다 농악을 사랑하고 그 기량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음
고유성	4	• 농악 자체가 갖는 문화적 고유성은 큼
의외성	3.5	•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함으로써 농악의 지속적인 보존이 매우 기대됨

총 평

- 강릉지역 마을마다 농악실력이 매우 뛰어남을 알 수 있었으며, 다양한 연령층이 공연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



■ (아리마당)

	평점	평가
	4.5	• 인천 부평의 평야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인천의 농악공연
참여성	4.5	• 관객이 많이 참여 하였으며, 공연 도중 직접 참여를 유도하기도 함
신기성	4	• 일반적인 농악을 비롯한 타 지역의 농악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됨 • 강릉농악대와 비교했을 때 젊고 현대적인 농악단임
고유성	4	• 농악이 가지고 있는 고유서는 높음
의외성	4	• 농악을 진행하면서 텀블링 등 공연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퍼포먼스가 좋았음

총 평

- 강릉지역 외 타 지역의 농악을 볼 수 있는 좋은 공연이었음
- 강릉과 다르게 생동감 있고 현대적인 해석이 특징이었으며, 공연 중간 관객들을 참여 시키는 모습이 이상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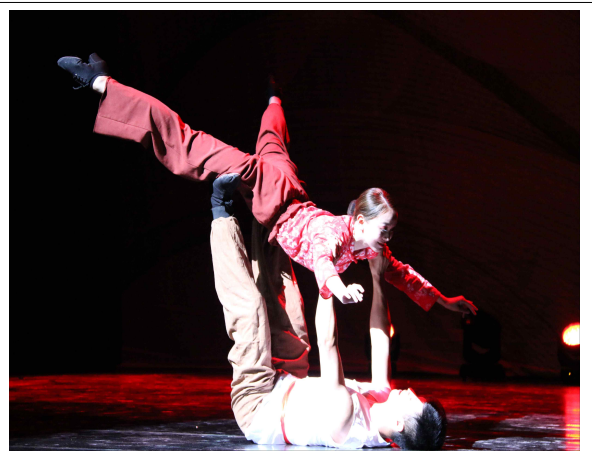


■ (단오제 전수교육관)

	평점	평 가
	3.5	• 강릉단오제에서 중국사천성 청년문화교류단 공연아 가지는 의미는 크지 않음
참여성	5	• 단오제 기간 중 단오제 전수교육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참여함
신기성	4	• 천극, 무술, 댄스, 악기연주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구성 • 천극의 경우 우리나라 탈춤과 비슷한듯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매력적임
고유성	4	• 강릉단오제와는 10여년에 걸쳐 교류를 이어오면서 고유성을 이어가고 있음
의외성	4	• 천극과 무술 등은 강릉단오제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 중 관람객의 시선을 잡는데 1순위로 할 수 있음

총 평

- 강릉단오제와의 주제성은 떨어지나 10여 년 동안의 교류를 통해 타 국가 문화 예술 공연을 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임
- 예상 외의 관람객 참여도가 높아 향후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함



■ 발표회 (단오제 전수교육관)

	평점	평가
	4	• 단오제라는 전통문화를 포함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주제성은 부여됨
참여성	2.5	• 강릉 시민 중심의 발표회로 발표자들은 적극적임 • 하지만, 평일 오후시간 실내 공연으로서 관람객은 매우 저조함
신기성	3	• 전문 공연인이 아닌 시민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으로 전문성은 다소 떨어지나
고유성	3	•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와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의의가 있음
의외성	2	• 별다른 의외성은 발견되지 않음

총 평

-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발표회를 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나 홍보 등의 부족으로 관람객의 참여가 저조함



(7) 2018.06.20.(수) - 단오제 7일차

■ -꾼(수리마당)

	평점	평가
	4	• 한국의 전통을 바르게 알고 알리고자 하는 예술인들의 모임으로 강릉단오제의 주제성과 연관성이 있음
참여성	4	• 관람객의 직접 참여는 어려우나 평일 점심시간 이후 공연임을 감안하면 많은 관람객이 관람함
신기성	4	• 강릉시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태평무 군무와 타악기를 이용한 민속춤은 보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신명과 화합을 이끌어내기 충분함
고유성	4	• 한국 전통을 바르게 전수하고자 하는 고유성이 있음
의외성	2	• 별다른 의외성은 발견되지 않음

총 평

- 우리나라 전통 무용과 타악기 연주를 통해 관람하는 관객들의 흥을 올릴 수 있었음
- 강릉시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공연의 주제성이 좋음



■ 느닷컴퍼니(수리마당)

	평점	평 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단오제의 흥을 사물놀이를 통해 배가 시킴 • 젊은 예술인들이 사물놀이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줌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의 직접 참여는 없으나 사물놀이 고유의 특성인 흥의 극대화를 통해 관람객이 즐거워함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물놀이보다 한층 젊은 예술인들의 모습에서 사물놀이가 젊어진 모습을 느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놀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은 매우 높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놀이 중간 소원빌기를 관람객들이 직접 나와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총 평

- 다양한 사물놀이 공연 중 가장 젊은 사물놀이패를 본 듯함
- 이 후에도 젊은 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좋을 거 같음



■ (수리마당)

	평점	평가
	5	• 한국 전통 무용을 중심으로 댄스스포츠 공연까지 현대적인 감각으로 조화로운 무대 구성임
참여성	3.5	• 프로그램 특성상 관람객 참여는 한계가 있었으며, 관람하는 관람객들도 상대적으로 정적인 무대공연에 흥미는 다소 떨어짐
신기성	4	• 서양 음악인 Let it be를 국악으로 연주한 것은 흥미로웠음
고유성	4	• 국악과 한국무용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은 매우 높음
의의성	4	• 서양음악을 국악으로 재해석한 무대와 전통 국악과 무용이 하나로 어우러진 품격 있는 무대였음

총 평

- 공연 콘텐츠 자체의 매력은 매우 높으나 관람객의 참여가 저조함
-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샤하르(수리마당)

	평점	평 가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에 창단된 공연단체로서 발레기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용장르와 연극, 음악 등을 종합퍼포먼스로 표현 • 인간과 호랑이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기를 춤과 노래, 연극 등의 무대기법을 통해 연출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춤뿐만 아니라 마살아츠를 접목한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의 흥미를 유도 • 관객들이 매우 흥미로워 함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단오제에 공연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었던 활동성이 강한 공연이었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음악적 요소가 가미된 퍼포먼스가 이색적임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사가 따로 있는 공연이 아니였음에도 호랑이와 사람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잘 표현하였음

총 평

- 강릉단오제의 주제성에서는 벗어나지만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충분한 퍼포먼스와 공연 기획력이 돋보임



■ (아리마당)

	평점	평 가
	4	• 우리나라 단오 세시풍속과 전통혼례가 잘 어울림
참여성	3	• 평일 오전에 시행된 행사로 관람객 참여가 저조함
신기성	4	• 다문화가정이 혼례의 주인공을 참석해 남다른 의미가 부여됨 • 혼례를 수지 않고 시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문별 해석을 하면서 시행함
고유성	4	• 전통혼례 자체만으로 고유성은 충분함
의외성	3	• 별다른 의외성은 발견되지 않음

총 평

- 강릉단오제와 우리나라 전통혼례를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시연한 것은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나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젊은층도 전통혼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길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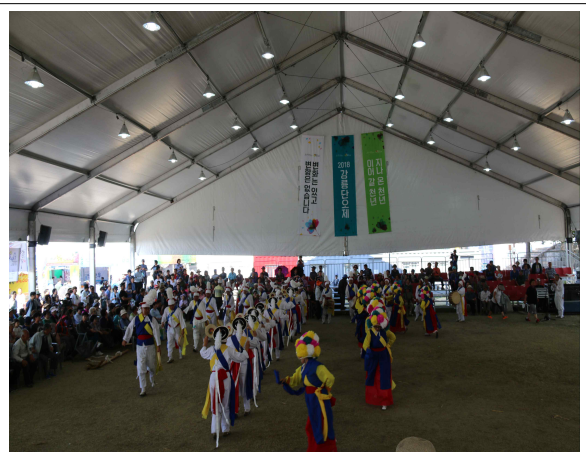


■ (아리마당)

	평점	평 가
	5	• 풍년을 기원하는 단오제와 농악은 주제성이 매우 밀접함
참여성	4	• 관람객들이 ㄷ자 모양으로 농악대를 둘러싸를 정도로 많은 관람객이 참석함
신기성	3.5	• 강릉 중심의 영동농악의 특색을 잘 보여줌
고유성	4	• 풍년을 기원하는 농악은 자체만으로 그 고유성을 유지하고 있음
의외성	3.5	• 사천농악대의 경우 시연자 대부분이 노인층으로 향 후 공연의 지속성이 걱정됨

총 평

- 농악대의 공연은 언제나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화합을 가져옴
- 사천농악대는 다년간 공연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전문적인 공연이 가능하나 공연자들이 연로함에 따라 향 후 지속적인 공연을 위해 전수자가 필요할 듯함



■ 51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단오제 전수교육관)

	평점	평 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9년부터 이어 온 전통 있는 행사임 • 전통성과 민속성에 부합하는 주제임
참여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단위 행사로 많은 팀들이 참여하였으나 관람객이 참여가 적음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조를 직접 반주하며 노래하는 모습이 신선함
고유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조경창대회 자체의 고유성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조를 읊는 행위에 대해 호기심이 없다면 몰입하기 어려움

총 평

- 우리나라 전통 시조를 읊으며 계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여건을 강릉단오제를 통해 준비한다면 향후 시조경창대회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음



(8) 2018.06.21.(목) - 단오제 8일차
 ■ 사랑방(수리마당)

	평점	평가
	4	• 강릉의 지역 동아리 활동으로 민요, 가야금 병창, 한국 무용을 선보임
참여성	3	• 관람객이 참여에는 한계가 있고, 마지막날 오전 첫 공연이어서 관람객 참여가 저조함
신기성	3.5	• 청춘가를 부르는 부분에서 관람객중 연세 많으신 관람객들이 따라 부르는 것을 보고 신선했음
고유성	3.5	• 우리가락을 표현하는데 그 고유성을 들 수 있음
의외성	3	• 초반에는 관람객이 적었으나 지나가는 관람객을 잡을 수 있는 소리의 힘이 있었음

총 평

- 강릉시민이 연습하여 시연하는 전통활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수리마당)

	평점	평가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탈북한 예술인들이 중심되어 현대무용과 거창, 연주 등을 시연 • 강릉단오제 주제성과는 다소 결연성이 떨어짐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적 흐름에 맞춰 평양민속예술단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많은 관람객이 참여함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하는 예술인단이 대부분 여자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음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민요, 무용, 연주 등을 자주 볼 기회가 없는 주민들에게 좋은 공연이었음
의외성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총 평

- 평양민속예술단 공연을 통해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와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 남한과는 다른 듯 닮은 무대연출과 노래 등은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옴



■ (수리마당)

	평점	평 가
	3	• 강릉단오제와의 주제성은 크게 관련성이 없음
참여성	4	• 평균 연령 70세 어르신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함 • 관람객의 직접 참여에는 한계가 있음
신기성	4	• 어르신들로 구성된 악단이었지만 연주 실력은 수준급이었음
고유성	3	• 별다른 고유성을 찾기는 어려움
의외성	3	• 특별한 의외성은 없음

총 평

- 어르신들이 연주하는 악단 중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악단이며, 그 명성에 맞는 수준급의 연주였음
- 어르신들의 가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관람객들이 함께 참여함



■ 관노가면극(아리마당)

	평점	평 가
	5	• 단오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보존회의 관노가면극은 시연하는 극 중 가장 전문성을 지니고 있음
참여성	3	• 마지막날 공연으로 관람하는 관람객이 현저하게 없음
신기성	4	• 관노가면극은 무언극으로 기존의 연극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 대사 없이 극의 이해가 가능하도록하는 연기자들의 연기력이 매우 중요함 • 대학생들만의 또 다른 매력으로 관노가면극을 표현
고유성	4.5	• 우리나라 많은 탈놀이 중 강릉에 유일한 무언가면극으로 그 고유성을 보여줌
의외성	4.5	• 관람객들과 조화롭게 극은 진행되는 기획력이 돋보임 • 대학생들이 가벼운 몸놀림으로 친근하게 표현함

총 평

- 많은 관노가면극 중 가장 혈기왕성한 관노가면극이었음
- 어린아이들과 친밀하게 어울려 극을 진행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



■ 제 6회 전국민요경창대회(단오제 전수교육관)

	평점	평가
	4	• 우리 민요를 배우고 익힌 사람들의 경합을 겨루는 대회
참여성	4	•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로 대회의 품격을 확대함
신기성	4	• 어린 참가자들도 상당수가 보여 우리 민요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음
고유성	4	• 강릉단오제가 우리 전통 민요를 보전하고 계승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의외성	4	• 젊은 참가들이 많았으며 참가자들의 실력이 수준급이었음

총 평

- 강릉단오제가 우리 전통 민요를 전승하고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앞으로 우리 전통 민요를 지속적으로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홍보 등의 유인책이 필요함
- 마지막날 행사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관람객이 찾아옴



4) 2018 강릉단오제 상시 프로그램

(1) 체험 프로그램

① 맛보기

	평점	평 가
	4.5	• 수릿날 먹는 수리취떡에 대한 의미를 알고 이를 직접 떡살에 찍어 보는 체험 활동
참여성	4.5	• 떡 문양이 만들어 지는 원리와 수리취떡을 왜 만들어 먹는지를 알 수 있어 좋은 체험 활동이 됨
신기성	4	• 어린아이들 남녀노소 모두 한 번 해보고 싶어 하는 활동이었으나 유·아동에게 한정되어 있어서 아쉬웠음
고유성	4.5	• 단오 날 먹는 고유 떡을 직접 만들어 보고 먹어 볼 수 있는 전통 문화체험
의외성	4	• 유·아동으로 한정되어 있는 체험으로 체험해보고 싶어 하는 어른들도 많았음 • 외국인 방문객 등이 늘어나고, 우리 문화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체험 연령층을 유·아동으로 한정짓지 말고 체험을 연령층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됨



② 맛보기

	평점	평 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 시민들이 기부한 쌀로 빚은 단오신주를 맛보는 것은 단오날 필수 체험임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가 끝날 때까지 높은 참여율을 보임 이번 체험 마당의 공간이 넓어져 신주 체험을 위한 줄이 질서 정연하였음
신기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단오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강릉단오신주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함께 마시는 사례가 많았음 강릉단오신주를 직접 구매하고자 하는 방문객이 많았음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쌀을 봉헌하여 만든 강릉단오신주는 강릉단오제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강릉단오제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함 강릉단오신주는 강릉단오제를 대표하는 대표 브랜드 중 하나임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를 마칠 때까지 단오신주 시음을 위한 줄이 줄어들지도 않음 술임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음



③

	평점	평 가
	5	• 예부터 단옷날 창포물로 머리를 감았던 우리 조상들의 풍습을 따르는 창포물 머리감기는 단옷날 체험 할 수 있는 전통 문화체험임
참여성	4	• 창포의 시원한 향에 이끌려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함 • 외국인들도 더운 날씨에 참여를 함
신기성	5	•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을 뿐인데 머리카락이 린스를 한 것처럼 부드러워짐 • 조상들의 지혜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임
고유성	4	• 전통성과 역사성을 가지는 고유한 체험임
의외성	4	• 체험을 하는 자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불편하여 선뜻 체험에 임하기가 쉽지않음 • 허리 디스크 환자나 옷이 불편한 여성은 체험에 응할 수 없으므로 체험에 편한 의자교체가 필요함



④ 단오부채그리기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	•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한 여름의 더위를 잘 이기라고 하사하던 부채를 단오선이라 부름 • 단오선을 만드는 것은 다가올 여름의 더위를 대비하고 아랫사람을 돌보는 윗사람의 아량을 대변함
참여성	3	• 어린이 참여자가 드문드문 있었음
신기성	4	• 매해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매해 많은 참가자들이 참가함 • 해마다 예쁜 디자인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예쁘게 그려냄
고유성	4	• 단오제 공식 체험 프로그램
의외성	3	• 매해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이며, 인기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똑같은 • 명예의전당을 만들어 매해 '최고의 단오선'에게 수상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한 것임



⑤

	평점	평가
	5	• 단오날을 맞이하여 한국전통의상을 입어보는 체험으로 단오의 전통의 주제와 부합함
참여성	4	• 평일에는 참여자가 많지는 않았으나 주말에는 외국인들과 관광객들의 참여가 많아 한복을 입은 관광객을 쉽게 볼 수 있었음
신기성	4	• 외국인들은 한국 고유의 전통의상을 입어보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해함
고유성	4	• 전통을 주제로 한 축제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체험이긴 하나 쉽게 입어볼 수 없는 한복을 대여를 통해 입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음
의외성	5	• 대여비용이 매우 저렴하여 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많았다고 생각됨



⑥ 관노탈 그리기

기준	평점	평가
주제성	5	• 단오제의 대표 극인 관노가면극의 주인공들의 탈을 직접 그려보는 체험으로 단오제의 주제와 매우 적합함
참여성	4	• 다른 체험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있었음
신기성	3	•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실시했던 탈그리기 경험을 가진 어린이들이 대다수였음
고유성	4	• 탈그리기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자주 했던 활동이지만 단오제에서 대표캐릭터의 탈을 그리는 것에 대해 희소성이 있음
의외성	3	• 관노탈을 따라그리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창의적인 탈을 그리는 아이들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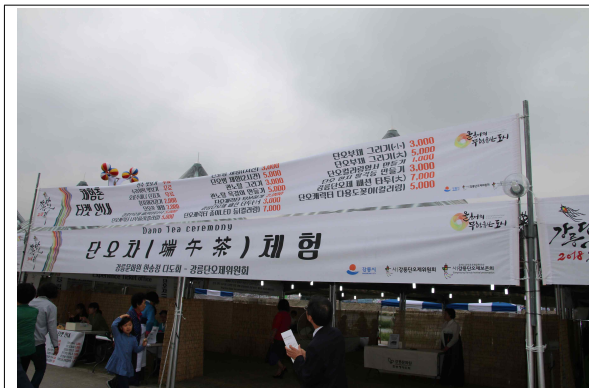
⑦ 관노 캐릭터 탁본하기

	평점	평가
	5	• 강릉단오제 캐릭터를 찍어보고 표현해보는 체험
참여성	2	• 강릉단오제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 및 인지도가 없어 참여도가 낮음
신기성	3	• 강릉단오제의 캐릭터에 대한 설명과 캐릭터를 설명하려는 노력이 없어 캐릭터에 대한 신비성 및 호감도가 떨어짐
고유성	3	• 열 두 캐릭터에 저마다의 고유한 캐릭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설명 및 특이한 성격이 전혀 부각되고 있지 않음
의외성	2	• 캐릭터에 대한 매력도가 없으며, 인지도와 흥미도가 없어서 참여도가 떨어짐



⑧ 체험

기준	평점	평가
주체성	4	• 우리 전통 고유의 차를 시음하고 배우는 다례 시간
참여성	4	• 학생부터 외국인 성인까지 남녀노소 국적을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차를 즐김
신기성	4	• 날이 더워 차를 즐기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음 • 다양한 종류의 한국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음
고유성	4	• 연꽃 잎 차, 개두릅 차 까지 다양한 강릉의 차부터 한국의 차까지 다양한 차를 맛볼 수 있었음
의외성	4	• 씨름장 맞은편으로 자리를 바꿔 다례 체험을 하는 체험자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차 체험의 만족감이 더 좋았다고 함 • 다례 체험 장을 찾은 체험객의 수가 더 증가함



⑨ 한지 팔각등 만들기

	평점	평 가
	5	• 전통등인 팔각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으로 전통주제와 부합함
참여성	4	• 평일에는 참여자가 드문드문 있었으나 주말에는 어린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룸
신기성	4	• 특별한 차별성은 없었으나 만들기 체험이라는 점에서 어린이 참가자들이 많았음
고유성	3	•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만들기 체험으로 단오장이라는 장소성이 주는 특별함 이외엔 차별성이 없었음
의외성	4	• 체험진행자들이 1:1로 개인별 지도를 해주며 체험을 진행하는 것에 부모들은 매우 만족해 함



⑩오륜주머니 체험

기준	평점	평 가
주제성	4	• 전통놀이인 오륜주머니 던지기 체험은 전통성과 부합함
참여성	4	• 많은 시민들이 함께 주머니를 던지며 화합을 함
신기성	4	•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가족단위 즐기기 좋은 체험임
고유성	4	•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자율성 체험으로 간단한 전통놀이에 추억팔이를 할 수 있음
의외성	3	•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돋보였고 이러한 게임의 특성을 살려 단오 주제 의식을 갖들인 게임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음



⑫ 단오 그네체험

	평점	평 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옷날 그네뛰기는 전통임 • 한복입기 체험이 활성화되면서 한복을 입고 그네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짐
참여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아이들 참여도가 높음 • 단오체험존 옆에 그네가 위치해 아이들의 참여도가 높아짐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인상적임 • 중국 기예단 공연은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함
고유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네시설은 단오의 대표 랜드마크임
의외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들의 그네타기 역량이 뛰어남 • 5m 가량 높이 올라가는 참가자도 있었음



⑬ 단오 씨름대회

	평점	평 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옷날 하던 놀이이므로 주제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체험존과, 씨름 그네 체험 공간이 붙어있어 유·아동들이 체험 및 관람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
참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등 매 씨름판마다 관객들의 호응이 끊이지 않았으며 특히 유치부 씨름은 지나가던 사람들도 매우 즐겁게 관람함
신기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름의 역동적인 모습에 어린이 관객들 넋을 잃고 응원함
고유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름은 옛날부터 전해내려 오던 우리나라 전통놀이이므로 고유성이 높음
의외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심히 응원하는 꼬마 응원단과 그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경기해 준 군인들의 씨름 한 판이 매우 멋졌음 • 유치원생들의 씨름은 보는 이로 하여금 미소짓게 만들고 인기가 매우 많았음





V. 국내외 사례분석

1. 국내사례
2. 국외사례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

1 국내사례

1) 진주강남유등축제

(1) 강남 유등의 유래

- 남강에 띄우는 유등놀이는 우리 겨레의 최대 수난기였던 임진왜란의 진주성 전투에 기원하고 있음
- 1592년 10월 충무공 김시민 장군이 3,800여명에 지나지 않는 적은 병력으로 진주성을 침공한 2만 왜군을 무찔러 민족의 자존심을 드높인 ‘진주대첩’을 거둘 때 성 밖의 의병 등 지원군과의 군사신호로 풍등을 하늘에 올리며 횃불과 함께 남강에 등불을 띄워 남강을 건너려는 왜군을 저지하는 군사 전술로 쓰였음
- 또한 진주성 내에 있는 병사들과 시민들이 멀리 두고 온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이용한 것에서 비롯되었음

(2) 유등축제의 유래 및 연혁

- 김시민 장군의 군사 신호로 남강을 건너려는 왜군의 도하작전을 저지하는 전술로,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두루 쓰였던 진주남강 유등은 1583년 6월 12만 1593년 6월 12만 왜군에 의해 진주성이 적의 손에 떨어지는 통한의 계사순의가 있고 난 뒤부터는 오직 한마을 지극한 정성으로 나라와 겨레를 보전하고 태산보다 큰 목숨을 바쳐 의롭게 순절한 7만 병사와 시민의 매운 얼과 넋을 기리는 행사로 세세연년 면면히 이어져 오늘에 진주남강유등축제로 자리 잡았음
-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유등은 개천예술제에서 유등놀이의 형태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개천예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유등놀이가 2002년 10월 대규모 진주남강유등축제로 발전되었음
- 특히 2003년도에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로 선정되면서 지역축제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 전기를 맞음

- 2004 지역육성축제, 2005년 우수축제를 거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에 선정되면서 한국의 대표축제로서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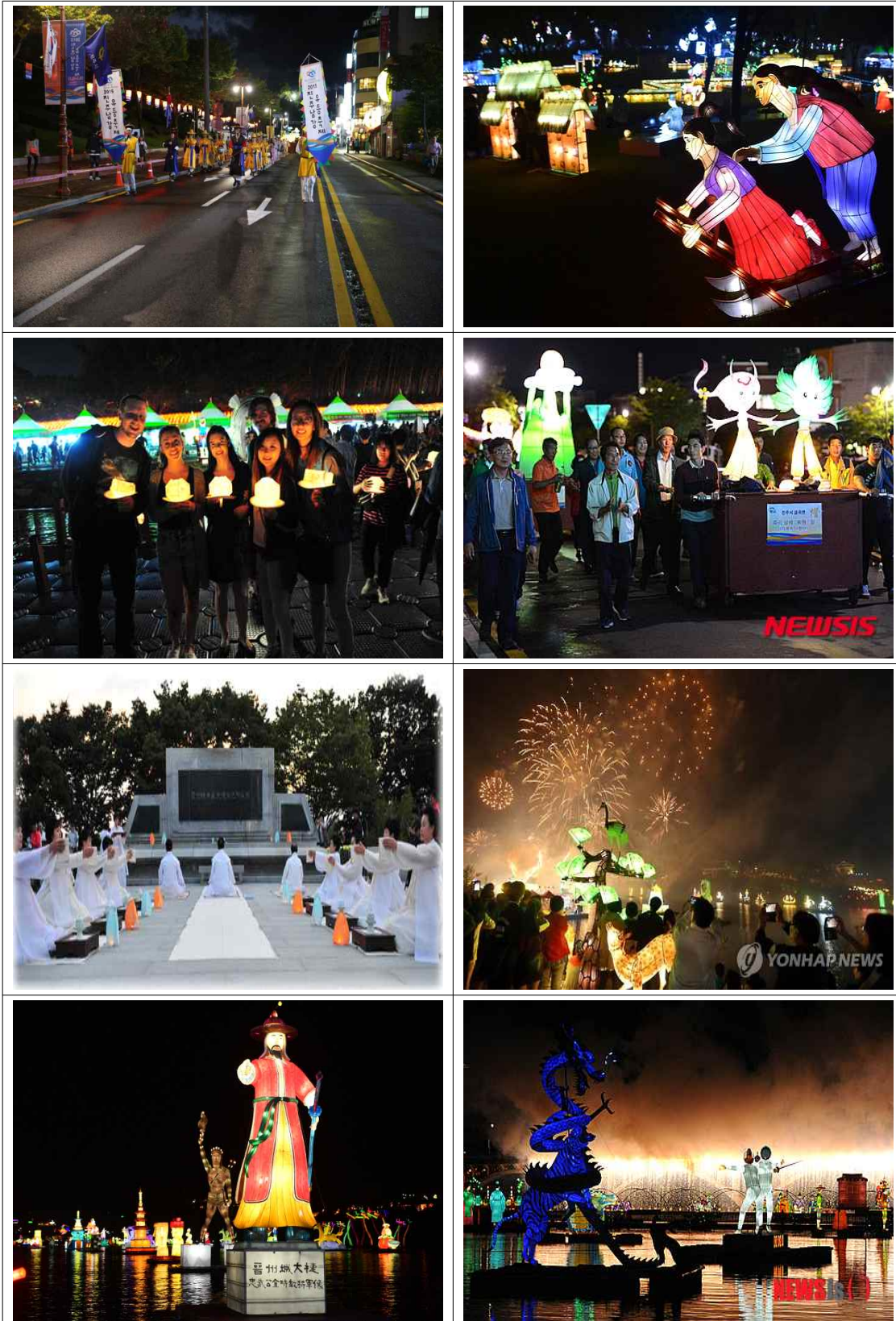
■ 축제연혁

- 2000년 개천예술제 행사의 일환이었던 유등놀이를 본격적으로 축제화 작업 시행 제1회 진주남강유등축제 시행 (8일간)
- 2001년 명칭변경 : 세계진주남강유등축제 (8일간)
- 2002년 원래 명칭으로 다시 돌아옴 : 진주남강유등축제 (12일간)
문화체육관광부 특성화축제 지정 (최초 국비지원)
- 2003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 지정 (지방축제 -> 전국축제 / 예산규모 대폭 확대)
-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육성축제 지정
-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지정 (전국 13대 축제로 발전)
-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 지정 (전국 5대 축제로 발전)
-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 지정 (2년 연속)
-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 지정 (3년 연속)
일본 여행전문지 BBB가 선정한 “10월에 가장 가보고 싶은 축제” 선정
매경 이코노미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베스트 3대 축제 선정
-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 지정 (4년 연속)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축제 취소
-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 지정 (5년 연속)
-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대표축제 지정
세계축제협회 총회 (금상 3개, 동상 1개 수상)
-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대표축제 지정 (2년 연속)
주제공연 뮤지컬 “유등” 시연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대표축제 지정 (3년 연속)
진주성 둘레길 조성
- 2014년 해외전시관 운영
- 2015년 축제 유료화 시행
- 2018년 축제 무료화 시행 (10월 예정)

(3) 유등축제의 개요

- 및 장소 : 매년 10월 중(15일간) / 진주성 및 진주 남강 일원
- 슬로건 : 물·불·빛 그리고 우리의 소망
- 주최 / 주관 : 진주시, 진주문화예술재단 / 진주남강유등축제제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한국관광공사, 경상남도교육청, 언론기관
- 행사내용 : 37개 행사 (본 행사 16개, 체험참여행사 12개, 부대행사 9개)
 - 본 행사
 - 개제식(초혼점등) / 소망등 달기 / 추억의 유등띄우기 / 유등띄우기 / 창장등 전시 / 한국의 등·세계품물 등 전시 / 진주성 들레길 등 전시 / 조선기생 등 전시 / 진주성 전투 재현 등 전시 / 한국의 세시풍속 등 전시 / 해학과 풍자의 거리 / 종교 참여 등 전시 / 전국 지자체 상징 등 전시 / 읍면동 상징 등 전시 / 기관·기업 등 전시 / 대형 등(에펠탑, 4령, 석류나무 등) 전시
 - 체험참여행사
 - 소망 등 달기 / 유등 만들어 띄우기 / 시민참여 등 만들기 / 사랑다리(부교) 건너기 / 전통놀이 / 유람선 타기 / 임진대첩도 및 유물 탁본체험 / 캐릭터 등 사진 찍기 / 스탬프 랠리 / 사랑 고백 이벤트 / 소원성취 나무 등 / 진주성 한복 체험
 - 부대행사
 - 수상 불꽃놀이 / 남가람 어울마당 공연 / 축등설치 / 진주음식큰잔치 / 농특산품 판매장 운영 / 등 카페 운영 / 세계 품물거리 운영 / 최첨단 콘텐츠 영상 상영 / 진주성 어울마당 공연

■ 사진



<그림 5-1>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 사진

■ 배치도



<그림 5-2> 2017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 배치도

(4) 주요 추진성과

- 대한민국 축제 사상 최초로 완전 자립 축제로 발전
 - 축제경비 40억원 중 유료 수입이 약 44억원으로 재정 자립도 110% 달성
 - 대한민국 최초의 자립형 경영축제에서 수익형 축제로 전환
- 시민과 인근 지역민, 외지 관광객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축제 운영
 - 진주시민 우대정책으로 시민 2/3 이상 축제장 방문
 - 인근지역(경상도민, 남중권협의회 시군) 시민에게도 혜택 부여
- 인터넷, SNS 등 활용한 축제 홍보로 20~30대 방문객이 급증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등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자연스러운 축제 홍보로 이어져 향후 축제 발전에 도움이 됨
- 세계 5대 명품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자립과 산업화 기반 마련

- , 가족단위, 20~30대 젊은 층, 서울 등 원거리, 유럽일본중국동남아 등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여 세계 5대 명품 축제 진입 확인
- 완전 자립화로 축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산업화 기반 마련

(5) 진주남강유등축제 향후 발전방안

-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진주남강유등축제만의 킬러 콘텐츠 개발, 축제 편의시설 확대 및 고급화, 축제 진행 인력 전문화 등 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서비스 품질 개선
-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인근 타 지역 축제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 사천 항공우주 엑스포, 산청 한방 약초 축제 등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 전국 여행사 및 초중고교 등 관광상품, 수학여행지 태택 등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
 - 진주 및 진주남강유등축제를 홍보하는 광광홍보 서포터즈를 상시 운영하여 전국 여행사 및 초중고교 등에 진주의 관광자원과 축제를 집중 홍보하여 단체 관광객 유치
- 완전 자립화를 넘어 수익형 축제모델의 선두주자로서 장기적인 축제 발전방안 모색
 - 완전 자립화를 넘어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최초의 수익형 축제모델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의 선구자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향후 지역의 문화와 산업이 융합한 산업형 문화축제로 발전

(6) 가치 및 시사점

- 유등의 유래와 전통을 소재로 현재적인 의미의 해석을 통해 축제화에 성공하여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적절한 조화를 이끌어냄
- 300만 여명이 넘는 방문객으로 축제의 파급효과가 매우 뛰어난 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축제로 선정, 지역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효과가 매우 높음

- 축제를 운영함으로써 자립형 축제를 넘어선 수익형 축제의 모델을 제시
- 진주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축제 참여를 위해 숙박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을 유도함
- 유등을 통해 축제 참여자가 모두 축제의 주인이 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의 내실화와 참여도를 높이는 축제로 인정받음
- 축제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등 전시 및 세계적인 축제에 직접 참가하는 등의 모습과 국내·외 방문객을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유치하는 노력이 축제의 성공을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 강릉단오제 역시 일부 프로그램의 유료화를 통해 축제의 자립 및 수익형 축제로서 면모를 갖출 필요가 있음
- 또한 야간에 방문하는 방문객이 많은 강릉단오제의 경우 방문객들이 야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볼거리 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

2 국외사례

1) 마슬레니차

(1) 축제 정의

- (Масленица)는 러시아에서 매년 러시아정교회의 사순절 직전 일주일 동안 열리는 축제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카니발과 유사한 행사임
- 동슬라브족의 오랜 문화와 그리스도교의 전통이 혼합된 마슬레니차는 러시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슬라브족 국가에 널리 퍼져 있는 봄 축제임
- 긴 겨울이 끝나갈 무렵, 금식이 시작되는 사순절을 앞두고 슬라브인들은 기름지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준비해 먹고 술을 마시며 흥겹게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축제를 벌였음
-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마다 축제 시작일이 바뀌는데, 러시아정교회는 율리우스력(Julian calendar)을 기준으로 삼음에 따라 사순절은 수요일(Ash Wednesday)이 아닌 월요일(Clean Monday)에 시작됨
- 따라서 사순절 일주일 전에 시작되는 마슬레니차는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월요일에 시작해 일요일까지 이어짐
- 마슬레니차에 실컷 놀지 않으면 평생 불행하게 살고 비참하게 생을 마친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러시아인들에게 마슬레니차는 중요한 축제임
- 사순절 전 우유, 버터, 치즈 등을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이므로, 축제 내내 밀가루, 메밀가루, 계란에 버터를 듬뿍 넣은 팬케이크 블린(блин)을 푸짐하게 구워 가족, 친지 등과 나눠 먹음
- 고대 슬라브인의 원무(圓舞) 호로보드(хоровод, Khorovod)를 추고 여럿이 함께 마을을 거닐면서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굴라니아(гулянья) 행사도 곳곳에서 볼 수 있음
- 한편 마슬레니차 첫날 아이와 어른들은 짚으로 인형을 만드는데, 이 지푸라기 인형의 이름 역시 ‘마슬레니차’ 임
- 옷을 입힌 인형들을 장대에 꽂아 눈 언덕에 세워두었다가 축제 마지막 날인 일

저녁에 불태우며 일주일간의 마슬레니차 축제를 마무리함



<그림 5-3> 슬라브인의 전통 춤 호로보드



<그림 5-4> 마슬레니차 인형 불태우기

(2) 축제 어원

- 마슬레니차(Масленица)라는 축제 명칭은 16세기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축제에 빠져서는 안 되는 러시아식 팬케이크 블린과 관련돼 있음
- 사순절이 시작되면 고기, 생선, 유제품과 계란을 모두 먹을 수 없었고, 육식은 사순절 일주일 전부터 금지됨
- ‘육식이 금지된 주간(먀사푸스트, мясопуст)’ 이라고 불리던 이 일주일 동안 우유, 버터, 치즈 등의 유제품은 허용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메밀가루, 밀가루에 우유와, 버터, 계란을 넣고 반죽한 팬케이크 블린을 구워 버터와 치즈를 듬뿍 발라 먹었음
- 러시아어에서 버터를 의미하는 단어 ‘마슬로’ (масло)에서 축제 이름 ‘마슬레니차’ 가 유래한 것으로, 마슬레니차는 버터를 먹을 수 있는 주간, 치즈를 먹을 수 있는 주간, 육식이 금지된 주간이라는 의미를 지님



<그림 5-5> 러시아식 팬케이크 블린
(블린이 없으면 마슬레니차가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슬레니차 축제를 대표하는 음식임)

(3) 축제 유래

-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폴란드 등 동슬라브족 국가들의 전통 세시 풍속은 기본적으로 농경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음
- 이러한 풍속은 10세기 말 키예프 공화국의 대공 블라디미르 1세(Владимир I)가 그리스정교회를 받아들인 이후 그리스도교의 종교 축일이나 기념일 등과 결합해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음
- 그중 마슬레니차는 고대 슬라브인들의 전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축제임
- 슬라브인들은 겨울의 끝을 알리는 춘분날이 되면 따뜻한 봄 햇살을 받아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나고 시작되는 것을 축하하며 봄맞이 축제를 열었으며 그들은 슬라브 신화에서 농경과 목축의 신 벨레스(Велес, Veles)를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했는데, 슬라브인들은 벨레스 신을 꿈과 동일시하고 꿈을 신령한 치유력

가진 동물로 신성시했음

- 그래서 축제날이 되면 곰처럼 춤을 추며 집 주위를 돌면서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집이 보호받기를 기원했음
- 그리스도교가 도입된 후 교회는 이러한 이교의 숭배를 금지시키기 위해 많은 애를 썼으나 민간에 깊이 뿌리내린 전통인 만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으며 이에 교회는 이 축제를 종교 축일로 수용해 축제의 시기를 사순절 금식이 시작되기 전 마음껏 먹고 마시며 놀 수 있는 일정으로 조정함
- 그리고 벨레스 신 대신 그리스도교의 성인 성 블라시우스(St. Blasius)에게 팬 케이크 불린을 바치며 가축들이 건강하고 곡식이 잘 여물기를 기원하도록 했음



<그림 5-6> 러시아의 전통 봄맞이 축제 마슬레니차
(매년 2월과 3월 사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의 시작을 기대하며 푸짐하게 먹고 마심)

(4) 축제 주요 행사

- 사순절 직전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 월요일에 시작해 일요일에 끝남
-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평상시와 같이 일을 하며 축제를 즐기지만, 목요일부터는 일을 모두 쉬고 축제에 열중함
- 본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마슬레니차는 보통 목요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나긴 마슬레니차’ (시로카야 마슬레니차, Широкая Масленица)라고 부름
- 러시아정교회의 달력은 마슬레니차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표시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그 시작이 월요일인 경우도 있고 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축제를 시작하기도 함
- 혹은 부유한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가난한 사람들은 목요일부터 축제를 시작하며, 시골에서는 월요일에, 도시에서는 목요일에 블린을 굽기 시작함
- 각 요일마다 정해진 이름이 있고 그에 맞춰 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 마슬레니차 축제의 특징임

■ 월요일 : 만남의 날

- 축제 첫날, 마을마다 눈과 얼음을 쌓아 높다란 언덕을 만들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한데 모여 짚으로 마슬레니차 인형을 만듦
- 할머니들의 옷을 입혀 치장하고 마슬레니차 인형을 장대에 꽂아 세운 뒤 아이들과 어른들이 손을 잡고 둥글게 둘러 서서 러시아의 민속춤 호로보드를 춤
- 인형을 꽂은 장대를 눈 언덕 꼭대기에 가져다 놓은 사람들은 언덕에서 눈싸움과 썰매 놀이를 즐김
- 이날부터 팬케이크인 블린을 굽기 시작하는데, 전통적으로 맨 처음 구운 블린은 창턱에 놓아두거나 길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함

■ 화요일 : 유희의 날

- 화요일은 ‘유희의 날’ 이라는 이름처럼 온갖 재미있는 놀이와 장난질이 벌어짐

- 이른 아침부터 얼음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오며 소란을 떨고 블린을 먹어 치움
 - 남자들은 길을 지나다니는 어떠한 여자든 붙잡고 키스를 할 수 있으며, 손님들은 누구나 환영 받아 블린을 비롯한 맛있는 음식을 대접 받음
 - 또 이날 총각들은 썰매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찾아 나서는데, 이는 자신의 짝을 찾아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일요일인 크라스나야 고르카(Красная Горка)에 결혼식을 올리려는 목적을 지닌 행위임
 - ‘붉은 언덕’이라는 의미의 크라스나야 고르카는 전통적으로 커플들이 결혼식을 올리곤 하던 날임
- **수요일 : 미식가의 날**
- 수요일에는 장모가 사위들을 초대해 블린을 대접함
 - 이때 사위뿐 아니라 친척들도 몰려와서 먹고 마시며 함께 축제를 즐김
 - 예전에는 한 집에 여러 명의 사위가 있곤 하여, 이들과 더불어 모든 일가친척들을 초대해 성대한 파티를 한 번씩 열 필요가 있었으나 이 가족 만찬도 밀, 메밀, 보리, 귀리 등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진 블린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마슬레니차 주간 동안 다들 풍족하게 먹는 전통으로 인해, ‘마슬레니차에는 배속이 즐거워 할 만큼 먹어야 한다’거나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것만큼 자주 그리고 많이 대접해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함
 - 시골에서는 ‘장모님의 블린 파티’의 한 부분으로 여자들의 경주가 펼쳐지기도 하는데 이는 3인이 한 조를 이루어 마구를 메고 마을을 달리는 경기임
 - 보통 새신부들이 많이 참여하여 그들의 활력과 인내심을 자랑한다.
 - 이 날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장모의 친절에 감사하며 그 가정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끝이 남
- **목요일 : 흥청망청한 날**
- ‘기나긴 마슬레니차’가 시작되는 날,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축제의 흥겨움을 마음껏 즐김
 - 이날은 특히 러시아 남자들의 전통 놀이인 주먹 싸움(쿨라치니 바이, кула

ч н ы й б о й) 시작되며 주먹 싸움에 대해서는 1998년에 제작된 영화 <러브 오브 시베리아>(С и б и р с к и й ц и р ю л ь н и к, The Barber of Siberia)의 시작 부분에서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일요일까지 계속됨

- 주먹 싸움은 청년들이 발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맨주먹으로 주먹질을 해 상대를 때려눕히는 남성적인 놀이임
- 마구잡이로 싸우는 듯 보여도 여기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 ‘누운 자 때리지 않기’, ‘아픈 부위 건드리지 않기’, ‘곤봉으로 때리지 않기’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임
- 또 한쪽이 피를 흘리면 경기가 끝난다. 주먹 싸움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행해진 경기로, 남자들의 왕성한 혈기로 겨우내 잠자던 땅을 깨워 봄을 재촉한다는 의미를 지님
- 한편 엄격한 규칙이 적용된다고는 하나 매우 위험한 경기이기도 해서, 17세기 중반 모스크바를 방문한 영국인 의사 새뮤얼 콜린스는 이날 200명 이상의 남자들이 주먹 싸움을 벌이다 죽었다고 자신의 책 『러시아의 현재』에 기록해 두었음

■ 금요일 : 장모의 날

- 금요일에는 수요일과 반대로 사위가 장모를 초대함
- 장모에게 초대받아 불린을 대접받자마자 사위는 매우 정중하고도 친절하게 장모에게 초대장을 보냄
- 사위는 저녁에 초대장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에 여러 명으로 구성된 특사를 파견해 확정을 받음
- 이 특사들이 거창할수록 장모에 대해 더 큰 존경을 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토요일 : 시누이 모이는 날

- 토요일은 며느리가 시누이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날임
- 만일 시누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젊은 남성을 함께 초대하고, 시누이가 결혼을 했다면 시누이의 가족과 친척들을 모두 초대해서 대접함
- 러시아어로 시누이는 잘롭카(з о л о в к а)인데, 이는 ‘사악하다’는 의미의

- ‘ ’ (з л о)에서 파생됨
- 이를 보면 시누이와 며느리는 애초부터 긴장과 불편함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음
- 러시아어로 며느리는 네베슈카(невестка)인데, ‘외부인’이라는 의미임

■ 일요일 : 용서를 구하는 날

- 조상의 묘를 찾아 블린을 바치며 참회한 사람들은 서로서로 지나간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데, 길 가는 이를 붙잡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프라스티 메냐, прости меня)라고 말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겁니다’ (바크 프라스티트, Бог простит)라고 회답함
- 갓 결혼한 젊은 부부는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준 친지들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며 감사를 표함
- 남자에게는 수건, 여자에게는 비누 선물이 가장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진다고 함
- 사순절 전 마지막 일요일에 사람들은 일상에서 저지른 온갖 죄와 불경한 마음을 씻어내야 한다고 믿었음
- 아울러 이날 이후부터는 길거리 쏘다니는 일을 비롯해 오락, 유흥, 혼례, 손님맞이 등이 금기시됐기 때문에 모두가 더욱 열정적으로 축제의 마지막 날을 즐겼음
- 눈 언덕 꼭대기에 세워둔 마슬레니차 인형에 작별을 고하고 인형을 불태움으로써 일주일간의 풍요롭고 성대한 축제가 막을 내림

(5) 가치 및 시사점

- 축제가 시작되면 ‘마슬레니차’ 라는 지푸라기 인형을 만들고 축제 마지막날 불태워지는 상징성이 있는 매개체를 만드는 것은 마치 단오제의 신목과 같은 전통성이 기반되어 있음
- 이 지푸라기 인형을 만들고 축제가 끝날 때 태우는 행사는 축제의 클라이막스로 이 순간만은 러시아 주민들이 모두 나와 지켜봄
- 그 이유는 지푸라기 인형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며 전해의 분노, 묵은 때, 풀리지 않은 문제 등을 날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전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고 믿

있기 때문임

- 강릉단오제에서도 신목과 관련하여 강릉시민을 위한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 큰 이벤트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 이는 강릉시를 지켜주는 신과 시민들이 만나 몸을 정갈하게 하는 행사로써 이벤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블린이 없으면 마슬레니차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블린은 마슬레니차를 대표하는 음식임
- 또한 블린에 대한 상징성도 뚜렷한데, 러시아인들은 동그랗고 따뜻한 황금빛 펜케이크 블린이 태양의 우아함과 힘을 상징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일 수 있다고 믿고 있음
- 그들은 또한 원형(circle)은 악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신성한 형상으로 숭배해, 악귀를 물리치기 위해 말을타고 집을 동그랗게 여러번 돌거나, 여럿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듯 돌며 추는 춤인 호로보드를 즐겨 추었음
- 그리고 블린또한 원형으로 굽게 되었음
- 블린이라는 음식 하나에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입혀져 있으며 마슬레니차=블린이라는 축제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음
- 강릉단오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은 수리취떡, 단오신주, 감자전 등이 있지만 다른 축제가 아닌 강릉단오제에서만 맛볼 수 있고, 역사성이나 민속성을 고려하여 음식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일화 등 문헌고찰을 통해 확대 재생산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부산국제교류재단과 주부산러시아총영사관이 부산 해운대에서 매년 실시중인 러시아의 축제 마슬레니차는 국내에서 체류중인 러시아인들의 또 다른 명물로 자리잡고 있으며 러시아인과 한국인이 함께 참여하여 이색풍경을 자아냄
- 강릉단오제 또한 글로벌 축제인 만큼 강릉단오제가 열리는 비슷한 시기의 세계의 이색 명절 또는 축제를 접목하여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나길 기원함



VI. 2018 강릉단오제 발전방안

1. 2018 강릉단오제 발전 자문회의
2. 강릉단오제 발전 기본방향 및 SWOT 분석
3. 2018 강릉단오제 공간 구성 및 시설 배치 개선방안
4. 2018 강릉단오제 운영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

1 2018 강릉단오제 발전 자문회의

1) 개요

- : 2018년 6월 17일 14:00
- 개최장소 :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2층 회의실
- 참석자

<표 6-1> 2018 강릉단오제 발전 자문회의 참석자

	직책	성명	직책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상임이사	이철우	동우대학교 / 한국공연문화학회 연구이사
김남조	한양대학교 / 한국관광학회 회장	안상복	강릉원주대 / 한국공연문화학회 연구이사
송지원	서울대학교 학국공연문화학회 명예회장	심상교	부산교육대학교 / 한국공연예술학회 회장
최원오	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 공연문화학회	허용호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국공연문화학회 부회장
민용기	목원대학교 / 한국관광학회	이창식	세명대학교 / 강원아시아민속학회 회장
이경찬	한양대학교 / 한국관광학회 총무이사	황지윤	모니터링 팀 연구원

- 주제 : 2018 강릉단오제 개선점 및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 회의 사진



<그림 6-1> 회의 사진

2) 주요내용

(1) 김동찬((사)강릉단오제위원회 상임이사)

-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으로의 접근이 필요함
 - 관광적인 측면만을 기초하여 단오제를 이해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으며 강릉단오제의 가치를 발현시키는데 미흡함
 - 사회학적, 교육학적 또는 철학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단오제위원회에서는 단오와 문학, 단오와 미술 등 자료집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음

(2) 허용호(한국예술종합학교 / 한국공연문화학회 부회장)

- 강릉단오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오제로써 타 지역 단오제의 모델이 되고 있음
 - 강릉단오제는 기본적인 틀이 유교식 의례, 무속식 굿, 관노놀이로 대표되는 연희까지 세가지가 무형유산에 측면에서 봤을 때 대표되는 큰 축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산, 난장, 놀이가 배치되고 있는 현상임
 - 이러한 강릉단오제의 구성은 타 지역의 단오제의 모델이 되고 있음
 - 법성포단오제는 강릉단오제와는 다른 축제이나 강릉단오제를 모델로 삼으며 스스로 혼선이 있음
 - 법성포단오제는 현상적으로는 축제가 굉장히 풍성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무형유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음
 - 두 번째로는 추진위원회에서 통제되지 않는 야시장, 잡상인들의 통제되지 않을려고 하는 움직임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 강릉단오제의 핵심은 굿이며 굿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 강릉단오제의 핵심은 굿이지만 여기서 다루어져야 할 것은 아니고 무속학회에서 다루어 져야 함
 - 하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지켜줘야 하는데, 축원굿은 무한정 늘릴 수도 있고 어떤 굿이든 들어올 수 있으나, 탈굿은 들어오면 안됨
 - 특별하게 시연형식으로는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구성된 탈굿은 공식화 하여 행사

포함시켜선 안됨

- 무속이나 굿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논란의 요지가 될 가능성이 있음

(3) 송지원(서울대학교 / 한국공연문화학회 명예회장)

■ 강릉단오제의 민속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견제장치로서의 학술행사 마련

- 강릉단오제가 유서가 깊다고 얘기할 때의 의미가 실제로 유서가 깊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유서가 깊기 때문에 장남으로써 장자로서 어떤 기틀을 바로 잡는 것에 대한 의미가 중요함
- 과거 강릉단오제를 찾아오는 방문객 중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된 곳을 강릉단오제를 가면 볼 수 있다’ 라는 의식을 갖고 방문을 하였음
- 현재 강릉 단오제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축제의 보편성으로 봤을 때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나, 옛 단오굿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속성이나 매력성이 떨어진 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음
- 축제가 대중성을 따라가다 보면 대중성에 빗대어 지속적으로 바뀌나가게 되는데 강릉단오제의 고유성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견제장치는 학술행사로써 실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마케팅 활용

- 강릉단오제의 primal source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를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어느분야에서 실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 디즈니와 픽사에서 합작한 ‘코코’ 라는 영화는 정통과 문화와 민속이 대중과 만나는 방식을 잘 보여준 영화이며 유서깊은 여러 가지의 내용들은 영화 이상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 강릉단오제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깊이 없이 바라봤을 때에는 먹고 놀고 즐기는 축제라는 이미지가 훨씬 크지만 뿌리부터의 개연성들을 어떤 소스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대안은 진지하게 고민이 되어야 함

■ 강릉단오제만의 고유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지역기반의 축제이지만 온 나라가 아는 축제이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거듭났으며, 이제는 세계인들이 강릉을 찾아오게 만드는 사명까지 가지고 있는 축제임
-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을 눈에 띄게 찾아볼 수 없으며 강릉단오제만의 매력 고유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함
- 대성황당이 복원이 된다면 단오 때만 기억하는 강릉단오제가 아니라 늘 강릉단오제를 인지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임
- 음식측면에서도 어느 축제에서나 맛볼 수 있는 난장음식이 아닌 강릉단오제만의 퓨전 음식들이 개발이 되어 차별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4) 최원오(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 공연문화학회)

- 강릉단오제의 핵심가치를 도출하고 이를 위한 스토리텔링 개발이 필요함
 - 강릉단오제는 권역적, 산업적, 문화적 요소가 잘 갖추어서 진행을 하고 그 핵심은 단오 굿, 유교적 의례, 탈놀이 등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들의 가치를 콘텐츠화하여 보존을 하는 것도 심혈을 기울여야 함
 - 애니메이션 등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들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함
 - 지역어르신들에게는 강릉단오제가 추억팔이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런 추억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세대들에게 같이 느끼도록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함
 - 지역의 축제로서 정체성을 지키려면 강릉시라던지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오며 같이하고 애착을 가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천년 이후까지 지속가능할 것임

(5) 민웅기(목원대학교 / 한국관광학회)

- 재방문을 위한 연차별 축제의 차별화를 마련해야 함
 - 젊은 세대들이나 가족들이 방문하여 축제를 즐기고 돌아간다음에 이후 재방문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확장이 필요함

- 매해마다 컨셉을 잡고 그 컨셉과 관련된 공연들을 위주로 올리는 매해마다 차별화된 기획안이 나오는 것이 재방문에 효과적일 것임
- 젊은 사람들이 축제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해 보는 것임
- ‘행사에 관여를 많이 할수록 충성도가 높아진다’ 라는 말이 있는데, 체험이라던지 놀이라던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을 확대하는 것이 충성도를 올리는 데 효과적이고 나아가 재방문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임

■ 외지인들의 행사 몰입을 위한 시스템이나 장치들을 추가해야 함

- 연신행차를 참여하여 보니까 각 지역이나 마을마다 모시는 지신들을 상징물로 표현하여 실시하는 행사였는데, 지역사람들은 늘 관심이 있어왔으니까 보고 즐길 수 있는데 외지인들은 하나의 지식으로 다가왔음
- 각 지역의 지신들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좋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대전엑스포를 갔을 때 비슷 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런 상징물들을 간단한 영상으로 소개를 해 주는데 이해도 쉽고 몰입도도 높아 졌었음

■ 강릉단오제의 전통은 가지고 가되 현재 가치와 미래를 연결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강릉단오제는 공동체의 문화이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위의 공동체를 생각하게 만드는 문화임
- 강릉단오제의 전통과 연계하여 전통예절, 인성교육 등 청소년들과 연계하여 책을 만들어 강릉단오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함

■ 학술행사의 콘텐츠 방안

- 전문가 집단에 토픽으로 알려주고 논문형식이 아닌 발언 요약만 받아서 배포하여 토크콘서트를 진행함

(6) 이경찬(한양대학교 / 한국관광학회 총무이사)

-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

- 많이 방문하는데 현재 강릉단오제에도 수유실같은 시설들이 많이 숨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음
- 축제장의 공간적 흐름의 개선
 - 전체적으로 공간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며, 남대천을 기반으로 하긴 하는데 각 공간들이 흐름이 없고 개별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음
 - 곳이 중요하다면 공간상 가운데 위치하고 다른 시설들이 퍼져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음
- 방문객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 천년의 축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에 비해 친절함을 느낄 수 없었음
 - 강릉단오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프라이드는 중요하지만 방문객과의 관계는 굉장히 약한 것 같음
 - 강릉단오제의 가치를 방문객에게 행사프로그램으로써 전해줘야 하는데 먹고 즐기는 것에 너무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7) 이철우(동우대학교 / 한국공연문화학회 연구이사)

- 먹거리의 차별화
 - 먹거리가 타 축제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었으며, 강릉단오제 특유의 차별화된 음식이 필요함
- 홍보부스 위치 개선
 - 홍보부스가 지역민에게는 중심이라 생각하는 지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외지인은 홍보부스를 찾기가 힘들었음
 - 난장쪽이나 버스정류장 등 행사장 중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개선을 해야함
 - 안내부스 안에 행사배치도를 걸어놨는데 안내부스 바깥쪽에도 걸어야 물어보기 전에 찾아보고 물어볼 수 있을 것임

- 간섭하지 않도록 주요 행사장 위치 개선
 - 소리가 간섭될 수 있는 수리마당, 아리마당, 씨름장, 그네장, 굿당 등의 배치가 매우 근접하여 있어 타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음
- 자전거 등 탈것 통제
 - 강릉단오제를 구경하며 다니다가 자전거가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것으로 생각됨
 - 자전거나 탈것은 내려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요원들의 제제가 필요함
- 길놀이의 활성화
 - 강릉시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길놀이를 활성화하고 길놀이 이후의 부스운영을 통해 동네를 소개하고 외지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

(8) 안상복(강릉원주대 / 한국공연문화학회 연구이사)

- 행사장 안내도 개선
 - 행사장을 방문하는 외지인이 주로 들어오는 방향을 고려하여 남쪽과 북쪽을 바꿔서 그리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함
 - 화장실을 찾아가기 위해 지도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음
- 신통대길놀이의 확장
 - 21개동이 참가한 신통대길놀이를 확장하여 각 동마다 출정식 같이 먼저 한바퀴를 돌고 행사를 알리는 의미의 행사를 했으면 좋겠음
- 신목에 걸어놓은 오방천(화개)를 시민들이 만질 수 있는 체험 추가
 - 신목에 걸어놓은 오방천은 많은 사람이 만질수록 좋다고 함
 - 다른 축제에서는 화개가 망가지는 것을 고려하여 따로 만질 수 있는 화개를 만들어 그런 체험을 실시하였음
 - 화개를 만지는 것은 신과의 접촉이라 생각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임

(9) 심상교(부산교육대학교 / 한국공연예술학회 회장)

■ 확대 추진 필요

- 강릉단오제에서 곳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강릉단오제에서 곳의 입지가 좁아지고 곳을 보기위해 단오제를 방문하는 외지인은 줄어들 것임
- 외지인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확대추진을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신통대길놀이가 그 대표적인 행사라고 생각함
- 신통대길놀이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이며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의 상징물들을 외지인들이 봐주면 아이돌 못지않은 쾌감을 느꼈을 것임

■ 상품들의 고도화

- 강릉단오제의 물건, 먹거리 등과 같은 상품들을 형식화하고 깔끔하고 세련되게 고도화의 방안이 필요함
- 강릉단오제의 꼬치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세련되어 져야 하며 이런 음식들은 위생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좋은 축제를 위해서는 없어야 함
- 난장에서 파는 상품들이 퀄리티나 가격대를 증대할 필요가 있음
- 축제라는 것은 소비문화와 생산문화가 함께 공존하는데 소비자의 눈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기 때문에 상품들도 함께 고도화 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연장 개선이 필요

- 천변공간을 활용한 상징성 있는 수상무대를 설치하여 단오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함
-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연장의 상황을 모니터로 생중계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활용하여 시내의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동식 모니터를 통해 중계해주는 방안도 고려

■ 강릉단오제는 화이트 트라우마

- 보통 트라우마라는 나쁜기억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강릉단오제는 즐거운 생각으로 계속 떠올릴 수 있는 화이트 트라우마로 남아야 함

(10) 이창식(세명대학교 / 강원아시아민속학회 회장)

■ 개선

- 축제 평가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는데 축제 평가의 주요 내용들은 관광적 측면만 보고 있어 문화적 측면에서는 매우 불만이 많음
- 강릉단오제는 문화, 축제, 세시유산이 모두 어우러져 잘 구성이 되어있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음
- 하지만 강릉단오제의 20년 이전보다 관광적 측면에서는 발전했지만 정신이 소멸되고 있다고 생각함
-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선이 끊겨있는 느낌을 많이 받음

■ 대성황사의 복원의 붐업화

- 복원도, 영상 등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 신통대길놀이의 차별화

- 복장이나 스토리텔링 등이 강릉단오제의 브랜드가치에 비해 매우 격이 떨어져 있음
- 대안으로써 기관, 학교를 연결해서 2~30년 후에는 신통대길놀이가 강릉단오제의 새로운 공동체의 문화유산으로 자리해야 함

■ 단오학교 운영

- 강릉단오제의 지속성을 위해 단오학교를 운영을 하는 것을 제안함
- 김동찬(현재 운영중이며 단오해설사 양성을 하고 있음)

■ 강릉단오제 콘텐츠로써의 위한 학술대회 실시

- 중국 도시에서 이틀 동안 축제에 대한 학술대회를 하면서 젊은세대까지 연계하여 향후 연구자까지 확보를 함
- 강릉단오제도 학술대회를 젊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로써의 학술대회를 하는 것을 제안함

(11) 김남조(한양대학교 / 한국관광학회 회장)

- 남기고 새것은 접목해야 함
 - 시간은 흘러가고 사람들의 가치는 변하기 때문에 과거 조상들의 가치는 남기고 현재사람들의 가치를 접목해야 함
 - 다른 축제에서 전통 굿을 하다가 갑자기 무녀가 흥을 위해 유행가를 불렀는데 축제라는 분위기와 매우 잘 어울렸었음
 - 옛것을 이어가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는 현재 사람들의 가치를 접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을 새롭게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신통대길놀이를 실시할 때 안전장치 필요
 - 신통대길놀이를 실시하는 공간이 협소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도로에서 실시하는 행사라 안전문제를 해결해야함
 - 혼잡을 예상하고 들어오지만 남대천 다리에서의 안전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신통대길놀이 이후의 행사 필요
 - 남대천교를 4시간정도 통제하면서 신통대길놀이 이후에 부스운영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인 것 같음

- 기타 내용
 - 안내지도의 수정 시도는 필요할 수 있음
 - 단오제를 어느 수준까지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문객을 파악

2 강릉단오제 발전기본방향 및 SWOT 분석

1) 기본방향

- 가진 중요무형문화재, 유네스코 등록 인류문화유산이라는 가치를 전승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축제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함
- 관광적 측면이 강조된 현재 축제 형식에서 타 축제와 차별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어떤 콘텐츠를 개발·확대할 것인지 모색함
- 쾌적한 축제 관람을 위한 공간구성 및 시설배치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 글로벌 축제로써 외국인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강릉단오제의 SWOT 분석을 통해 적절한 전략방안을 도출함

2) SWOT 분석

<표 6-2> 2018 강릉단오제 SWOT 분석

SWOT 분석		(S)	약점 (W)
		-전국 최고의 확고한 전통성을 가진 전통 단오문화 축제(유네스코 등재) -전통과 놀이, 공연,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형 축제 -강릉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기반(Community based) 축제 - 시내 안에서 실시함에 따라 우수한 접근성	-동선의 비효율성(주차장 및 관람 등) -비정형화된 행사 부지 -강릉단오제 전통 지식전달매체 부족(외지인 인지도 미비) -반복적인 공연 및 차별화 되지 않은 먹거리 -전통성보다 대중성을 겨냥한 축제 현장
기회 (O)	-전통축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증대 -KTX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 증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마케팅 효율성 증대 -전통성 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S-O	W-O
	-내세울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의 유입을 위한 콘텐츠 마련 -시민들과 외지인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장 확대 -축제장과 축제장 인근 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체로 축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방문객 이동 동선을 고려한 부스 배치 개선 -차별화된 먹거리 개발 및 단오제 먹거리 식당 운영 -전통성 기반의 콘텐츠 확대 -스토리텔링 및 단오제 이야기 확대 재생산을 통한 즐길거리 마련	
위협 (T)	-유사 축제 개최에 따른 경쟁심화 -상권 또는 종교적 이유로 인한 시민들과의 갈등 -축제 개최로 인한 교통 혼잡	S-T	W-T
	-한국대표 전통축제는 강릉단오제로 각인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풍속적 이야기 개발 -축제개최에 있어 이해당사자간 시차원의 갈등해소의 장을 마련하여 해결 지속 노력 -관광객 편의증대를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안 마련	-차별화된 강릉단오제만의 공연(시민이 참여하는 공연) 분야별 확대 -신통대길놀이와 같이 전통성을 가지고 관광객과 강릉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 확대 조성 -외지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확대 및 집중 안내	

3 2018 강릉단오제 공간 구성 및 시설 배치 개선방안

- 수유실이 잘 보이도록 배치
 - 모유수유실의 내부의 모유를 주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안쪽에 배치하였으나 모유수유실의 내부 구조 변경을 통해 해결하고 수유실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배치
 - 모유수유실의 글씨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크기와 부착 위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6-2> 모유수유실 현장사진

-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스는 주변 부스를 고려하여 배치
 - 곳당의 소리를 적정소리로 조절하거나 휴식을 취하며 식사를 하는 음식점이나 체험을 위한 장소는 곳당과 거리를 두어 배치
 - 또한 씨름장이나 그네뛰기 행사장도 마이크를 이용하여 사회를 보는데 타 부스나 행사(조전제)에 영향을 준 사례도 있었음

- 시스템을 활용하는 행사장은 주변의 부스를 이용하는 방문객을 항상 고려하여 적정선을 유지해야 함



<그림 6-3> 그네장과 단오제단의 거리

■ 단오행사장의 구획 지정

- 외지인들은 행사장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타인에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 각 구획을 표시할 수 있는 그리드(grid)형 행사장 배치도를 제작하거나 공항과 같이 알파벳이나 숫자를 활용하여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구획을 지정해야 함



<그림 6-4> 알파벳과 숫자를 활용한 안내도

- 부스는 공연장에서 거리를 두어 배치
 - 아리마당 앞 롯데주류 부스, 수리마당 앞 롯데리아 부스는 공연을 관람하거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강릉단오제에 대해 상업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음
 - 강릉단오제를 대표하는 차별화된 먹거리나 홍보가 필요한 상품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체류를 하는 공연장 앞 부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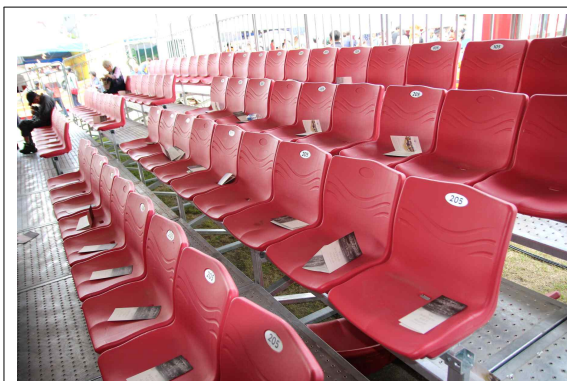


<그림 6-5> 수리마당과 맞은편 롯데리아 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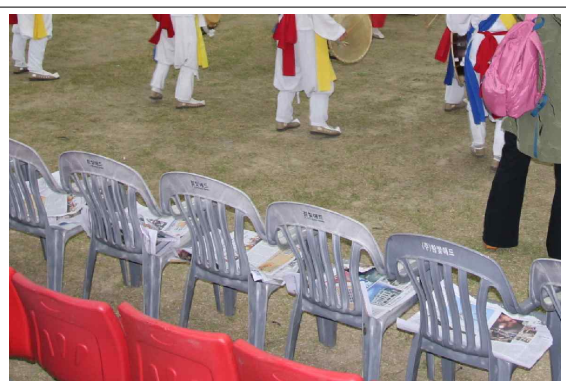


<그림 6-6> 아리마당과 맞은편 롯데주류 부스

- 창포다리 앞 분수시설 확대
 - 창포다리 앞 분수시설은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분수 시설을 확대 설치하면 생동감과 시원함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방문객이 사용하는 의자의 청결도 관리
 - 공연장에 배치되어 있는 의자들이 노후화 되거나 먼지가 쌓여있어 강릉단오제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됨



공연이 끝나고 다음공연이 시작했으나
전공연의 팸플릿이 그대로 비치되어 있음



의자에 먼지가 많이 쌓여 신문을 깔고
앉았다가 그대로 떠간 관광객

<그림 6-7> 공연 관람석 현장사진

- 인한 정체, 미세먼지,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부스 제거
 - 음식점 부스 앞 구역부터 길이 갈라져 2열로 진행되는데 음식점의 연기와 미세먼지가 부스로 인해 빠져나가지 못함
 - 또한 좁은 길에 비해 많은 부스로 인해 관광객이 조금만 증가해도 정체현상이 발생하여 쾌적한 관람을 방해할 수 있음
 - 이로 인한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길 가운데에 위치한 부스의 개수를 축소 또는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6-8> 부스가 세 줄로 늘어나며 길이 좁아지는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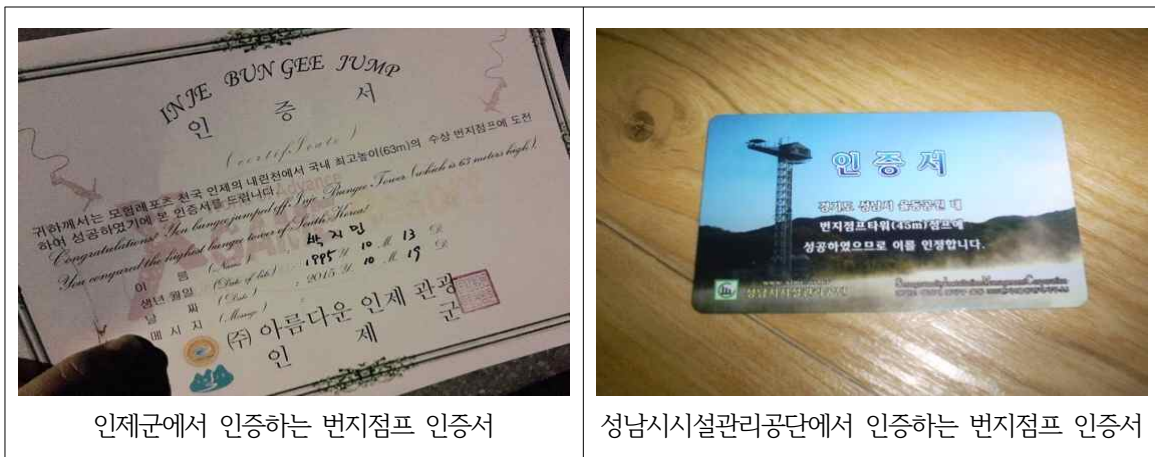
- 단오캐릭터 부스 확대조성 필요
 - 단오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인 단오캐릭터 부스가 길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눈에 띄지 않을뿐더러 창밖으로 디스플레이 물품들도 확인하기 어려움
 - 단오캐릭터를 이용한 포토존은 단오 부스 앞이 아닌 단오캐릭터가 서있는 단오 문화관에 비치하고 부스를 길 안쪽으로 이동하면 더 활성화 될 것임



<그림 6-9> 단오캐릭터 부스

4 2018 강릉단오제 운영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

- 여행사와 단오전문 여행상품의 개발
 - 단오를 위한 모객 및 여행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여행사 설립을 통해 평일 낮 시간 때 부족한 관람객을 충당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증대함
 - 단오 여행상품 개발 및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대형여행사와의 MOU를 통해 단오여행상품 판매
- 그네뛰기 인증서 판매
 - 그네뛰기, 씨름 등 민속놀이는 공연이외의 볼거리를 제공하며 일반인이 참여하는 행사임
 - 일반인의 그네뛰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번지점프 인증서와 같이 그네뛰기 높이에 대한 측정 및 인증서를 발부하여 강릉단오제에 순위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인제군에서 인증하는 번지점프 인증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인증하는 번지점프 인증서

<그림 6-10> 타 시군의 번지점프 인증서

- 초청공연들의 공연시간 또는 구성에 대해 조정 필요
 - 공연마다 상이하였으나 공연팀 한팀이 60분을 커버하는 공연은 지루한 느낌이었음
 - 변화없이 같은 구성으로 30분을 공연하자 대부분의 관객들이 지루해 일찍 자리를 일어나 객석을 나가버리는 현상들이 보였음

- 아리마당 공연장에 금일 공연 현수막을 걸어 놓으면 관객들이 입맛에 맞는 공연을 시간에 맞춰 관람할 수 있을 것임
 - 공연은 강릉단오제 안내 팸플릿을 통해 확인 가능하나 공연장 밖에 현수막을 걸어두면 굳이 팸플릿을 꺼내보지 않아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여 관객 관람 유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신통대길놀이의 확대
 - 신통대길놀이가 끝나고 너무 급하게 마무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음
 - 시민들과 외지인들이 함께 화합하며 놀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방문객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글로벌 축제와 걸맞게 강릉에 거주 중인 다문화 가정에게 참여를 유도하면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각 국의 문화 또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차별화된 먹거리 개발 및 단오제 전통 먹거리 식당 운영
 - 단오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젊은 세대들의 입맛에 맞게 개선을 하거나 퓨전음식 등을 개발하여 단오제를 먹거리의 차별성 확보
 - 현재 강릉단오제 먹거리를 검색하면 감자전과 닭꼬치가 가장 많이 리뷰되어 있지만 차별성이 없음
 - 단오의 제철음식인 수취리떡, 앵두화채, 제호탕 등 전통음식들을 대체할 수 있는 퓨전음식 개발

- 시민 개방형 공연무대
 - 아리마당의 공연이 없는 시간대에는 시민들에게 무대를 개방하여 방문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함

- 체험비의 현실화
 - 강릉단오제 체험촌의 체험가격이 전체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관광객이 부담없이 즐길 수는 있으나 체험운영의 과부하 및 운영수익 창출의 부진이 우려됨

5 기타 제안

- 추정 방법론 개선
 - 2016년도와 2017년도 모니터링의 방문객 추정방식은 입구표본추출 방법으로써 출입구가 여러 개인 무료 축제관광지의 방문객의 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측정함
 - 하지만 강릉단오제 행사 부지는 모든 곳이 오픈되어 있으며 입구와 출구가 따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역시 오차범위가 큼
 - 올해는 단위 면적당 인원으로 전체 방문객을 추정하는 방식인 페르미 산출법을 실시하였으나 행사장 대부분이 천막으로 가려져 해당 방법으로도 한계가 있어 4개년의 평균값으로 대체함
 - 이에 2019년부터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문객 추정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함
 - 해운대구는 지금까지 눈대중 방식(페르미 산출법)으로 해운대해수욕장 방문객 수를 추정 집계하였으며 이런 방식은 ‘뺑튀기’ 논란에 휩싸였음
 - 실제로 부산 해운대에서 2017년 페르미 산출법을 통해 방문객 수 추정을 하였을 때에는 1370만여명으로 집계되었으나 pCell방식을 도입하여 비교해본 결과 700만여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pCell 방식은 전파맵을 만들어 핸드폰이 잡는 주변 기지국의 접속자 수를 측정하여 방문객 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강릉단오제와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의 방문객 수를 추정하는 데 효과적임
 - 2019년 강릉단오제부터는 이동통신사와의 협약을 통해 pCell 방식을 도입하여 보다 정확한 방문객 수 추정을 실시해야 함
- 우천 대비한 부스 마련
 - 우산, 비옷 등 급작스러운 우천 시를 대비한 부스를 마련



VII. 부록

1. 인터넷 모니터링 사례
2. 방문객 설문지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

1 인터넷 모니터링 사례

1) 강릉단오제 2018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 단오장으로 놀러가자!



오늘은 단오날입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이거든요.

천년을 이어 온 천년을 이어갈 2018 강릉단오제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 개막한 단오제는 오는 6월 21일까지 무려 8일 간이나 지속되는 국내 최대의 지역축제입니다.

월화교에서 쉼다리까지 남대천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축제장은 이곳만 돌아보는 데만도 반나절은 필요할 듯합니다.



남대천을 사이에 두고 단오공원쪽의 강변에는 수리마당, 아리마당, 단오문, 단오제단 등이 있어 단오제 행사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난장이나 품바, 먹거리 존도 있고요.



반대편의 강변에는 이불전, 홍보부스, 난장, 놀이기구, 품바, 푸드트럭이 늘어서 있어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자꾸만 발걸음이 느려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먹거리”

축제의 꽃 먹거리존입니다.

강원도 하면 감자잖아요. 거짓말 안 보태고 어린아이의 머리통만 한 감자를 엄청 큰 다라에 한가득 깎아놓고 즉석에서 부쳐 주는 감자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주문을 했는데요. 묻지도 않고 두 장 부쳐다 줍니다. 깍두기와 양념장을 함께 주는데 감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 별미로 먹기에 너무 좋았어요. 강릉 주문진 쌀동동주도 인기리에 팔리고 있네요.



우리는 중앙시장 쪽에서 단오장으로 진입했는데 시장에서부터 강변의 난장으로 이어지는 장에는 먹거리는 물론 생필품, 옷, 액세서리 등등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엄청난 장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장 구경만큼 재미있는 게 없잖아요. 슬쩍슬쩍 물어본 가격들은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창포다리에서 쇠다리 사이에는 이불전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여름이불은 물론이고 두툼한 겨울이불도 나와있어 좋은 제품 저렴한 가격에 득템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오장 체험촌”



체험장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어린이를 위한 체험존이에요. 강릉과학산업체험관에 가면 드론 날리기, VR 체험존, 코딩 로봇체험전, 모래상자에서 모래를 쌓고 하늘소를 잡는 재미있는 IT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관노탈 그리기, 단오부채 그리기, 창포로 머리감기, 단오차 체험, 단오 컬러링 엽서 체험, 오륜주머니 던지기 체험 등은 단오제에서만 해볼 수 있는 체험! 창포로 머리를 감은 딸의 머리를 말려주는 아빠의 손길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쁜 한복을 빌려 입고 단옷날의 기분을 만끽해 볼 수도 있고요, 수리취떡과 신주도 마셔볼 수 있습니다.

“단오행사”



강릉시립예술단 공연

16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무려 세 시간 동안이나 단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단오제가 시작되는 날부터 동해안은 저온현상이 시작돼 햇볕은 따가웠지만 그늘로 들어가면 춥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다가 저녁 7시에는 수리마당에서 펼쳐진 강릉시립예술단의 공연을 1시간 동안 감상했습니다. 남대천이 흐르는 강변에서 듣는 음악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음악을 듣는 듯 감미로웠어요.



단오공원 야경

강릉시립 예술단의 공연을 보고 신통대길 길놀이를 보기 위해 남산교로 이동 중 본 단오공원. 단오등을 달아놓아 야경이 너무 예쁩니다.



남산교 위에는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영신행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신행차는 대관령국사성황신과 대관령국사여성황신을 모신 행렬로 강릉시내를 돌아 이 레드카펫을 지난 후 단오제단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신통대길 길놀이입니다.

21개 읍면동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관노가면극팀과 강릉시니어 예술단들도 지나가고 있네요.

하지만 9시부터 시작되는 단오굿을 보기위해 신통대길 길놀이를 끝까지 못보고 단오제단으로 달려갔습니다.



단오굿은 대관령국사성황신과 대관령국사여성황신을 이곳 단오제단으로 모셔온 후에야 굿이 시작됩니다. 16일 토요일부터 시작된 굿은 21일 마지막 날까지 하루 5회 이상 이곳 단오제단에서 벌어집니다. 첫날에는 문굿·청좌굿·축원굿이 펼쳐졌습니다.

굿판을 가득 메운 관객들과 신명을 쏟아내는 무녀의 뜨거운 한판 굿!!

무병장수와 소망이 신에게 닿기를 소망하며 제단에 돈을 꽂고 절을 하는 분들도 있어 색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명나는 굿판을 뒤로하고 남산교로 돌아오니 아직도 레드카펫을 밟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할 법도 한데 전혀 지친 기색 없이 신명나게 축제를 즐기고 있는 동네 주민들을 보며 역시 천년을 이어 온 축제이자 천년을 이어갈 축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번 주 강릉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이 단오제도 여행 계획에 포함시켜 보세요. 강릉 단오장, 없는 게 없는 난장의 먹거리와 살거리, 일 년에 한 번뿐인 단오행사도 참여해 보고 신명나는 굿판도 보고 말입니다.

[출처] 강릉단오제2018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 단오장으로 놀러가자!|작성자 수기

2) 강릉 가볼만한곳 강릉단오제

강릉단오제를 맞이하여 강릉에서 열리는 기대가 많이 되는 축제가 올해 6월 14일 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습니다. 먹거리도 많고 사람들이 부쩍부쩍했던 문화의거리, 관광의 도시 강릉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짧다면 짧았고 길다면 길었던 2주간의 강릉단오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대 명절중에 하나입니다. 어렸을때는 티비로만 봤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가족들과 현장에서 다양한 놀이기구와 체험현장을 방문해서 경험을 해보게 되네요.



놀이기구가 오픈되어서 그런지, 꼬마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이 강릉이라는 곳의 마스코트의 특징을 살려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축제인 강릉단오제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와 전통이 이어져오는 고장입니다. 천년의 삶을 고스란히 가져온듯한 이곳은 2005년에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무형유산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존해 오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는 가치와 의미를 보여주는 소중한 축제를 의미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유례가 없는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릉단오제 성격]

1. 풍년을 기원하는 파종제로서의 단오
2. 조상숭배로서의 단오
3. 세시풍속으로의 단오



첫번째는 하늘에 제사하고 밤새워 즐긴다는 뜻에서 제천의례가 기원입니다. 이때 단오는 축제를 마을 전체로 함으로써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민족만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계절제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출처] 강릉 가볼만한곳 강릉단오제 | 작성자 알쓸신잡



둘째는 창포 머리감기와 씨름, 그네뛰기로 상징되는 조상송배입니다. 단오세시는 민간, 궁중, 중국의 단오 풍습이 조합적으로 어울려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포 머리감기는 안좋은 기운을 제거해주고 벌레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1년중 가장 큰 체험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에야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만 했지만 과거에는 모든 마을주민들이 창포를 삶은물에 끓인 후에 머리를 감았다고 하니,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엿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곳만의 특이한 점은 수익을 위한 축제만 하는게 아니라는점!

신주는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는 술 종류중에 하나인데, 판매는 별도로 하지 않고있습니다. 신기하죠? 주변 사람들은 맛있다고 사가고 싶다고 하는데,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하니.....이곳만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성묘의 기원을 단옷날 열린 수로왕에게 제사하는 것에서 생겨난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조상들에게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듯이 강릉단오제에는 수로왕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후손들이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의 강릉단오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천의례 기능은 아직도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축제장에서만이 체험이 가능한것 같아요. 물론 마을주민들에게는 생활에 녹아들어가 있기때문에 습관적으로 하게되는 체험일 것입니다.

6월 14일 첫날을 시작으로 6월 21일 마지막날까지 수많은 관광객들이 강릉을 다녀갔습니다.

울림기타, 전통예인집단 끈, 사물놀이 느닷컴퍼니, 강릉예총, 댄스이더 샤프르, 에시자오시자 같은 수리마당을 시작으로 가면극,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칠성굿, 축원굿 등 다양한 볼거리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강릉단오축제를 오셨다면 강릉시민들이 직접 현미로 만들어 주신 신주와 수리취떡은 꼭 맛을 보시고 돌아가셔야합니다. 참고로 신주와 수리취떡은 무려로 나눠주기 때문에 부담없이 마음껏 드실수가 있습니다. 술은 조금만 남남 하셔야해요! 이곳은 축제현장이지 술먹고 노는 현장이 아니랍니다^^

축제라는건 기쁘다가도 끝나면 아쉬운 점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1년에 한번다가오는 강릉단오제. 강릉 가볼만한곳으로 강력 추천해보고 싶은 장소입니다.

[출처] 강릉 가볼만한곳 강릉단오제|작성자 알쓸신잡

3) 축제여행_2018 강릉단오제(180616)

2018 강릉단오제. 오늘다녀온 단오제!!
뜨끈뜨끈한 현장을 담았다 ㅎㅎ (KTX강릉선 진짜 짜임 ㅎㅎ)

올해로 세번째 방문한 강릉단오제는 여전했다. 너무나도 오래된 축제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모습이 항상 인상적인 단오제!
강릉사람이라면 당연히 찾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단오제에 축제장을 안찾는 강릉시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단오제다 ㅎㅎ
오늘은 대관령국사성황신의 신목을 축제장으로 모시는 영신행차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방문하였다.



단오축제장의 입구는 역시 단오문!
오늘은 영신행차와 신통대길 길놀이가 있는 날이라서 안내물이 하나 더 있다.
신통대길 길놀이는 축제기간 중 오늘 하루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쉽다. 단오제의 핵심은 곳이지만, 외지인 입장에서 재미난 볼거리로는 길놀이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ㅎㅎ



오늘은 씨름대회도 있는 날! 씨름대회는 강릉시의 청년단체인 JCI에서 주관한다고 한다.
외국인들간의 시합이었는데, 힘의 대결이 제법 볼만한 씨름대회 :)
단오제단으로 향하다보면, 단오제의 각종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단오제는 말 그대로 단오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축제이므로 단오의 의미에 맞닿은 프로그램을 주로 펼친

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창포물에 머리감기! 다른건 안해도, 이것만은 해보야 한다며 티켓을 구입하고 갔다 ㅎ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어머님들께서 직접 머리를 감겨주신다. 귀여운 두피마사지도 해주시는 것도 은근 재미짐 ㅎㅎ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것은 여름을 대비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창포가 머릿결에 좋다고... ㅎ (어머님들이 설명해주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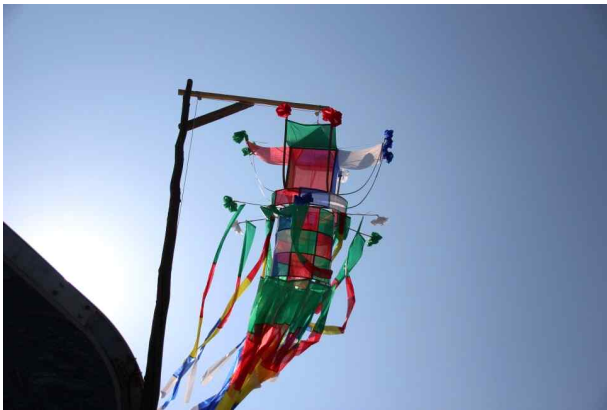
맞은편에서는 그네타기 대회도 열리는 중! 높게 오르려고 발을 하늘높이 치켜올려세우는 아자씨 ㅋㅋ 옆에서는 신주를 나눠주고 계신다. 신주는 막걸리인데, 이게 굉장히 흥미롭다. 막걸리를 만드는 쌀을 강릉시민들이 기부한다.

대부분의 강릉시민들이 한되정도의 양을 비닐봉투에 담아 단오제위원회에 기부하고, 강릉을 떠나 외지에 나간 강릉사람도 쌀을 택배로 보내올 정도라고!! 그 의미가 굉장히 대단함 ㅎ

강릉 단오제에서 모시는 대관령 산신인 김유신 장군과 대관령국사성황신(범일국사), 대관령국사여성황신에게 모시는 신주(酒)를 사람들과 나눠마시며 좋은 기운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



단오제단에서는 곳을 행하지 않고 있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신목이 단오제단에 오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다. 신목(神木)은 오늘 밤에 진행된 영신행차를 통해서 축제장으로 모셔졌다.



섯다리에서 바라본 남대천의 풍경



단오제는 이불파는 시장이 길게 펼쳐진 것으로도 유명하다. 다른 축제장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인데, 유독 단오제의 한쪽 구석에는 이불장수들이 모여서 신나게 이불을 파는 것! 예전에 강릉사람한테 단오제에는 왜 이불파는 곳이 많냐고 했더니, 잘 모른다더라... 근데 어릴때 부모님께서 단오제 때마다 매년 이불을 사오셨던 기억이 있다고 했었다 단오제에서 구입한 이불이 일년을 지켜주는 것 아닐까!? ㅎㅎ



남대천을 가로지르는 다리위에는 깃발이 펄럭~!
오늘은 하늘이 청명하여 날이 굉장히 좋았다.
아무렇게나 찍어도 사진이 잘 나오네!



귀여운 단오 캐릭터도 만났고 ㅎㅎ



강릉단오제하면 떠오르는 관노가면극도 보았다. 오늘 공연은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관노가면극이었는데, 많은 시간 열심히 연습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귀엽고 멋지다는 생각! 지역의 오래된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

[출처] 축제여행_ 2018 강릉단오제(180616)|작성자 지한코



축제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더 늘어나니 정말 대단함 ㅎㅎ



단오축제장을 구경한 후, 저녁을 먹고 봉봉방앗간에 들러 커피 한잔 마시고~서~

길놀이를 보기 위해 나갔다.

길놀이를 위해 대기중인 강릉시민들 ㅋㅋ

각 읍면동 단위로 팀을 이루어 나오는데, 주문진읍은 오징어를 ㅋㅋㅋㅋ 지역 정체성이 가장 한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재미난 퍼레이드 상품 ㅋㅋ



드디어 신을 모신 위패가 위용을 뽐내며 나타난다.



뒤따라 나타난 신목!!!(신을 모신 나무라고 한다)

영신행차행렬이 앞장서서 지난 후, 신통대길 길놀이를 참여할 행렬이 뒤를 잇는다 ㅋㅋ



그물에 걸린 오징어 퍼포먼스로 시선을 이끄는 주문진을 ㅋㅋㅋ 재미짐 ㅋㅋ





영신행차와 신통대길 길놀이 까지 보고나니, 단오제는 역시 대한민국 최고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강릉단오제와 당진기지시줄다리기축제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정수가 그대로 담긴 대단한 축제라고 생각.

어쩌다보니 2년에 한번꼴로 방문하여 세번째 방문한 단오제. 내년은 건너뛰고 내 후 년에 다시 가지 않을까 싶다 ㅎㅎ

오늘 단오제를 보면서 몇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따로 적기는 마땅치 않으니 이곳에 더 적어보려고 한다.

어떤 일이든 목적이 뚜렷하면 진행되는 과정이나 결과가 뚜렷하게 진행되기 마련인데, 강릉단오제는 목적이 뚜렷한 것처럼 보인다. 단오제에서 모시는 대관령국사성황신을 모시고, 강릉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다.

신을 모시기 위하여 제사가 펼쳐지고, 그 이후에는 신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의 뒤편이(놀이판, 난장)가 벌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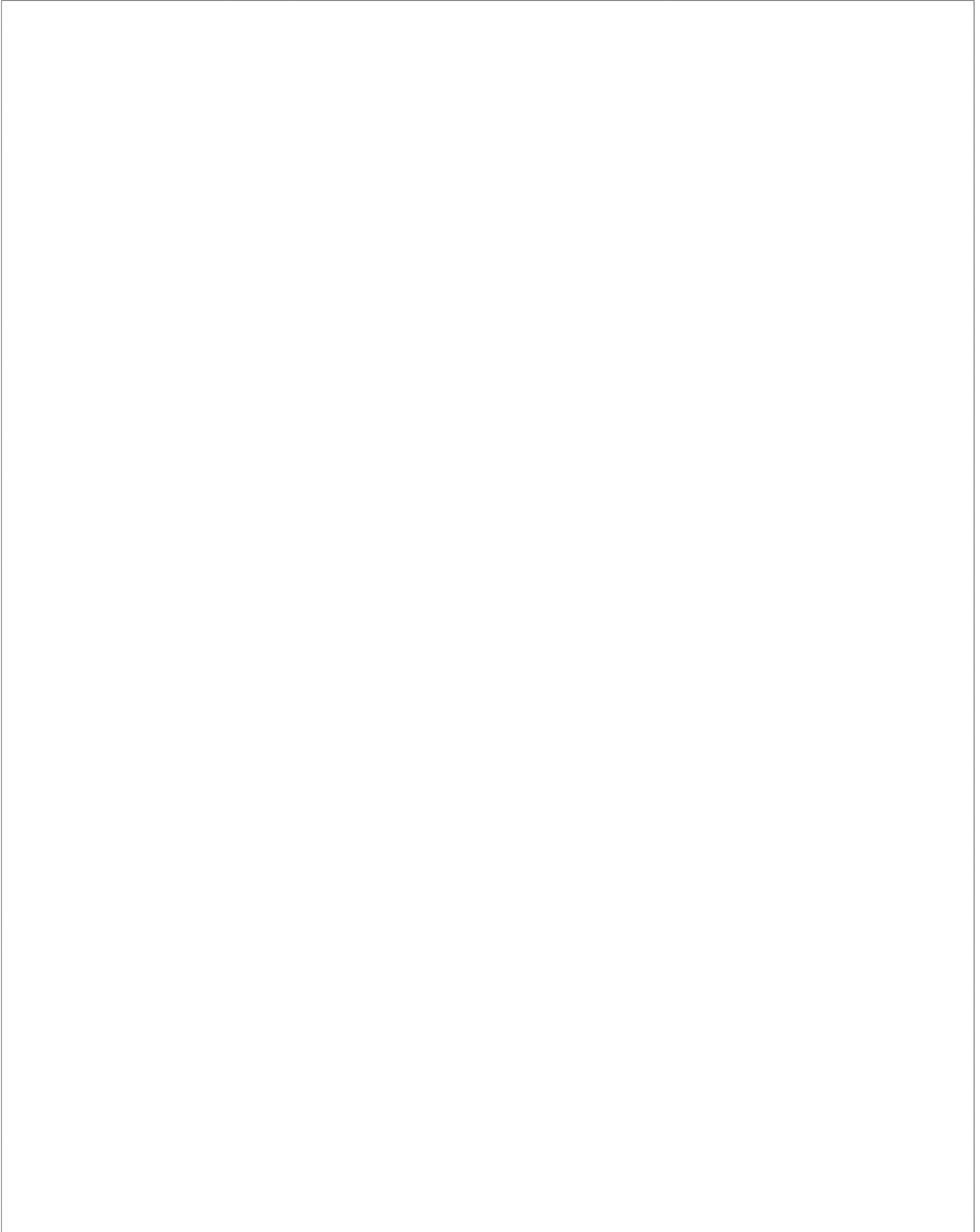
강릉단오제는 제사라는 정체성(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중심을 잡고 있고, 그 외에 수많은 판매먹거리부스가 입점해있다.

축제장의 75%이상이 시장판이라고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오제만의 확실한 정체성이 느껴지는 것은 단오제를 상징하는 콘텐츠인 굿과 영신행차 등이 있고, 단오축제만의 이야기(대관령국사성황신과 여성황신)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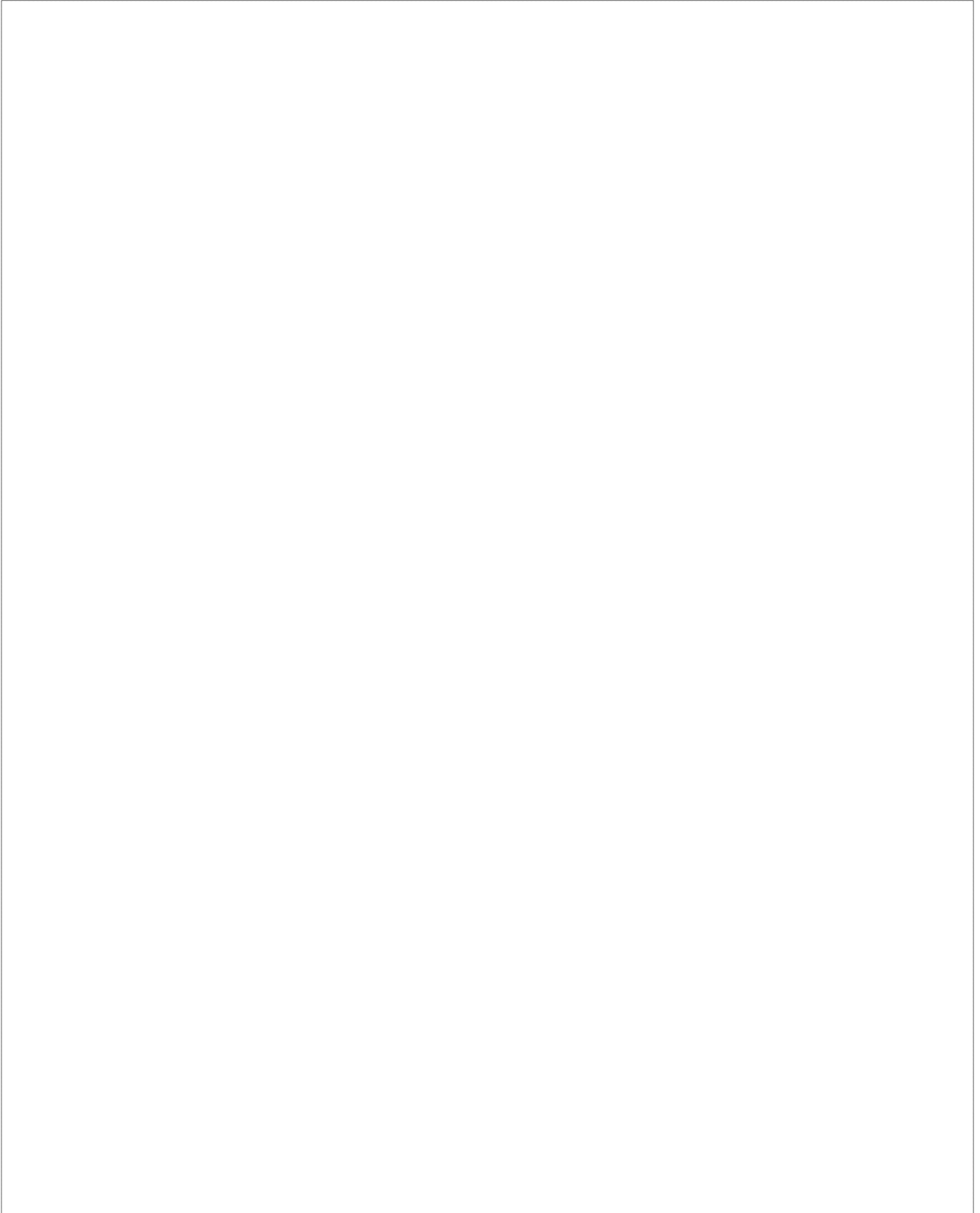
축제의 기둥(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깨닫게 되는 방문이었다.

[출처] 축제여행_ 2018 강릉단오제(180616)|작성자 지한코

2 방문객 설문지







2018

축제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용역 보고서

인쇄일	2018. 08
발행일	2018. 08
집 필	정석중, 임관혁
편 집	황지윤, 구완희

※ 본책자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사)강릉단오제위원회
강원도 강릉시 단오장 길1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전화 || 033-641-1594
홈페이지 || <http://www.danojefestival.or.kr>
